제5편
확장 및 발전의 시대
(1966~1991, 삼육대학 시대)

제1장 삼육대학 초기 시대

(1966~1969)

순안에서부터 시작된 삼육교육의 역사가 1960년대에 이르던 해에 드디어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삼육대학의 시대를 열었다. 삼육교육의 주체들은 격동기 한국사의 중심에서 민족의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기독교교육 이념에 입각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역경들을 헤쳐내고 삼육대학의 꿈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3개학과를 갖춘 4년제 대학이라는 외형적 명분과는 달리 초창기 삼육대학이 진정한 대학으로서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었다.

이 시기에 삼육대학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에 직면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볼 때, 전쟁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다. 대부분의 백성들도 외국으로부터 오는 보급품에 의지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7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공식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 독자적인 자립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이 위기의 때 초반에 5·16 군사정부가 들어섰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군부는 조국근대화를 명분으로 혁명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 혁명의 대의 중의 하나인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을 유입하고 수출 지향적 자본 축적을 주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사정권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변화를 추구하였다.[1]

당시의 교육정책도 이런 변화의 틀에 맞춰졌다. 정부는 국가 주도적인 교육사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 동력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별히 조국 근대화와 민족문화의 창달, 나아가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완수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국민교육헌장"(1968년 12월 5일)을 선포해 혁명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민상을 밝혔다. 그 내용의 요지는 손인수 박사가 정리한 것처럼 "온 국민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의 주체성 위에 창의적인 협동의 힘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해 보자"는 것이었다.[2] 한 마디로 말해서 혁명정부가 들어섰던 196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국 근대화를 최우선

---

[1]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사, 근현대편(서울: 도서출판 풀빛, 1997), 363.
[2]손인수, 741.

과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국민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은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그 힘든 시대에 삼육대학 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삼육대학은 이 시대가 안고 있던 국가적 과제를 함께 떠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선은 경제적인 고난을 함께 겪어야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비껴갈 수 없었다. 아울러 민족적 대의인 조국 근대화를 실현할 인재를 양성해야만 하는 교육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이 두 과제는 삼육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삼육대학 초기의 시대는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

1. 1960년대 후반의 교회 상황

한국전쟁 이후 꾸준한 교세 확장을 경험하던 한국 재림교회는 1960년대 중반 들어서서 쇠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재림교회의 구호봉사 사업의 위축 때문이었다. 1957년에 한국연합회 구호봉사회는 전후 한국 사회를 지원했던 10대 구호 단체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1] 이로 인해 미국의 구호물품들을 기증받아 대민 구호에 나서면서 재림교회는 급격한 교인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들어서서 미국으로부터 구호 식량 원조가 중단되면서 구호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선교사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교단의 선교사업 위축은 교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적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2] 이런 위기의 상황은 제3공화국으로부터 삼육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다시 얻고 난 이후 곧바로 도래하였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다. 재림교인의 숫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안교생 숫자가 1965년 연말 통계로는 94,018명이었는데,[3] 그 이듬해인 1966년에 64,054명으로 줄었다. 이런 숫자의 감소는 점점 심해져 1968년에는 29,257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해는 28,183명까지 감소되는 등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와 아울러 수침자 수도 1964년 3,968명을 정점으로 그 후 66년부터 68년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여 1,159명까지 감소하였다.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 그 하락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4]

---

[1]교회지남, 1958년 2월호, 37

[2]오만규, 재림교회사, 350.

[3]65년말 안교생 통계는 3기말 보고에 최고 100,314명까지 증가되었다. 하지만 연말 통계는 94,01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재신, "교회 발전을 위한 당면 문제를 분석한다," 교회지남, 1970년 12월호, 3. 이윤희, "우리들이 찾아야할 좌표," 교회지남, 1968년 5월호, 3.

[4]"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6.

이런 급격한 교인수의 둔화는 교인들과 교회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대회의 조직을 축소하고, 선교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우선 1965년에 경북대회와 경남대회로 분할했던 지역을 1967년 9월 23회 총회에서 다시 영남대회로 통합하여 5개 대회로 축소하였고,[1] 약 3개월 후인 1968년 1월에 개최된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중한대회와 중동대회를 중한대회로, 중서대회와 호남대회를 서남대회로 각각 통합하여 전국을 3개 대회로 축소하였다.[2] 이와 아울러 "연합회를 포함하여 모든 대회는 거의 또는 전적으로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사역자를 감원하는 조처를 취하였다.[3] 이로 인해 23명의 기관 사역자들과 38명의 목회자들이 은퇴하거나 기관으로 전임되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한국 교회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사업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조직 축소와 함께 교회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인 수는 계속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교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안교생의 급격한 감소가 안식일 오후 분교 학생 수의 감소에서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오후 분교생들도 정규 안식일학교 학생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정리해 왔었다. 그러나 이것이 안교생 수의 급격한 증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1968년 1월부터는 오후 분교생들을 안교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1968년에 안교생 수가 2만 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 및 정리를 통해서 한국연합회는 1968년 1기말 안교생 수가 성장 둔화 최저치인 24,155명이며, 침례교인 숫자는 기록상으로는 30,668명(68년 1기말)이지만 실제로는 대략 15,000명 정도라고 발표하였다.[4] 교인들의 숫자적 동향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연합회는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각 교회에 교적 정리를 강조하고 11월 30일을 전교인이 자신의 교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입신청서를 내는 날로 잡았다. 아울러 1968년 12월 28일을 교회 실태 조사일로 정하고 교회지남 등을 통해서 홍보[5]를 한 후 교세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수침자 수는 12,118명, 미침자 수는 3,175명, 총 15,2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6] 이것은 통계상의 침례교인 수인

---

[1]"삼육신학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3회 총회보고서, 1967년도, 20.
[2]W. L. 윌콕스(W. L. Wilcox), "대회 통합에 즈음하여," 교회지남, 1968년 2월호, 3.
[3]W. L. 윌콕스(W. L. Wilcox),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교회지남, 1968년 6월호, 3.
[4]박형종, "드디어 밝혀진 정규 안교생 수," 교회지남, 1968년 7월호, 16.
[5]임병의, "교적 정리에 관하여," 교회지남, 1968년 10월호, 45.
[6]교회지남, 1970년 5월호,

32,488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교회 상황의 위기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울위생병원과 삼육신학대학 및 초·중등삼육학교들도 이러한 재정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서울삼육중고등학교 부지가 매각되어 학교를 교문리로 이전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영향 중 하나였다.[1] 삼육신학대학도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전 직원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삼육대학의 시대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삼육대학 시대는 삼육대학교가 역사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대가 되었다.

2. 삼육대학 초기의 상황

삼육대학의 초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가 당시 입학정원은 신학과 50명, 농업교육과 30명, 가정교육과 30명으로 총 110명이었다. 따라서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면 1970년대에 이르면 대학의 학생 수는 400명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자료에 보면 정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였음을 알게 해 준다. 삼육대학 초기의 학생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2]

[표 42] 학생 상황(1960~1970)

년 도	대 학	중고교	국민학교	기술학교	계
1960	99	215	45		356
1964	233	327	65		625
1965	267	369	78		714
1966	270	328	98		696
1967	224	315	122	22	683
1968	225	429	157	20	825
1969	171	393	162	20	746
1970	138	355	201	19	713

삼육동의 학생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1962년 삼육실업초급대학에 농업과와 가정과가 신설된 때였다. 이 때 100명 미만이던 학생 수가 250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삼육동의 대학생수는 250여 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67년부터 3개과의 삼육대학이 운영되었지만 학생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220여명 수준이

[1]1970년 4월 14일 학교를 교문리로 이전하였다.

[2]"삼육신학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2회총회보고서, 1965년도, 16; 한국연합회 제23회총회보고서, 1967년도, 20; 한국연합회 제24회총회보고서, 1970년도, 15.

된다. 70년대 들어서서 학생수는 다시 그 절반을 약간 상화하는 13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3년까지 지속되다가 1974년 이후 학과의 증설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된다.[1]

이처럼 삼육대학 초기에는 학생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학 운영 1년 후인 1968년부터는 영어영문학과를 증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생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었다. 당시 대학은 적절한 교육 환경을 갖춰놓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원인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정규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신학과, 농업교육과, 가정교육과, 영어영문학과를 개설하여 입학생들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50명 내외를 넘지 않았"다. 특별히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의 경우는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학생 모집이 힘들었다.[2]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50여명의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교회의 전국적인 교육 네트워크 때문이었다. 이 당시 삼육대학 학생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교회의 재림청년들과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삼육교육을 받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로 채워졌다.[3] 이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학문과 믿음을 병행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대학을 찾았다. 이는 지난 60년간 삼육대학이 지향했던 사역자양성학교의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국의 재림청년들은 신앙교육과 실업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삼육대학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성을 함양한 지성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솔숲이 우거진 삼육동에 찾아와 학창시절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이런 학생들의 거룩한 열정이 또한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대학의 운영자금 실적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호전되었다. 삼육신학대학 시절 첫 신학사를 배출하던 때인 1965년에는 운영자금 실적이 35.9%였으며, 삼육대학 시대의 첫 해인 1967년에는 44.04%로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9년(41%)까지 계속되었다.[4]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서 운영자금이 70%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5] 이러한 지표들은

---

[1]1974년 이후부터는 학과의 증설(간호과, 전문학교, 위생간호학교)로 학생 수가 증가되어 대학생의 경우 1974년에 365명, 1975년에 453명, 1976년에 473명, 1977년에 524명이 된다.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15; 한국연합회 제26회 총회보고서, 1978년도, 3.

[2]김홍량, "나의 삼육동생활," 삼육동 이야기, 248.

[3]김종화, "삼육동에서 일한 기쁨," 삼육동 이야기, 218.

[4]"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총회보고서, 1970년도, 17.

[5]"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총회보고서, 1974년도, 21.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삼육대학이 서서히 발전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이전 시대의 난관들을 극복한 인고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966년 대학인가를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고등교육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3. 연구소 및 부속 기관들의 신설 운영(1967)

대학의 학사운영이 교육 중심의 일반대학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초창기 삼육대학 운영자들은 삼육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나아가 보다 더 실질적인 기술교육 및 실업교육을 위한 부속기관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소들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교회 내 자급사역자 양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고 송산에 삼육농공학원을 개원하는 등 부속 기관들을 세웠다.

1) 대학 내 연구소 개설

삼육대학 내에 가장 먼저 설립된 연구소는 종교사회과학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삼육신학대학 시절인 1963년에 개설되어 1965년 8월에 대학기구 개편과 더불어 대학 조직에 포함되었다. 삼육신학대학과 삼육실업초급대학으로 운영되던 당시의 대학은 학교의 조직체계를 대학의 행정부서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학 내에서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사회과학연구소를 개설하였다.[1] 이 연구소는 신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삼육신학대학이 종교와 사회를 주제로 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기관이었으며, 초대소장에는 이영린 교수가 임명되었다. 대학의 기능 중의 하나가 학문적 연구를 통한 사회의 기여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소는 기대감을 가질만한 것이었다.

종교사회과학연구소가 개설된 지 2년여가 지난 후인 1967년 10월에는 두 번째 연구소인 식량농업연구소가 개설되었다. 이 연구소는 삼육대학의 농업교육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개설한 연구소로 식량농업과 관련해 다양한 실험 및 연구업적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김현영 교수가 취임하였는데, 김현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1961)한 후 삼육신학대학을 졸업(1963)하고 1965년부터 삼육실업초급대학의 농업과 강사(가축생리 담당)로 활동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육대학 농업교육과의 조교수로 임명된 후 식량농업연구소 소장의 보직을 맡게 되었

[1] 대학안내(1965), 5.

다. 그는 본 연구소에서 두유(soybean milk)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별히 김현영 교수는 세계농업기구협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였는데, 1969년 7월에는 연구원의 자격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며 1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1]

2) 고등기술학교 신설 운영

대학은 우선 삼육대학 부설 고등기술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1967년 9월에 교회지남의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영적 교육과 일인일기(一人一技)의 직업교육을 시킴으로써 유능한 자급 사역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림교회 예비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2] 고등기술학교는 편물과, 양재과, 수예과 등 3개 과에 30명 정원으로 운영되었는데,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자로서 만 18세 이상에게 주어졌다. 입학생들은 1년간의 수업(수업료 6개월간 9,000원)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게 되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된 고등기술학교는 1967년에 22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4년 동안 총 81명이 1년간의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했다.[3] 당시 고등기술학교는 한국삼육중고등학교, 태강삼육국민학교와 더불어 삼육대학의 부속 교육기관으로서 삼육동 안에서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특별히 고등기술학교는 삼육실업초급대학이 삼육대학에 통합된 이후 전문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하다가 1973년에 삼육실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전문학교로 편입되었다.[4]

3) 송산삼육농공학원 개원

이 시대에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삼육대학에서는 송산삼육농공학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이 학원은 학생회 교육연구부(TOT) 주관 하에 만들어진 학원으로서, 1967년 9월 25일 송산지역에 개원되었다. 당시 삼육대학 부근인 송산지역에는 학교가 없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의 생활 사정상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대학의 교육연구부는 이 지역에 농업과 공업 실무 내용을 가르치는 농공학원을 개설하여 등록한 학생들을 가르

---

[1]교회지남, 1969년 11월호, 33.

[2]교회지남, 1966년 11월호, 36.

[3]고등기술학교의 연도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967년 22명, 1968년 20명, 1969명 20명, 1970년 19명.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15.

[4]김홍량, "나의 삼육동 생활," 삼육동 이야기, 244.

쳤다. 송산삼육농공학원은 박종기 선생을 원장으로 하고 교육연구부장인 김임내 학생을 교무과장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봉사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40명이었고, 교육연구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교사로 수고하였다.[1] 이 학원의 개원은 삼육대학이 봉사의 정신을 앞세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4. 영어영문학과의 증설(1968)

3개과로 시작된 삼육대학은 1년 후인 1967년 12월 7일에 또 다시 영어영문학과 증설 인가를 받음으로써 1968년부터는 4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육대학이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에 이어 영어영문학과를 개설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부응한 준비된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영어교육은 교육입국을 통해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꾀한다는 1960년대 후반의 교육정책에서 매우 특별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별히 수출산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이 시기에 영어교육은 산업기술교육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필요와 더불어 세계 교회를 추구하던 재림교회의 특성상 교단 대학에 영어교육 과정을 설립하는 것은 자명한 과제였다. 더욱이 삼육대학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었다. 삼육동 안에는 여러 선교사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선교사 사모들이 나서서 학생들과 삼육동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짓코스키 목사의 부인인 메리 짓코스키와 그의 모친인 플로랜스 퍼널드(Florence Fernald) 여사는 삼육동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회화를 지도하였다. 존스턴 교수의 부인 매들린 존스턴 여사, 클라임스 박사의 부인 애나 클라임스 여사, 헤일리 교수의 부인 제인 헤일리(Jane Haley, 이도연) 여사 등도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다. 특별히 애나 클라임스 여사는 "삼육동에 영어교육을 위하여 최초로 '영어특별강좌'(English Institute, 오늘날의 Total Immersion English Program, 영어몰입과정과 동일함)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켰다.[2] 주로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3주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 집중교육을 받았다. 만일에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도록 하여 영어 환경에 익숙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영어교육 방식은 오늘날의 그것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

---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55.
[2]송숙자, "사랑의 선교사들," 삼육동 이야기, 196.

기에 이미 삼육대학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앞서가는 영어교육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이런 교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삼육대학은 자연스럽게 영어교육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우선 대학 이사회가 본 대학 내에 영어학과를 증설하기로 결의한 후 문교부에 신청하였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당시 문교행정에 맞춰 영어영문학과(입학정원 30명)로 신설학과를 인가해 주었다. 이 인가증을 받은 후 대학 이사회는 그해 12월 15일에 인가된 명칭대로 학과를 영어영문학과로 결의하고 새로운 학과를 창설하여 1968년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은 신학과, 농업교육과, 가정교육과 이외에 영어영문학과를 운영하는 단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다. 학과를 신설한 후 1968년 1학기 학과 운영을 위해 각 학과의 학과장들을 선임하였다. 이에 신학과 과장으로는 존스턴 교수가 임명되었고, 농업교육과 과장에 헤일리 교수, 가정교육과 과장에 임정혁 교수, 영어영문학과 과장엔 정화현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1]

한편 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과를 개설한 후 어학실습실을 완비하여 수준 높은 어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68년에 40석의 규모로 만들어진 어학실습실은 녹음테이프를 개인별로 청취할 수 있는 어학교육 시설로 당시 한국사회에서 매우 선진적인 실습실이었다.[2] 이 어학실습실이 언어교육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2학기 때부터였다. 특별히 어학실습실은 영어영문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영어 및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크게 일조하였다.[3]

5. 동문회 활동의 활성화

삼육신학대학의 삼육대학으로의 승격 및 발전은 대학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계기도 되었다. 삼육대학 동문회는 개교 62주년을 맞이한 1968년 10월 10일에 모교 학장실에 모여 제4대 임원을 선출하고 동문회의 본격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삼육대학 동문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필원 목사가 회장을 맡으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4대 동문회는 이듬해부터 동문회 임원회의 결의 내용들을 교회지남에 공고하는 등 자세하게 동문회 활동을 알리면서 삼육대학 발전을 후원할 단

1"역대 학부장 및 학과장 명단,"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802.

2제24회 총회의 대학 보고 중 서무과 보고에 새 시설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그곳에 1968년에 언어학 실습실 40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17.

3정화현, "어학실험실," 교회지남, 1969년 10월호, 8.

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1]

삼육대학 동문회가 결성된 역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육신학원 시절인 1953년 7월 26일 당시 연합회장이자 삼육신학원 선생이었던 클린턴 리 목사는 신학원 졸업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학동문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발기 준비위원을 선정한 후 7월 29일에 동문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선정된 발기 준비위원들로는 강진하 목사, 이면득 목사, 우필원 목사 등 3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동문회 발족을 위한 발기위원회 모임이 7월 29일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참가 동문들은 임시의장에 선임된 강진하 동문의 사회로 본회의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초대 회장에는 오영섭, 부회장은 조치환, 정동심, 서기 및 회계는 김덕신, 부서기 및 부회계는 은인동이 각각 선정되었다.[2] 발기위원들은 이 임원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규 등을 결정한 후 동문회를 정식 발족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삼육대학 동문회 제1회 총회는 삼육신학원 제14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던 1953년 8월 2일에 개최되었다. 전쟁 이후 삼육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당시 강당으로 사용하던 목공장에서 개최된 총회는 발기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오영섭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총회 참석대표들은 우선 회칙을 통과시키고 세부 조직 및 활동 내용들을 결정하였다. 우선 고문에 클린턴 리 목사를 추대하고, 동문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3개 대회의 간사들을 선정하였다. 당시 삼육신학원의 동문들은 대부분 3개 대회에서 목회 또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 대회를 중심으로 한 동문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당시 간사로는 중한대회에 김명길 목사, 영남대회에 신종균 목사, 호남대회에 우필원 목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특별히 창립총회에서 대표자들은 동문회의 활동으로 1년에 2회(9월, 3월) 회보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동문회 활동 경비를 위해 1년에 100환의 동문회비를 결정하였다.[3]

이렇게 해서 동문회가 결성되었다. 동문회는 모교인 삼육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5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동문들의 활동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문회 임원들

우선 동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동문회 총회를 통해 동문회 임원들을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11대 임원들이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데

---

[1]우필원, "동문회 임원회 결의 공고," 교회지남, 1969년 10월호, 8.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69.
[3]상게서.

그 임원들의 시대적 구분 및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3] 동문회 임원 명단

구 분	임 원 명 단	주요사업
제1대 (1953)	회장: 오영섭, 부회장: 조치환, 정동심, 서기 겸 회계: 김덕신, 부서기 겸 부회계: 은인동	神友 1, 2호 발행
제2대 (1963)	회장: 박원실, 부회장: 조병서, 서기 겸 회계: 이재명, 부서기 겸 부회계: 김동기	
제3대 (1965)	회장: 김영도, 부회장: 이여식, 서기 겸 회계: 이경일	神友'3호 발행
제4대 (1968)	회장: 우필원, 부회장: 신현철, 박형종, 간사: 중한대회-전병덕, 노승익, 서남대회-고문경, 이상철, 영남대회-김진영, 오강기, 현국연합회-은인동, 시조사-이윤희, 서울위생병원-박영해, 부산위생병원-류을기, 삼육대학-노경운, 재미동문-최희만, 고문-합회장, 중한대회장	동문회보 1호 발간(1968) 천보 발간(1971) 동문회 장학생 선발.
제5대 (1975)	회장: 한기조, 부회장: 전병덕, 박해종, 서기: 노경운, 회계: 김성섭, 천보 편집간사: 남대극, 해외연락간사: 신현철	개교70주년 기념사업 추진(1976)
제6대 (1976)	회장: 김관호, 부회장: 전병덕, 송권, 서기: 남대극, 회계: 김성섭, 감사: 정용근, 윤충여, 천보편집인: 조대연, 고문: 연합회장, 각 대회장, 삼육대학장, 성우회장, 간사: 기관간사, 기별간사, 해외간사	삼육대학동문회보 발간(1978) 특별 찬조금 모금
제7대 (1977)	회장: 김종혁, 부회장: 신현철, 임운경, 서기: 장병호, 회계: 정용근, 감사: 김기영, 서광수, 편집인: 조대연	
제8대 (1987)	회장: 김용대, 부회장: 임운경, 김광규, 서기: 한성보, 재무: 김광두	
제9대 (1995)	회장: 원치재, 부회장: 한성보, 재미부회장: 이계남, 서기: 고태영, 재무: 김광두	개교기념탑(에벤에설) 건립 동문회 달력 제작(1996) 삼육인명록 발간(1998)
제10대 (2000)	회장: 주영봉, 부회장: 김광규, 한성보, 사재효, 서기: 고태영, 회계: 김종문, 감사: 김성현, 박지련, 회보 편집인: 강정민, 박희만, 박인배, 간사: 각 합회 및 기관의 재무부장	삼육의명대학 동문회 분리 운영(2000)
제11대 (2002)	회장: 심태섭, 임원은 제10대와 동일. 미국동부지역회장: 이재남, LA 지역회장: 최희만, 캐나다 지역 회장: 노봉우, 일본지역회장: 성선제. 해외 지역 간사: 남가주지역-조상문, 북가주 지역-김행선, 중가주지역-권석윤, 시카고 지역-윤부철, 조지아 지역-이민의, 뉴욕지역-이기호.	삼육대학교동문회보 1호 발행(2003)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

2) 동문회 회보 발간

동문회 활동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동문회보의 발간이었다. 회보 발간은 초창기부터 동문회의 주요 사업이었다. 동문회의 회보가 처음 발간된 것은 1954년 9월 1일로 제호는 神友였다. 神友는 삼육신학 졸업생 동창회의 이름으로 24면의 등사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오늘날 삼육대학교동문회보의 전신이 되었다.[1] 神友는 1957년 12월 16일에 제2호(63면)가 발행되었고, 제3호는 1965년에 19면의 등사본으로 발행되었다. 특별히 제3호에는 동문회의 회칙과 동문록 등이 게재되어 동문회의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최초의 동문회보였던 神友는 1968년에 이르러 동문회보로 제호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동문회보** 제1호가 35면의 인쇄본으로 발행되었다. 제2호는 1970년 12월 27일에 발행(38면)되었다. 제2회까지 발행된 동문회보는 1971년 개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천보(天寶)라는 제호로 다시 변경된다. 동문회 임원들은 개교 65주년을 맞이해 의욕적으로 동문회보의 역할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호를 바꾸고 회보를 책자로 발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발행된 천보 창간호는 140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문들의 논단, 교역 경험담 등을 게재하였고, 특별히 부록으로는 동문회 회칙, 회원 명단 및 동향 등을 실어 동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천보의 발행 부수는 600부였다. 이후의 천보 발행은 다음과 같다.

- 천보 제1호: 발행일-1971년, 면수-140면.
- 천보 제2호: 발행일-1972년, 면수-104면.
- 천보 제3호: 발행일-1973년, 면수-132면.
- 천보 제4호: 발행일-1974년, 면수-59면(재미동문회 특집).
- 천보 제5호: 발행일-1975년, 면수-98면.
- 천보 제6호: 발행일-1976년, 면수-102면(개교70주년 기념특집).
- 천보 제7호: 발행일-1977년, 면수-90면.

1978년에 이르러서 동문회보의 제호가 천보에서 삼육대학동문회보로 바뀌면서 제1호가 다시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동안 발행되던 책자 형태의 동문지를 4면 분량의 뉴스레터 형식의 동문회보로 다시 변경함에 따라서 제호 및 호수가 바뀌게 된 것이다.

- 삼육대학동문회보 No.1: 발행일-1978년 12월, 면수-4면.
- 삼육대학동문회보 No.2: 발행일-1980년 4월, 면수-4면.
- 삼육대학동문회보 No.3: 발행일-1981월 2월, 면수-33면.

삼육대학동문회보는 1983년에 다시 천보소식으로 제호가 변경된 채 발행되었다. 하지만 제호가 바뀜에 따라 호수의 일련번호도 바꾸던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호수를 연속적으로 이어갔다. 따라서 삼육대학동문회보 No.4는 천보소식 제4호로 발행되

[1]상게서, 370.

었다.

・천보소식 제4호: 발행일-1983년, 면수-4면.

・천보소식 제5호: 발행일-1985년, 면수-4면.

・천보소식 제6호: 발행일-1986년, 면수-4면.

삼육대학 동문회 회보가 神友에서 천보란 제호로 바뀌면서 천보는 동문회보의 대표적 제호가 되었다. 잠깐 동안 천보란 제호 대신 삼육대학동문회보로 변경되기도 했지만 곧 천보소식으로 바뀌면서 동문회보의 맥은 이어졌다. 그러나 1986년도에 발행된 제6호를 끝으로 천보소식은 당분간 발행을 중지하게 되었다. 한동안 발행이 중단된 회보의 발간을 위한 노력은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는 199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해 3월 21일에 모인 동문회 임원들은 임원회의에서 회보 발간을 재개하기 위해 편집 전담 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가 곧바로 회보 발행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에 임원들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01년에 다시 천보 발행을 위한 편집인으로 강정민, 박희만, 박인배 목사 등 3명을 보선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편집위원들은 드디어 2002년 삼육대학교동문회보란 제호로 동문회보 발행을 재개하였다. 이로써 동문회보가 재개되어 매년 발행되었다. 특별히 2006년에 발행된 제5호는 삼육대학교 100주년 기념호로 발행되었는데 대학교의 100년사를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담아내었다.[1]

3) 동문회 주요 사업들

창립 초기의 동문회에서는 회보 발간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1968년에 이르러서는 학생들 중에 매년 1명씩을 선정하여 1년에 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동문회 장학금을 신설하였다. 이 일과 기타 동문회 활동을 위해서 동문회 임원들은 초기에 100환씩 모금하던 연회비를 1968년에는 400원씩 하기로 결의하였다. 특별히 대부분이 교단에서 일하던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연회비를 감하기로 결의하였다.[2] 동문회 장학금은 운영 초기에는 매년 1명에게 지급하다가 1971년부터는 3명, 1975년에는 11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등 점차로 그 숫자를 늘려나갔다. 현재는 3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3]

동문회에서는 각종 기간시설들을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초창기에는 교정을 밝히기 위한 정원등 설치(1969), 대형 괘종시계 기증

---

[1]100주년 기념호 특집 동문회보의 편집은 강정민, 김유정, 박인배, 명지원, 이국헌, 이창호 등의 동문회보편집위원들이 담당하였다. 삼육대학교동문회보, 제5호, 2006년 10월 10일자, 1면 참조.

[2]우필원, 8.

[3]가장 최근인 2007년에 동문회 장학금 수혜를 입은 학생들은 총 33명으로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삼육대학교동문회보, 제6호, 2007년 10월 10일자, 4.

(1973), 동문회 배지 제작 보급(1972), 동문회 달력 제작 보급(1990), 삼육인명록 제작(1998)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문회의 이름으로 대학 달력을 만든 것은 1990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그러나 이후 달력은 대학과 의명대학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 다시 대학 동문회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동문회에서는 매년 대학 달력을 제작하여 모든 동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문회는 대학 내에 여러 기념물도 건립하였다. 1980년에는 선교70주년 기념관으로 지어진 대강당에 휘장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고, 개교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구행정관과 에스라관 및 도서관의 중간에 90주년 기념석인 '에벤에셀'을 건립하였다. 2000년에는 신학관 건립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1억 원을 기증함으로써 신학생들을 위한 전문 강의동을 짓는데 일조하였다.[1] 그리고 2002년에는 본교 출신인 고 전기석 목사의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추모비'를 신학관 옆에 건립했다. 전기석 목사는 익사 직전에 있던 청소년들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바친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희생정신이 삼육대학교의 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내주었기 때문에 동문회 이름으로 그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동문회에서는 대학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최태현 목사의 순교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동문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학교가 발전하여 학과들이 증설됨에 따라 학과별 동문회들도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육대학 동문회는 1987년부터 삼육대학 총동문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각 학과 동문회를 아우르는 총동문회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전문대학 동문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육대학 총동문회는 전문대학 동문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총동문회의 분리 필요성이 발생해 결국 2001년에 의명대학 총동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분리되기에 이른다.

한편 삼육대학교 동문회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해외 동문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해외동문회를 추진하였다. 이에 2002년, 제11대 임원 선출에서는 해외 동문들을 위한 지역장들을 선임하였으며,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는 미주, 일본 등의 지역에 해외지역 총동문회를 조직하여 더욱 더 단결된 총동문회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별히 2003년부터는 개교기념 주간에 맞춰 해외 동문들의 모교 방문 및 총동문회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문들의 단합을 유도하는 등 삼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총동문회의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대학 박물관 건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1]2000년에 신학관 준공과 함께 동문회 사무실이 그 건물 2층에 마련되었다.

6.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들

삼육대학 초기에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대학의 운영 주체인 재림교회와 교인들, 학교 구성원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맡은바 영역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1) 대학배지 변경(1967)

삼육신학원과 삼육신학대학 시절에 이어 삼육대학의 시대가 열리자 새로운 배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대학배지 현상 공모를 하였으나 접수된 것이 없었다. 이에 배지 구상위원회는 당시 학장이었던 클라임스 박사가 제안한 도안으로 대학 배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1]

클라임스 박사가 도안한 배지는 가장자리에 '방패'를 의미하는 문양이 둘러 있는 가운데 한글의 "육"자로 도안된 문양을 넣고 아래 부분에 대학을 표기한 것으로 검정색 바탕에 은색 문양으로 만들어졌다. 도안에 새겨진 "육"자는 한자의 "三"자의 형태도 갖추고 있고 직선과 도마와 낫을 의미하는 문양으로 이루어져 신학과, 가정교육과, 농업교육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기도 했다. 이 배지 문양은 대학 로고로도 활용되어 2002년 삼육대학교 UI (University Identity)가 제정되기 전까지 대학을 상징하는 배지 및 로고로 활용되었다.

2) "대학의 날" 제정(1968)

대학 행정자들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연합회에 "삼육대학의 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1968년 6월 15일을 "대학의 날"로 결의하였다. 대학의 날이 제정된 취지는 "좀 더 본 대학을 사랑하고 아끼며 가꾸고 빛내자는 정신 아래 온 삼육인의 단결을 위한 외적인 다짐이요, 내적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2]

대학의 날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았다. 1969년에는 7월 11일이 대학의 날로 지정되었다.[3] 대학의 날이란 1년 중 한 안식일을 대학의 날로 지정해 대학의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한국연합회는 대학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이 날에 들어온 헌금을 삼육대학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학의 날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

[1]배지 구상위원회는 클라임스 학장, 홍현소 학생과장, 주한승 농업교육과 주임, 존스턴 신학과 주임, 임정혁 가정학과 주임, 김창수 학생회장, 양완주 대의원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54.

[2]상게서, 358.

[3]"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12.

개교기념일이 들어 있는 10월 둘째 주 안식일에 지정되어 있다. 대학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재림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삼육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학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회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삼육대학은 교회지남을 통해서 "삼육대학의 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게 된다. 특별히 매년 전반기와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한 10월 등 두 번의 "삼육대학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위한 교인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1] 삼육대학의 날은 교인들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어 교인 자녀들의 삼육교육을 강조하고 나아가 교육사업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여 대학을 지원하도록 관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베네트 합창단(Bennette, 미8군 합창단) 연주회 사건(1968)

삼육대학 초기 시대에 대학이 겪었던 곤란한 일 중의 하나는 미8군 합창단인 베네트 합창단의 초청 연주회였다. 1968년 1월에 대학은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미8군 합창단을 초청해 특별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엄숙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외부 합창단의 초청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의 성격을 고려해 연주회의 레퍼토리를 클래식 음악 중심으로 선곡한 후 개최된 연주회였기 때문에 본 연주회 시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감동적인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주회가 마쳐지고 감동을 받은 청중들의 앙코르 요청이 있은 직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합창팀은 앙코르곡으로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인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연주하였다. 순간 청중석에 앉아 있던 신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고 연주회는 끝났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당시 선교사 퇴진과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림교회는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선교사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구호사업의 문제 및 그와 관련된 교인수의 급격한 감소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재림교회는 1966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교인수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구호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교인수의 급격한 증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교회에서 구호사업이 중지되자 준비되지 않은 교인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고,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조심스럽게 선교사 퇴진 및 본방인 사역의 시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2]

---

[1]한 사례로 1971년에는 2월 13일을 "삼육대학의 날"로 정하였다. 교회지남, 1971년 2월호, 13.

두 번째 이유는 196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위생병원 건축사업과 관련되었다. 서울위생병원 건축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붉어진 재정문제로 인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1970년에 이르러 중단되고 말았다.[1] 특별히 이 논쟁의 와중에서 재정의혹이 일부 선교사들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 재림교회 내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교회의 자양 운영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 선교의 위기와 재정 관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중심의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 한국인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2] 이런 1960년대 말의 분위기로 인해 결국 1970년에 개최된 연합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 대신에 한국인 지도자들이 행정을 맡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미8군 합창단 연주회 사건이 삼육대학 안에서 발생하게 되자 클라임스 학장에 대한 퇴진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발생한 학장 퇴진 운동은 이 시기에 전개된 선교사 퇴진 운동과 함께 재림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의해 1969년에 클라임스 학장이 삼육대학장에서 물러나 일본 삼육학원대학장으로 전출되었다.[3] 그리고 1년 후인 1970년 11월에 개최된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한국인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선출됨으로써 선교사 시대를 넘어서 본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었다.[4]

베네트 합창단 연주회 사건은 삼육대학의 고유이념과 세속 문화가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당시 삼육대학은 기독교교육 철학을 확립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매우 엄격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속적 음악의 연주는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대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더 빈번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문화와의 충돌 과정을 겪으면서 삼육대학은 고유한 교육이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행정자들과 구성원들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 충돌 현상들을 더욱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한 지혜가 삼육대학교 교육이념의 순수성을 지켜주었다. 어쨌든 베네트 합창단 사건은 삼육대학으로 하여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1969년 선교사 대신 한국인 학장이 대학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얻게 된 것이다.

---

[2]1964년에 개최된 삼육신학대학의 특별 좌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제가 조심스럽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허은구, "한국의료사업의 어제와 오늘," 교회지남, 1984년 11월호, 37.

[2]오만규, 재림교회사, 350, 351.

[3]교회지남, 1969년 11월호, 33.

[4]김재신, "한국전도사업 80년," 교회지남, 1984년 10월호, 15.

제2장 자립기반의 마련

(1969~1973)

역사가 1960년에서 1970년대로 전환될 즈음에 한국 재림교회는 선교사 시대를 넘어서 본방인 지도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몇몇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본방인 중심의 지도체제 구축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의해 가장 먼저 본방인 지도력이 세워지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었다. 삼육대학은 1969년 9월에 학장 이취임식을 통해 외국인 학장을 보내고 한국인 학장을 추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본방인 지도력의 시대를 열었다. 이는 곧 삼육대학이 자립기반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의 지도자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해 가는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제3대 학장 김종화 교수 취임(1969)

베네트 합창단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후인 1969년 9월에 클라임스 학장은 일본 삼육학원대학으로 전임되었고, 그 자리를 김종화 교수가 대신하게 되었다.[1] 최초의 박사학위를 가진 학장으로 삼육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클라임스 학장은 시대적인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비록 5년간의 짧은 임기였지만 클라임스 학장은 많은 일들을 이룩하였다. 학과의 증설과 대학 명칭 변경, 대학기구 개편,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 개설 등 대학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이런 가시적인 결과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클라임스 박사는 이런 교육적 기여도로 인해 출국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인 동백장(冬柏章)을 받기도 했다.

클라임스 박사가 떠나기 전인 1969년 9월 15일에는 본 대학 강당에서 학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사장 윌콕스(W. L. Wilcox, 위경수) 목사를 포함해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취임식에서 클라임스 박사의 뒤를 이어 제3대 학장에 취임한 분은 김종화 교수였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삼육대학장에 취임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본방인 시대를 개척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다.

1969년 당시 김종화 교수는 교무과장의 직임을 맡고 있었다. 김종화 학장이 삼육교육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52년의 일이었다. 1925년에 함경남도 갑산에서 출생한 그는 1945년에 함흥사범학교의 강습과정을 마치고 그해 4월 1일 강원도 장성공립보통

[1]교회지남, 1969년 11월호, 33.

학교의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사업에 투신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5월 1일 서울청량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 1949년 동국대학교 전문부 사학과를 졸업한 그는 강진하 목사로부터 재림기별을 듣고 1952년 8월 20일에 정동심 목사의 집례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인이 된 김종화 학장은 1953년 10월 1일부로 서울삼육국민학교 교사가 되어 삼육교육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1955년에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그 해 4월 1일 서울삼육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삼육중학교에서 4년만인 1959년 4월 1일부로 교감으로 승진 발령되어 봉사하던 그는 1961년 5월 8일에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963년에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귀국하여 서울삼육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다.[1]

1964년부터 서울삼육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삼육신학대학에 출강하던 그는 1965년 9월 11일에 삼육신학대학 교무과장으로 전임되면서 본격적으로 삼육동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다. 특별히 삼육신학대학으로 발령을 받은 다음해인 1966년 1월 1일(한국연합회 제22회 총회 안식일)에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목회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2]

삼육대학 교무과장으로 봉사하던 김종화 교수는 1968년 5월 23일에 클라임스 학장이 안식년을 맞이하여 3개월간 미국으로 떠나자 그가 돌아오는 8월 23일까지 학장서리로 임명되었다.[3] 이는 삼육대학이 본방인 지도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첫 시험대였다. 특별히 이때는 북한이 미국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Pueblo號)를 납치해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4] 김종화 교수는 학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교직원들과 연합하여 이 위기에 대처하였다.[5] 이 일로 김종화 목사는 선교사 부재시에 한국인 지도력으로 학교 운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조만간 있게 될 본방인 시대의 전조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클라임스 박사가 1969년 9월에 일본 삼육학원대학의 학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김종화 교수가 그의 후임으로 삼육대학의 제3대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대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66, 367.

[2]교회지남, 1966년 2월호, 36.

[3]교회지남, 1967년 7월호, 36.

[4]북한은 1969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였다. 당시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거리의 동해 공해상9동경 127도 54.3, 북위 39도 25)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으로 납치되었다. 김은기, "한미안보체제 하에서 미국의 한반도 위기관리전략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3): 54.

[5]김종화, 224, 225.

2. 예비고사 제도와 학생 모집

대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삼육대학은 1968년부터 4개 학과에 입학정원 120명(신학과 50명, 영어영문학과 30명, 농업교육과 20명, 가정교육과 20명)의 편제로 인가를 받고 대학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1] 이는 곧 정원대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학생 수는 최대 480명까지 교육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수는 1968년도에 225명에 불과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1960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대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전국 각지에 흩어진 재림교회의 청년들과 삼육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생수를 채워주었다.

그러나 1969년에 들어서는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학생수가 더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예비고사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예비고사란 대학 입학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했다.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 제도는 1968년 10월 14일에 공포되어 1969년도 대학입학부터 적용되었다. 정부는 대학의 권위를 높이고 "사학들의 학생정원 초과모집 및 대학교육의 적성 무시로 인한 대학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시제도인 예비고사 제도를 채택하였다.[2]

원래 이 제도는 5.16군사혁명 이후 혁명정부가 1962년부터 초기 형태로 실시한 제도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운영되었었다. 그러다가 1954년에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합고사제도가 실패하여 1955년부터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학별 단독시험제라는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자 혁명정부는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대학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를 채택하였다.[3]

하지만 이 국가고시 제도는 대학 간의 학력격차를 심화시켰고, 정원미달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게다가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시행한 지 2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1964년부터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대학입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육신학대학은 대학인가와 더불어 이 제도에 의해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삼육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이후로

---

[1]1966년 대학 인가 당시의 편제는 신학과 50명, 농업교육과 30명, 가정교육과 30명이었으나. 1967년 영어영문학과 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는 입학정원이 20명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에 30명 입학 정원을 허가 받았다. 삼육대학 안내(1968-1969): 19.

[2]손인수, 739.

[3]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368.

도 학생모집은 대학 단독시험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1968년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하는 병행제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신입생 모집은 예비고사 합격생 수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학생 모집이 어려워졌다. 예비고사가 삼육대학의 학생수에 끼친 영향은 다음의 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44] 연도별 학생 상황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224	225	171	138	134	176	227	365

예비고사 제도가 실시된 1969년부터 약 3년 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972년에 이르러서 서서히 회복되었고, 1974년에 이르면 학생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4년도의 학생수 증가도 정원확보율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설학과(간호학과) 및 전문학교와 위생간호학교의 학생수를 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예비고사 실시 이후 삼육대학의 학생모집은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삼육교육의 의미와 우수성을 알려 자격을 갖춘 재림청년들이 삼육대학에 입학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장학제도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학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1]

이렇게 삼육대학은 변화되는 대학의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진정한 삼육교육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교회 지도부는 기관지인 교회지남에 "삼육대학" 란을 별도로 마련하고 삼육대학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입학 시기에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종화 학장은 "자랑스런 삼육대학"이라는 제목으로 삼육대학의 아름다운 환경과 월등한 시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삼육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신학과의 주임교수인 송권 교수와 농업교육과 주임교수인 이상원 교수의 학과 소개 및 입학생 모집에 대한 기사도 게재되었다.[2]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삼육대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3. 본관(엘리야관) 신축(1971)

삼육신학대학 시대의 중심은 1960년에 완공된 본관(행정관)이었다. 그러나 삼육대

---

[1]교회지남, 1969년 12월호, 12, 14.

[2]김종화, "자랑스런 삼육대학," 교회지남, 1969년 12월호, 12; 송권, 이상원, "학과소개," 교회지남, 1970년 2월호, 11.

학으로 개명된 후 학과도 4개로 늘어나면서 학교의 규모가 확장되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건물의 기초는 삼육대학의 시대를 연 클라임스 학장 시절에 이미 놓여졌다. 클라임스 학장은 새로운 강의실을 짓기 위해 1967년에 부평의 미군부대에서 안테나를 해체한 철근들을 얻어왔다. 이 재료들을 기반으로 200평 규모의 2층 본관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운 대학의 행정자들은 건물 설계도를 제작한 뒤에 1968년 9월 20일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얻어온 철근들을 잘라서 건물 우측의 골격을 세웠다.[1]

그러나 건축의 진행이 용이하지 않았다. 당시에 대학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다. 클라임스 학장은 이 건물을 원동지회로부터 지원받은 4천 달러의 자금과 대학 실업부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짓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철골 구조물만 세운 채 건축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결국 클라임스 학장은 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떠나고 김종화 학장이 대신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막중한 임무를 물려받은 김종화 학장은 당시 서무과장인 김홍량 교수와 함께 실업부의 사업을 독려하여 재정을 확보한 후 드디어 1970년 7월에 본격적인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건축사업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기대와 헌신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1970년 10월 말에 건물의 한쪽 편(우측, 동편)이 완성되었다.[2]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건물 전체를 한 번에 완성하지 못하고 우선 철골로 뼈대를 세운 우측(동편)을 먼저 완성한 것이었다. 그 후 나머지 한쪽 편(좌측, 서편) 건축이 추진되어 1971년 9월 1일에 드디어 삼육대학 본관(엘리야관)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3]

삼육대학 시대를 이끌어갈 건물로서 희망의 70년대를 연 본관 건물의 이름은 엘리야관으로 명명되었다. 이 엘리야관은 철근 콘그리트 슬라브 건물로 당시에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어져 삼육대학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다.[4] 2층 규모에 총 면적이 1308.76m^2(총 건평 240평, 지층 65.08m^2, 1층 630.12m^2, 2층 613.56m^2)로 지어진 이 건물은 강의실과 교수실, 위생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나중에 어학실습실과 전산교육실 등으로 활용되어 삼육동에서 가장 현대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로 한동안 대학의 역사를 이끌어갔다.

특별히 이 건물은 본 대학의 자매대학인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의 행정관 건물과 흡

---

[1]교회지남, 1968년 11월호, 36.
[2]교회지남, 1970년 12월호, 22.
[3]교회지남, 1971년 10월호, 37.
[4]박채운, 74, 75.

사하게 디자인되었다.[1] 중앙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동일한 크기의 건물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건물 앞에는 넓은 잔디밭을 조성해 대학 문화의 중심을 강당 옆에서부터 이곳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이 너무 잘 조화를 이루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에 뽑히기도 한 이 건물은 최근에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백주년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철거됨으로써 자취를 감추었다.

이 본관(엘리야관)의 건축은 삼육대학이 본방인에 의해 운영되는 첫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한 채 대학 스스로의 힘으로 대부분의 공사 과정을 마쳤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1971년 9월에 낙성식 및 준공식을 드리긴 했지만 건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완전한 준공예배를 드린 것은 이듬해인 1972년 7월 10일에 가서야 가능했을 만큼 건축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책임 맡은 한국인 행정자들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헌신으로 극복해 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한 것이다. 이 건물은 학과의 신설과 그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절실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역사가 더욱 뜻깊었다. 이로써 삼육대학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4. 대학 기반시설 및 자립 환경 구축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육대학은 대학의 역량을 구축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대외 활동 등을 강화하였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러한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구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혹은 총무과)로 나눠졌던 대학기구에 1968년부터 기획(혹은 계획) 및 공보과(혹은 홍보과)가 추가로 편제된 것이었다. 기획 공보과에는 공보부와 동창회 사무부를 두어 대학의 대내외적인 공보활동 및 동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공보과 또는 홍보과로 명명되었던 이 부서는 대학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서였다. 이 부서는 1973년도에 대학 기구가 처장제도로 대폭 개편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대학의 기구에 남아 있었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공보과의 존재는 당시 대학의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공보과장이었던 노경운 교수는 교단의 기관지인 교회지남에 대학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대학의 필요들을 호소하였다. 특별히 1971년 2월에 게재된 "삼육대학의 날"

---

[1]김홍량, "나의 삼육동 생활," 삼육동 이야기, 243.

[2]기록상 용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혼용되는 용어는 괄호 속에 넣었다. 삼육대학안내(1968): 7.

에 대한 호소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기에 삼육대학이 직면했던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해 2월 13일 "삼육대학의 날"을 맞아 노경운 교수는 "자립하고 발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삼육대학을 위하여 국내외에 계신 성도와 대학 동문"들의 후원을 호소하면서 1971년 당시 삼육대학의 교육사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첫째, 대학 본관 건축을 완성하는 일.

둘째, 대학 교육기재를 정비하고 확장하는 일.

셋째, 대학에서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의 강화.

넷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장학금 확보 등의 과제.

대학 본관의 건축을 완성하는 일은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취된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 외의 기반시설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 역시 대학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 이러한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1) 가정교육과 생활관 건립(1970)

이 시기에 본관 신축 이외에 새로 건축된 건물 중에는 가정교육과 생활관도 있었다. 이 생활관 건물은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상 매우 필요한 생활관 실습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가정교육과의 첫 번째 입학생들이 4학년이 되던 해인 1970년에 가정관리학 4학점이 필수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관 실습을 해야만 했는데 마땅한 실습실이 없었다. 이에 학과장인 임정혁 교수는 사재 110만 원을 가정교육과 생활관 건축 자금으로 기탁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2]

건축을 위한 준비는 1969년부터 진행되었고, 공사는 1970년 4월 6일에 기공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 이 생활관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의 수준 정도로 설계되었다. 침실 4개와 주방, 식당, 응접실, 욕실, 수세식 화장실 등이 있고, 주방엔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등이 비치되며, 응접실엔 응접세트도 설치하고, 세탁실의 세탁기도 설치하는 등 모범주택으로 설계되었다. 6명의 학생들이 매 학기별로 교대로 생활관 실습을 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런 설계에 따라 20평 규모로 지어진 이 생활관은 1970년 6월 1일에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4] 생활관 건축으로 가정교육과 학생들

---

[1]노경운, "2월 13일 안식일은 삼육대학의 날, 여러분의 도움을," 교회지남, 1971년 2월호, 13.

[2]임정혁, 황혼 길에 서서, 176, 177.

[3]이 건물은 "임정혁 기념관"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교회지남, 1970년 6월호, 12.

[4]노경운, "생활관 개관식," 교회지남, 1970년 8월호, 13.

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주부가 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과정을 이수하여 당당하게 학사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2) 도서관의 도서 확충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도서관에 두곤 한다. 본대학 역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은 삼육신학대학 시절에 도서관의 필요성에 부응해 2층 건물의 도서관을 지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당시 도서관은 총건평 160여 평 정도로 1960년대의 대학 규모와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다. 학과의 증설로 학문의 필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자 대학은 도서관의 도서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도서관 장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67년 이래 삼육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수량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2]

[표 45] 대학 도서관 장서 보유량

연 도	도서수	증가량	비 고
1967	10,188		
1968	10,839	651	
1969	12,451	1,612	
1970	13,337	886	
1971	13,545	208	
1972	14,612	1,067	
1973	15,996	1,384	
1974	17,179	1,183	

도서 보유량의 확충은 여러 학과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 자체의 장서 구입 계획과 아울러 여러 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장서를 기증받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소중한 자료들을 기증받음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1970년대 초에 도서를 기증받은 내용들이 교회지남의 “삼육대학 소식” 난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3]

문교부가 삼육대학에 요구하는 장서수는 1971년도에 20,000권이었다. 그러나 장서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개인 및 단체들로부터의 도서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도 직접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학은 도서 구입을 위해 매년 2천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원동지회가 매년 또 2천

---

[1]상게서.

[2]“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3;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4.

[3]교회지남의 “삼육대학 소식” 난에는 다양한 도서 기증 내역들이 소개되고 있다. 1970년-1972년 교회지남의 “삼육대학 소식” 난을 참고하라.

달러씩을 도서 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1년에 4천 달러의 신간도서 구입비가 책정되었다.[1] 이렇게 해서 1975년까지 2만권의 서적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기자재의 확보가 관건이었다. 삼육대학 역시 이 시기에 대학의 자립기반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재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자들은 교육기자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로 위에서 설명했던 가정교육과 생활관과 같은 교육환경들이 구축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육기자재들을 기증받아 대학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삼육대학이 확충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2]

[표 46] 교육시설 및 기자재 내역

(단위: 원)

내 용	1968	1969	1970	1971	1972	출자원
유가공실습장	500,000	296,000	650,000			문교부,학교
현미경 및 기타		450,000	310,000			문교부,학교
언어학실습실	40석	470,000	30,000		2,500,000	학교
생활관			20평			임정혁
실습 자동차		1대	1대			학교
냉동차			1대			학교
자동대패	2대					유솜
본관건축	기초(230)		공사(240)	18,900,000	2,800,000	학교, 개인
사택			2동	1동		학교
국문타자기				1,580,000		
도서관 환경미화					500,000	
온실100평					1,350,000	
자동교환대					1,200,000	
수영장시설					400,0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기증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에 나타난 역사적 자료에는 이 당시 여러 기자재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70년 2월 12일, 농업교육과 교육용 과학 기재(대형 살균소독기, PH미터 미생물

[1]홍광의 군과 김종화 학장 사이의 대담 중에서. "원대한 계획에 부푼 삼육대학," 교회지남, 1971년 6월호, 6, 7.

[2]"삼육대학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17;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9.

[3]1970-1972년도 교회지남의 "삼육대학 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촬영 현미경, 각종 정밀 청평기 등) 50만 원 상당의 물품 인수.

· 70년 2월 16일, 자매기관인 성육원, 교육실습용 재봉틀 16대 기증.

· 70년 3월 16일, 일본에서 50만원 상당의 언어학 실습기재와 실업부용 우유처리기 도입.

· 70년 9월, 셜(H. E. Shull) 선생이 해먼드 오르간 1대 기증

· 70년 11월 9일, 냉동시설을 갖춘 포드 자동차 1대 미국에서 구입하여 인수.

· 71년 6월 18일, 헤일리가 교수 미군부대에서 트럭 2대 기증받음.

· 71년 9월 22일, 대학 강당과 신축 본관 교사에 고성능 앰프 설치함.

· 71년 9월, 재일교포 한 분이 가정교육과에 재봉틀 1대 기증함.

· 71년 12월, 대학교회 도르가회장 최순유 사모가 만능 요리기 한 대를 가정교육과에 기증.

· 72년 3월 8일, 조광수 선생이 악기와 악보를 기증.

· 72년 7월 언어실습실을 현대화하여 Audio-lab (청각실습실), Video-lab (시각실습실)을 완벽하게 갖춤.

위의 내용들은 대학의 발전에 있어서 작은 기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기자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성취도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삼육대학은 다양한 교육기자재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농장과 목장, 요리실습실 등의 실습 시설들을 통해서 가장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특별히 한 예로 삼육대학에서는 중고 자동차들을 구입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실습반과 엔진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및 자동차정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1969년에는 23명, 1970년에는 13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정규교육 과정 외에도 알찬 직업훈련 과정이 진행되었다.[1] 이처럼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으로 인해 삼육대학은 점차 자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4) 연구 및 조사활동의 강화

1965년과 1967년에 종교사회과학연구소와 식량농업연구소가 개설되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음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1970년대 들어 대학의 연구 활동이 더욱 더 장려되어 그리스도인 교육연구소, 선교문제연구소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다.[2]

---

[1]정지호, "직업훈련의 권장," 교회지남 1970년 3월호, 15.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자 통계는 제24회 총회보고서를 참고하라. "삼육대학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3.

대학의 연구 활동 강화는 1971년에 첫 발간된 삼육대학 논문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수들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학의 연구활동과 논문집 발간이 활발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10명을 넘어섰다. 참고로 이 시기의 교수들의 학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1]

[표 47] 교수들의 학위별 현황

연도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1971	1	10	9	23	43
1972	2	13	15	18	48
1973	2	16	19	21	58
1974	3	16	30	17	66

삼육대학 논문집 제1집은 1971년 3월 15일에 발행되었다. 총 100면 분량으로 발행된 이 논문은 네 학과의 교수들이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발표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내용을 보면 신학 논문이 4편, 교육학 논문이 1편, 영문학 논문이 1편, 농학 관련 논문이 4편 등 총 10편의 논문이 실렸다.[2] 이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논문집은 매년 1편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역사가 깊어질수록 그 분량이 늘어났다. 대학 논문집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삼육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던 1993년에 발행된 제25집부터 인문사회과학편과 자연과학편으로 분리해서 출간한 것이다. 아울러 재직 교수가 회갑을 맞이하는 해에는 해당교수들을 기념하는 회갑기념 논문집 형태로 발간을 하였다. 아울러 1977년에는 개교 70주년 기념논문집을 발행했으며, 1994년에는 한국 선교90주년 기념논문집을 발행했다. 그러나 한국 선교100주년을 맞이하는 2004년에는 또 다른 논문집인 "선교와 사회"가 100주년 기념논문대회 논문집으로 출간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교수들이 문교부로부터 교수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아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1971년 4월 2일에는 세 명의 교수들이 연구지원비를 받았는데 그들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김홍량 교수: 전자계산기 조직(EDPS)에 관한 번역과 분석
- 신현철 교수: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 선용을 위한 봉사활동과 그 방법론
- 이상원 교수: 누에에 기생하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

논문집과 더불어 1971년 4월 1일에는 월보 연구 삼육대학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2삼육대학 안내(1972): 8.

1"삼육대학보고,"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보고서, 1970년도, 8.

2삼육대학, 삼육대학 논문집, 제1집, 1971년도 발행 참조.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78.

교수들의 연구 논문과 대학의 소식 등을 실었던 월간 또는 격월간의 잡지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 나중에는 계간으로 늦춰 발행되었던 연구 삼육대학은 1973년 9월 15일 제12호를 끝으로 정간하게 되었다.[1] 장기적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삼육대학은 역시 대학 초기시대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다.

5) 장학제도의 확충

대학의 자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장학금의 확충이었다. 의명학교 시절로부터 삼육신학원 시절에 이르기까지 교육 사업의 초기에 학생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도 노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열렸었다. 이러한 노동 프로그램은 삼육교육이 실시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학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대학도 교육중심 과정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을 통한 근로장학금의 수혜 비율이 점점 축소되었다. 이에 대학으로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모금과 더불어 많은 장학제도를 확충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장학금은 그 특성상 다양한 모금활동 및 장학 기탁금을 확보해서 확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학은 1970년대에 들어서 장학금 모금을 위해 각계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공보활동을 강화하였다. 특별히 교회지남에 마련된 삼육대학 소식란을 활용해 장학금 기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학금 기탁을 호소하였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초에 교회지남에는 한 동안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기탁자들에 대한 내용이 꾸준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영회씨는 영육장학회를 만들어 1970년 2월 2일부터 삼육대학 신학과 학생 2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2] 그해 10월 18일에는 익명의 미국인이 매월 100 달러씩의 장학금을 보내기로 약조하기도 하였다.[3] 그런가 하면 대학의 호소에 의해 지역교회들도 장학금을 기탁하였는데, 1971년 초에는 부산위생병원교회(1만5천 원)와 부산중앙교회(1만 원), SDA 영어센터(5만 원)가 각각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4] 장학금 모금운동에는 임정혁 교수(6만 원), 오재윤 교수(340 달러), 박동승 학생(1만 원), 퍼거슨(Mrs. Ferguson) 교수(매월 100 달러) 등 본 대학의 교수들과 졸업생들도 동참하였다.[5] 이밖에 1968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동문회의 장학금과 1971년 10월 21일

---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369.
[2]교회지남, 1970년 4월호, 15.
[3]교회지남, 1970년 12월호, 22.
[4]교회지남, 1971년 3월호, 7; 교회지남, 1971년 4월호, 12.
[5]교회지남, 1971년 4월호, 12; 교회지남, 1971년 5월호, 13; 교회지남, 1971년 7월호, 15.

에 설치된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 장학금 등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장학제도 운영에 큰 활력이 되었다.[1]

특이할 만한 기록은 1970년 4월에 삼육장학회가 발족된 것이었다. 한국삼육고등학교 동문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삼육장학회는 한국삼육고등학교와 삼육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장학회였다. 장학회 발기인들은 후배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장학회 설립을 결의하고 현직 교사들과 동문들에게 교회지남 홍보 및 방문활동 등을 통해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고등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2]

이처럼 여러 다양한 기금 조성 내용을 토대로 해서 1970년대에 삼육대학 장학금 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다. 1972년도에 발행한 삼육대학 안내에 기재된 장학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삼육대학에서 운영되던 장학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① 학업 우수 장학금: 매 학기마다 각 과의 우수 득점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평점 B이상).

② 근로 장학금: 각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월 180시간까지 허락된다. 시간당 28-45원.

③ 이병빈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근실한 자 2명에게 매점이 지급하는 장학금임. 수업료의 2분의 1.

④ 김영회 장학금: 영육농장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임. 1년에 5만 원씩 2명에게 지급.

⑤ 동창회 장학금: 등록 시마다 성적 우수자, 경제 곤란한 자에게 지급됨. 1년에 5만원씩.

⑥ 학교 대여 장학금: 4학년 학생에게 학교에서 대여해 주는 장학금, 등록금 전액.

⑦ 정부 급여 장학금: 법률 제603호에 의하여 국고에서 급여하는 장학금으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유로 수학이 곤란한 성적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연 10만원 급여함.

⑧ 대회 사역자 양성 장학금: 각 대회 본부에서 그 대회 출신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장학금임.

---

[1]교회지남, 1971년 12월호, 13.

[2]교회지남, 1970년 5월호, 14.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삼육장학회"란 장학회가 1995년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장학회와 1970년대에 발족한 삼육장학회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아마도 1995년에 창립한 장학회는 25년 전에 동일한 이름의 장학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동일한 이름으로 장학회를 결성한 것 같다.

[3]삼육대학 안내(1972): 94.

⑨ 입학 수석 장학금: 신입생 중에서 입학고사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로서 본 대학 학생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급여함.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⑩ 각과 입학 수석 장학금: 각과 신입생 별로 입학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됨, 수업료의 2분의 1.

⑪ 재미 유학생 장학금: 재미 교인들이 중심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이상의 장학 제도 및 그 외의 독지가들의 특별한 장학금 기증으로 매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약 40여 명에 이르렀다. 제25회 연합회 총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각 대회에서 5명씩(20명), 동창회에서 매년 5~6명, 이병빈 장학금 2명, 그리고 미국의 한 독지가가 현금 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증하므로 매년 10명의 학생 계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료 면제의 혜택을" 받았다.[1]

5. 학생활동의 강화

1970년대 들어서서 대학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활동도 한 몫을 했다. 학과들이 다양해지고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학생회 구성도 보다 체계화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각 학과의 회의체인 학과학생회(학회) 조직을 신설한 것이었다. 1972년에 만들어진 학생회 회칙에 의하면 학생회 조직은 학회(목회학회, 그리스도인 교육학회, 농업교육학회, 가정교육학회, 영어영문학회), 각부(신덕부, 학예부, 음악부, 공보부, 체육부), 학보사 등 크게 세 개의 기구로 나눠졌다.[2] 신학과가 전공 영역에 따라 두 개의 학회로 나눠진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학생회칙의 말미에 부록으로 학생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방송부의 캠퍼스 방송(아침, 오후), 음악부의 이주일의 노래(프린트로 캠퍼스 배부), 학술부의 학술지 및 논문지 발간, 신덕부의 매주 일요일 캠퍼스 기도회 등이 새로운 학생 활동들로 눈에 띈다. 특별히 학생들의 복음 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불회 모임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등불회는 삼육대학의 신앙 모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모임 중의 하나로 캠퍼스 안팎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3]

이 시기에는 학생회 주최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봄과 가을에 소풍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가 성장하면서 없어진 행사였지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생회

---

[1]송권, "삼육대학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4.
[2]삼육대학 안내(1972): 92.
[3]상게서, 93.

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연중 2회(봄, 가을) 소풍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 5월 7일에 대학 학생회 주최로 춘기 소풍회가 진행되었는데 소풍장소는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전등사였다. 학생들은 리무진 고속버스를 타고 전등사에 들려 하루를 즐겁고 유익하게 지냈다.[1]

학생회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일은 역시 하기봉사대 활동이었다. 하기봉사대는 삼육신학원 시절부터 학생들의 중심 활동이 되었기에 이제 삼육대학의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매년 하기방학 때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 봉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준비해서 진행하였다. 특별히 1970년과 1971년도의 봉사활동은 대학 역사에 기록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0년의 하기봉사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하기전도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학기 내내 전도자금을 마련한 일이었다. 농업교육과 학생들은 "1학기 동안 교육실습과 여가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고 여기서 생산된 작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신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전광수 학생은 고향인 충남 대율리에서 봉사대 활동을 하기 위해 한 학기동안 중노동을 하여 "매일의 식비를 절약하고 생활 필수비용을 저축하여 모은 돈 2만원을 전도자금으로" 드림으로써 고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해에 8개 봉사팀(80명)이 구성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표 48] 하기전도대 상황(1970)

기 간	고 문	대 장	대원수	장 소
7.18~27	신현철	임종성	26명	전남 진도
7.18~25	김현영	김신한	12명	전남 고흥
7.17~25	노경운	조기벽	6명	경남 함양
7.26~8.1	박해종	송창회	5명	충남 대율리
7.17~25	유정자	조병혁	5명	경남 고성
7.17~25	이진석	엄보석	5명	전남 장성
7.26~8.1	정화현	박금용	6명	충남 광천
7.17~25	조돈하	박홍규	5명	충북 영동

1971년에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10개의 팀이 여러 지역의 하기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각종 대민봉사 및 지역개발 사업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 프로그램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총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삼육대학 하기전도봉사대 활동은 해당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삼육대학 하기봉사단은

[1]교회지남, 1970년 7월호, 13.
[2]김종화, "경애하는 전국 성도들께," 교회지남, 1970년 9월호, 9.

1971년 10월 20일에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거행된 전국 대학생 하계연합 봉사활동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시상식에는 전국 90개 대학이 참가하였는데 삼육대학 하기 봉사단의 뚜렷한 활동 실적이 인정받아 영예의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1] 이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0여 개의 봉사활동팀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서 얻은 결과였다.

하기 봉사팀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은 다양했다. 1972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당시에 학생들이 활동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준다. 그 내용들로는 어린이 지도, 중고생 영어강좌, 요리강좌, 산간벽지 무료진료, 교도소와 기관 위문방문, 우물 및 하수도 소독, 논밭 김매기, 제초작업, 조기청소, 정신계몽, 농로 만들기, 교량 축대 쌓기 등이 있었다.[2] 이 시기에 국가에서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삼육대학의 하기봉사팀들은 이 운동에 호응하여 지역사회의 자주적인 개발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6. 제4대 학장 송권 목사 취임과 교직원 동정

대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교수 요원들의 확보 역시 필수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 앞서 연구 활동 강화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수들의 학위 향상 및 활발한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규모의 확대로 더 많은 교수 요원들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 교수들이 삼육동의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게 된다. 아울러 교수들의 학위 향상을 위한 교비 장학제도도 만들어져 교수들의 교비 유학이 시작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변화들을 살펴보자.

1) 제4대 송권 학장 취임(1972)

1969년 9월에 클라임스 학장의 후임으로 제3대 학장에 취임한 김종화 목사는 3년 반 동안 대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본방인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삼육교육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 감당하였다. 특별히 그는 삼육교육을 “생명에 이르는 교육”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 교육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절의 삼육대학을 이끌었다.[3] 이처럼 삼육대학을 위해서 헌신하던 김

---

[1]교회지남, 1971년 12월호, 13.
[2]이기호, “하계 전도봉사활동을 마치고,” 교회지남, 1972년 9월호, 14.

종화 목사는 교단의 결정으로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밟기 위해 유학이 결정되어 후임 송권 목사에게 학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1972년 12월 8일에 학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어 송권 목사가 제4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1]

김종화 목사에 이어서 학장에 취임한 송권 목사는 1924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나 1944년 개성 송도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인 1945년 2월에 최순유 여사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한 지 2년 후인 1947년에 처이모의 인도로 재림기별을 처음 접한 후 1948년 4월 28일에 청진동교회에서 바르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 그는 1949년 1월 초에 삼육신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이 늦춰진 관계로 1952년 11월 2일에 가서야 신학원을 졸업하게 된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1960년 8월 18일에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고, 1962년 6월 3일에 앤드루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듬해인 1963년에 삼육신학대학 강사로 부임하여 교직에 몸을 담기 시작했다.[2]

송권 목사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 삼육신학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존스턴 교수, 조병서 교수와 더불어 신학과 과목을 담당해 왔으며, 1969년에 존스턴 교수가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때부터 학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신학과장을 맡았다. 1972년 2학기부터는 교무과장을 겸임하다가 한 학기 만에 학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었다.

"온후하고 겸손하며 항상 평화로운 성품"[3]의 소유자였던 송권 학장은 취임 인사에서 삼육대학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 과제는 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고, 둘째는 교수들의 질적 향상이었으며, 셋째는 대학 시설들의 확충이었다.[4] 이 과제들은 대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었다. 삼육대학은 자립기반의 확립을 넘어서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만 했다. 이 중요한 과업이 이제 제4대 학장인 송권 목사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다.

2) 교수 인사 및 동정

1970년대 초에는 교수들의 이동이 많았다. 교수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과 새로 교직에 임명되어 부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특별히 전임강사 이전

---

[3]김종화, "생명에 이르는 교육," 교회지남, 1971년 3월, 7.
[1]교회지남, 1973년 2월호, 19.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18.
[3]송숙자, "삼육동 초창기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의 면모," 삼육동 이야기, 174.
[4]송권, "보다 튼튼한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지남, 1973년 2월호, 19.

에 강사 혹은 조교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전임강사 및 교수에 정식 임명되었다. 이렇게 교수들의 이동이 활발한 것은 대학이 여러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우 긴박하게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교수들의 인사 및 동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대학의 직위별 교직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표 49] 교직원 직위별 상황

연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사	조교	사무직	실업부	기타	계
1970	2	2	8	7	3	2	2	17		43
1971	2	1	7	7	1	3	1	20	1	43
1972		3	8	9	1	4	2	20	1	48
1973		11	3	8	2	6	5	23		58
1974	1	8	10	10	3	4	5	23	2	66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은 4학과에 20여 명이었으나 1974년에 이르러서 3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1974년부터 간호학과를 증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 외의 내용으로는 각급 교수들의 현황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유학을 떠나는 교수들과 보직이 진급하거나 새로 임명된 교수들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용들이다. 이 시기에 교직원들의 인사 내용은 교회지남의 "삼육대학 소식"란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부를 위해 유학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조병서 교수(70. 1. 17, 미국), 유정식 목사(70. 11. 15, 필리핀), 정화현 교수(71. 6. 15, 미국), 조돈하 교수(72. 2. 6, 미국) 등이며, 퍼거슨 교수(70. 6. 19)는 교수활동을 마치고 영구 귀국을 하게 되었고 이창규 교수(73. 4. 16)는 은퇴하였다.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복귀하신 분들과 새로 교수에 임명된 분들로 인해 비어진 자리는 채워졌고 대학의 필요는 충족되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교수로 임명받은 분들로는 박신관 교수(70. 8), 신계훈 교수(72. 1. 1), 오재윤, 이영숙 교수 부부(71. 2. 22), 이익모 박사(72. 2. 11) 등이며, 선교사로 내한해 교수직을 맡은 사람은 잉즈(Dudley W. Inggs, 印周) 교수 부부(부인은 Marjorie E. Inggs, 印마리), 다이블(Peter Dible, 옥스퍼드 대학 명예신학박사) 교수 등이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된 교수들로는 남대극 교수(72. 8. 1), 박화자 교수(72. 8. 1), 한은이 교수(72. 8. 1), 최이권 교수(73. 1. 1), 이용화 교수(73. 3. 1), 김명호 교수(73. 8. 1), 스태플스(D. Staples, 서태순) 교수(73.8.1) 등이었다.[2]

---

[1]"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8.

[2]이 내용들은 교회지남(1970-1973) 및 삼육대학교90년사 부록에 나타난 교수직 명부를 보고 재구

김종화 학장에 이어 송권 목사가 학장에 취임하면서 이어받은 과제를 추진해가던 삼육대학은 1973년에 230여 명의 학생들과 58명의 교수(20명) 및 교직원(38명)이 견실한 단과대학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비고사 제도 이후 현저하게 줄어든 학생수가 다시 200명을 넘어서면서 신입생모집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어 갔다. 아울러 더 나은 대학 발전을 위해 기술전문학교 및 간호학과 신설 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1] 이러한 일련의 발전적인 변화들은 이제 삼육대학이 자립기반의 확립을 넘어서 진정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였다. 그러나 그 발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정이 남아 있었다. 그 첫째 과정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새로운 계획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과정은 이러한 외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정신인 삼육교육의 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견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이 대학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장(章)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먼저 1974년 이후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역사적 변화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7. 새로운 시도 및 변화들

1973년 들어서서 삼육대학은 "사회봉사를 위한 국민교육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교교육 이념의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개발(복음화)을 이룩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대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였다.[2]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 선정

이 시기에 삼육대학은 문교부가 고등교육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학교육 과정의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196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651호로 "장기종합 교육계획 심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이듬해 2월 13일 50명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장기종합교육계획안(1972~1986)" 작성을 추진하였다. 이 심의회는 15년의 장기계획과 3차에 걸친 5개년 중기계획을 추진하는 최종계획안을 1970년 12월에 제시하고 2년 후인 1972년부터 교육개혁을 진행하였다.[3] 이 계획안에는 여러 교육개혁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성한 것임.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820-825 참조.

[1]송권, "신년사"(新年辭), 교회지남, 1974년 1월호, 23.

[2]김홍량, "새로운 필요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도들," 교회지남, 1973년 10월호, 27.

[3]손인수, 736, 737.

교육과정 개정 또는 개편에 관한 계획도 들어 있었다. 특별히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육과정 심의회"를 설치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교별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화를 추진하였다.[1]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교육과정 개선안 중 대학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대학의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는 학점을 현행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문교부는 학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노동 및 사회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사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삼육대학은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에 포함되어 1974년도 1학년부터 축소된 교육과정에 맞춰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실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진행해야만 했다.[2]

1973년(1차년도: 준비): ①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모형 작성, ② 교육 개선을 위한 학내 세미나.

1974년(2차년도: 실시): ① 교과내용의 구조화 연구, ② 교수법 개선을 위한 학내 세미나, ③ 사회교육의 제도화.

1975년(3차년도: 실시): ① 구조화한 교수안의 활용, ② 교수법 개선을 위한 학내 세미나, ③ 산학협동의 교육 시설 활용.

1976년(4차년도: 평가와 정리): ①실험대학의 평가제도 확립.

삼육대학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사회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전공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학의 복수전공/부전공제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이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던 중 다행히 학점 축소를 위한 실험학교에 선정됨으로써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3]

2) 기술전문학교의 설립 추진

기술전문학교 설립 계획은 대학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삼육대학은 이미 삼육신학대학 시절에 실업초급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이 초급대학은 학과의 4년제 개편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으로 편입되면서 없어졌다. 그러나 예비고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전문 실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 행정자들은 다시 전문학교

---

[1]유봉호, 349.
[2]김홍량, "새로운 필요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도들," 27.
[3]김홍량, "학사구상," 교회지남, 1973년 3월호, 27.

의 설립을 모색하게 되었다.[1]

전문학교는 교육대학,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더불어서 이 시기에 운영되고 있던 단기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다. 혁명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1963년부터 실업고등전문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실업고등전문학교는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학교 과정을 포함한 5년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과정이 너무 길어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과 진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로 되자 정부는 1970년에 2년제 전문학교를 법제화하여 고등학교와 연계된 실업계고등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문학교가 만들어지자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점차로 전문학교로 개편되어 1976년에 이르러서 5년제 실업교등전문학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전문학교 체제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1979년에는 전문학교와 초급대학이 전문대학으로 개편되고, 교육대학은 1981년에 4년제로 승격됨으로써 단기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만 남게 된다.[2]

이렇게 1970년에 전문학교가 법제화되자 삼육대학의 운영자들은 영양과, 낙농과, 지역사회개발과 등을 보유한 전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면 예비고사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자격을 갖춘 자급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학의 기대였다. 한편 전문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졸업 후 초급대학에 준하는 자격증(인공수정사, 조리사, 영양사 등)을 얻게 되고, 나아가 삼육대학의 동일계 전공학과로 진학(편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3]

이런 절대적인 필요에 부응해서 대학은 기술전문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학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1973년도에 문교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 신청서는 이때까지 운영하던 삼육고등기술학교를 폐교하고 대신에 식품영양과, 낙농과 등을 갖춘 삼육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전문학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식품영양과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송숙자 선생의 자문을 받았고, 낙농과는 건국대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과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있던 정순영 선생의 자문을 받았다. 원래는 대학 캠퍼스에 전문학교를 병설하는 방안으로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서울은 인구분산 정책으로 인해 전문학교 설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2농장이 위치한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를 주소로 하여 실업전문학교를 세우도록 행정지도를 받았다.[4] 이렇게 해서 1973년 12월 19일자로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았다. 삼육기술전문학교는 1979년에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삼육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1]상게서.
[2]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374, 375.
[3]김홍량, “학사구상,” 27.
[4]김홍량, “나의 삼육동 생활,” 삼육동 이야기, 245.

3) 간호학과 증설 및 간호전문학교와의 연계

기술전문학교 설립 외에도 대학은 서울위생병원 내에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별도로 진행되어 오던 간호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연계하고 나아가 삼육대학 내에도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서울위생병원 부속 간호전문학교는 제3편 제5장에서 간단하게 기술한 것처럼 1936년에 간호원 양성소로 시작되었다. 이 양성소는 1948년 서울위생병원 부속 간호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각종학교로 편입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1958년에는 서울위생병원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 1962년에는 서울위생병원 간호학교 등으로 개칭되면서 각종학교로 운영되다가 1973년 12월에 위생간호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같은 시기에 삼육대학은 대학 내에 간호학과 증설을 인가받았다. 1973년 12월 11일자로 입학정원 20명의 간호학과 증설의 인가를 받은 삼육대학은 로이스 윌슨(Lois R. Wilson) 교수를 초대 간호학과장으로 초빙해 본격적인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특별히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서울위생병원에서의 실습이 필요됨에 따라 위생간호전문학교와의 교육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자매기관인 서울위생병원 내 간호전문학교 및 서울위생병원과 상호위탁 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서울위생병원 간호전문학교의 제1학년 과정을 본 대학이 위임받아 그 학생들을 1년 동안 삼육대학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 대신 본 대학 간호학과의 전공과목을 서울위생병원 간호전문학교와 서울위생병원에 위촉하여 그쪽 캠퍼스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게 한" 제도였다.[1]

이 상호위탁 교육제도로 인해 삼육대학과 위생간호전문학교 간의 교육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삼육대학 내에 기술전문학교가 세워지게 됨에 따라 대학과 전문학교의 행정 일원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본 교단의 고등교육 일원화를 위하여 1975년 3월에 위생간호전문학교를 삼육대학 편제에 통합하도록 결의하였다.[2]

4) 실업교육부의 발전과 식품공장 설립 계획

1970년대 들어서서 삼육대학 실업교육부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중에서도 목장과 우유처리 공장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1963년도에 젖소 20두와 우유처리 기계들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하루 평균 1,200쿼트의 우유생산량을 갖추고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대학의 발전에 크게

---

[1]송권, "새로운 국면의 1974학년도," 교회지남, 1974년 3월호, 14.
[2]이기돈, "필요에 따라 많은 편달을 …," 교회지남, 1975년 4월호, 35.

기여했던 실업부는 1970년대 들어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실업부의 책임을 맡았던 헤일리 교수는 1972년에도 미국의 네브라스카에서 젖소 60두(한 두당 1천 달러)를 점보 707 비행기로 수송하여 한국으로 들여왔다.[1] 그리고 1976년과 1977년에도 60두씩 두 번에 걸쳐서 젖소를 더 수입해 들여왔다.

당시 정부는 축산가공업을 크게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유가공사업은 전망이 매우 밝았다. 대학은 우유처리장에서 수입한 젖소에서 생산한 우유와 인근의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들을 다 처리해서 유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대학의 우유처리실에서는 하루에 10,000kg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육우유 및 유가공제품들은 영양가와 청정도에서 많은 호평을 받아 특별히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때를 회고하면서 헤일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농장과 목장의 생산과 수입은 크게 늘고 생동하는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1년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에는 거의 우유의 일일 생산량이 50,000kg에 육박했다."[2]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실업부의 발전은 대학의 자립기반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정의 원천이 되었다.

1973년도에 삼육대학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계획 중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본 대학 내에 건강 위생식품공장을 설립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사업계획이 최초로 진행된 것은 1972년부터였다. 삼육대학의 행정자들과 실업부 책임자들은 지회에서 파견한 세계 식품봉사부의 크리(A. A. Cree) 부장 및 호주 식품공장의 크레이그(E. C. Craig) 총무의 내한에 맞춰 한국의 식품공장 설립을 위한 특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 연구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학 이사회에서는 1972년 4월 17일 회의에 제안된 보고서대로 식품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필요한 모든 과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해 주었다.[3] 이 결의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로마린다(Loma Linda) 대학교에서 식품 가공기술을 익힌 박영기 선생이 1973년 2월말에 귀국하여 식품공장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4] 식품공장 설립 계획이 삼육대학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공장이 설립된 이후 삼육대학은 식품공장의 재정적 지원으로 대학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창기부터 설치되어 대학의 교육사업과 함께 발전해 온 삼육대학 실업교육

---

[1]조지 S. 헤일리, "나의 사랑 삼육동," 삼육동 이야기, 236.

[2]상게서, 237.

[3]식품공장 설립에 관한 예비적 연구에 관한 보고는 1972년 4월 9일 오전 9시에 대학 캠퍼스에서 연합회와 대학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72년도, 41.

[4]최이권, "새로운 부르심에 응하는 마음," 교회지남, 1973년 6월호, 18.

부는 헤일리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부년 성장하였다. 그가 설명하는 것처럼 실업교육부는 "대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 실업교육의 육성 및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부서로서 1974년에 이르면 대학조달소, 축산실습장, 원예실습장, 유가공실습장, 식품가공실습장, 기계정비실 등의 부서를 갖추고 든든한 교육사업의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1]

대학조달소에서는 대학 자체에서 생산되는 우유, 계란, 채소, 과일, 빵, 꿀 등의 건강식품들을 자동 냉동 특수 차량으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조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축산실습장에서는 젖소(76두), 목장(동두천 10만 평) 등을 갖추고 대규모 현대적 목축을 경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예실습장에서는 경제적인 영농방법과 청정 채소를 재배하며, 유가공실습장에서는 다양한 우유가공품을 처리 및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2] 특별히 식품 가공실습장에서 생산되는 천연 유제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대학의 핵심 수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 운영자들의 계획이었다.

삼육대학의 주요 수익사업으로서 식품공장(우유처리장)은 이후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식품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왔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 일을 위해서 박영기 선생의 초빙 외에도 로마린다 식품공장에서 상당수의 기계(대형 트럭 4대분)를 기증받아서 공장 건축을 준비하였다.[3] 이렇게 식품공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그것이야 말로 대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5) 신학 특과(연수원) 신설(1974)

삼육대학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학은 일선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학생수와 학교의 규모는 점점 늘어났지만 목회를 전공하는 신학 전공자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1958년부터 1974년까지 목회 전공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줄어들고 있었다.[4]

[표 50] 목회 전공 졸업생수

년도	1958	1965	1970	1971	1972	1973	1974

[1]조지 S. 헤일리(George S. Haley), "삼육대학 실업교육부 안내," 교회지남, 1974년 4월호, 19.
[2]상게서.
[3]"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7.
[4]신현철, "사역자 난"(使役者難), 교회지남, 1973년 12월호, 15.

명수	36	50	30	26	18	13	10

이로 인해 삼육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목회자 양성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대학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행정자들은 우선 청강생 제도를 마련하고자 연구하였다. 그러나 청강생들은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징집 연기, 장학제도 등 법적인 제반 혜택에 있어서 정규 학생들과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1] 따라서 청강생제도 외에 목회자의 수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신학 특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학칙 변경안을 대학 이사회에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2]

신학 특과는 학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정규 과정과 동일하게 4년 동안 160학점을 이수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특별히 특과 지원자들은 정규과정 외에 교내와 교외에서 단기 평신도 신학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대학은 이 신학 특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설 연수원을 설치하고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였다.[3]

신학 특과의 설치는 삼육대학이 일반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 교회는 1960년대 말의 위기를 극복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많은 목회 인력들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목회자 양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삼육대학은 선교70주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교단 지도부와 대학 행정자들은 이 시기에 신학 특과 신설을 결의하면서 삼육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숙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곧 삼육대학이 발전 도상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삼육교육 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의 약 4~5년간 삼육대학은 삼육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설립 및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자.

---

[1]송권, "새로운 국면의 1974학년도," 14.
[2]김홍량, "신학 특과 신설," 교회지남, 1974년 12월호, 38.
[3]상게서.

제3장 삼육기술전문학교의 개교와 전문대학 체제 구축
(1973~1990)

삼육대학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확장과 발전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삼육기술전문학교가 문을 연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대학 행정자들은 1973년 들어서면서 예비고사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술전문학교의 설립을 문교부에 신청하였다. 당시 정부는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중화학 공업 육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교육 및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1970년부터 법제화된 2년제 전문학교가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삼육대학 역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를 주목해 대학 내에 4년제 정규대학 이외에 2년제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문교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결국 1973년 12월 19일에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얻게 되었다. 이는 대학 내에 간호학과 증설 인가를 받고 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삼육대학은 기술전문학교의 병설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대학의 확장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1.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 및 설립(1974)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설립 인가서에 나타난 정보에 의하면 이 학교는 "중견 직업인 양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치는 삼육대학과는 별도의 주소인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133번지로 되어 있다. 삼육대학과 삼육기술전문학교는 같은 캠퍼스 내에서 같은 행정조직 하에서 운영되었지만 학교 설립허가 요건 상 두 학교의 위치를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전문학교의 위치는 당시 대학의 제2농장의 주소였던 별내면 화접리로 등재된 것이었다.[1] 설립 초기에 허가를 받은 학과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2]

[표 51] 삼육기술전문학교 설치 학과 및 학생정원

설치학과	학년당 정원		총 정 원		비 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낙 농 과	1	40	2	80	
식품영영과	1	30	2	60	

[1]대학 지도자들은 전문학교를 대학 캠퍼스 내에 병설하고자 했지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으로 인해 기술전문학교를 서울 주소로 신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교부 직원의 제안에 따라 제2농장 주소로 전문학교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 김홍량, "나의 삼육동 생활," 삼육동 이야기, 245.

[2]"삼육기술전문학교 설립인가서,"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20.

계	2	70	4	140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초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두 개의 과에 입학정원은 70명이었다. 학교가 시작된 개교일은 1974년 3월 1일이었다. 대학은 낙농과와 식품영양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존 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대학에서 농업교육학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던 농장뿐만 아니라 낙농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목장 및 우유처리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식품영양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정학과에서 사용하는 요리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미 갖추어진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과들이 설치됨으로 교과과정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삼육기술전문학교는 나중에 병설전문대학으로 편제가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삼육대학의 편제 안에서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설립된 전문학교의 교장은 첫 해(헤일리 교장)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의 학장이 겸임하였다. 학교 당국은 인가를 받아 설립요건을 갖춘 후 1974년 3월 1일에 개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학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 요강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학생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이면 예비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였다. 다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과목은 성경, 국어, 영어, 과학(생물, 화학 중 택일)이었다. 전문학교의 2년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낙농과 학생들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증, 식품영양과 학생들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한다면 졸업 후 문교부 시행자격 고시를 거쳐 동일계통의 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도 있었다.[1] 이런 조건 때문에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못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전문학교를 통해 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삼육기술전문학교는 개설 첫 학년도에 이미 정원인 70명을 채웠다. 삼육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입학정원 미달이었던 것에 비해 전문학교의 정원 충원률이 100%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문학교가 학생 모집에 있어서 수월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의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삼육동의 교육사업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간호학과와 위생간호전문학교 간의 교육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1975년도에 이르면 학교의 발전이 더욱 더 가시화된다.

2.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상황과 전망(1974)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육기술전문학교는 설립 첫 해부터 희망에 찬 전망 아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개교 첫 해에 교장은 헤일리 교수가 선임되었고,

[1] "삼육기술전문학교 학생모집 요강," 교회지남, 1974년 2월호, 24.

과장에는 정순영 교수(낙농업과장), 송숙자 교수(식품영양과장)가 각각 임명되었다.[1] 첫 해 교장을 맡은 헤일리 교수는 학교를 재림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한 설립 목적을 강조하였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본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신앙 안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었다.[2] 물론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단지 재림교회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예비고사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삼육전문기술학교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었다.

1974년에 개설된 전문학교의 두 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헤일리 교장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그 소개에 의하면 낙농과에는 남자 37명, 여자 3명 등 총 4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사무엘관(3층 건물로 지어지기 이전의 옛 교사)에서 공부를 하였다. 학생들이 수강해야할 학점은 모두 142학점이었기 때문에 1주일에 35시간 이상의 강의를 받았다. 매일 평균 6~7시간을 공부해야 했던 것이다. 낙농과를 모두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문교부 시행 자격고사를 통해 대학 3학년으로 편입도 가능했다. 특별히 인공수정사가 되면 해외 진출의 길도 열리고 국내의 목장에서 인공수정사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과의 전망이 밝았다.[3]

식품영양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의 모집 정원은 30명이었는데 모집 첫 해에 여자 24명, 남자 6명 등 총 30명이 지원하여 공부를 하였다. 졸업생들은 영양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의 단체 급식 회사, 관공서, 호텔, 기숙사 식당, 병원 등에서 영양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4] 이처럼 식품영양과 역시 낙농과 못지않게 기술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므로 전문교육 과정으로 매우 전망이 밝았다. 이런 전망 및 가능성과 더불어 입학이 쉽고 또 대학 3학년 편입의 기회마저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의 전망이 매우 밝았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현실에 적합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헤일리 교장은 이런 전망에 입각해 전문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분야의 여러 과정들을 확대 증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술전문학교가 한국재림교회 선교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역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술전문학교의 설립으로 삼육대학 내에 학생수가 증가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삼육대학에 소속된 각급 학교의 학생수 및 교사수는 다음과 같다.

---

[1]삼육대학 안내(1974): 23.
[2]조지 S. 헤일리, "삼육기술전문학교의 현황과 전망," 교회지남, 1974년 6월호, 39.
[3]상게서.
[4]상게서.

[표 52]삼육대학 학생 수 및 교사수(1974)

구 분	학과(학생수)	총 학생수	교사수	비 고
삼육대학	신학과(99) 영어영문학과(86) 농업교육과(29) 가정교육과(22) 간호학과(19)	255	35	
삼육기술전문학교	식품영양과(30) 낙농업과(40)	70	6	
위생간호전문학교	간호과(110)	110	12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립 첫 해 삼육기술전문학교는 학생수 70명에 교사수는 총 6명이었다. 1975년에 이르러 식품영양과의 정원이 10명 증원되어 40명을 모집하였으며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쳐서 140여명의 학생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시국 데모로 인해 휴학 사태에 놓여 있었지만 삼육대학과 기술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삼육동 캠퍼스 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고취하며 더 나은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였다.[1]

3. 명칭 변경(1975)과 제1회 졸업식(1976)

삼육기술전문학교는 개설된 지 1년 만에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삼육산업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문교부는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장기 인력개발을 위해 1973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에서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모임을 통해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선전하였다. 이런 과학화 전략은 국가의 산업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과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전문학교를 산업전문학교로 바꾸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삼육기술전문학교도 삼육산업전문학교란 명칭으로 운영되었다.

삼육산업전문학교란 명칭은 1975년 초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제5대 학장 취임사에서 이기돈 박사는 "삼육산업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2] 아울러 창설 한 돌을 맞이해 전문학교를 소개하는 송숙자 교수의 글에도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한다.[3] 학교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1975년부터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15일에 학칙도 변경해서 정식으로 삼육신업전문학교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

[1]송숙자, "창설 한돌이 된 산업전문학교," 교회지남, 1975년 6월호, 33.
[2]이기돈, "필요에 따라 많은 편달을 …," 35.
[3]송숙자, "청설 한돌이 된 산업전문학교," 33.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 2월 22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삼육대학 강당에서는 삼육대학 제35회, 삼육산업전문학교 제1회, 위생간호전문학교 제26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한 학생수는 대학이 30명, 간호전문학교가 33명인데 비해 산업전문학교는 47명이나 되었다.[1] 졸업생들 중 낙농과는 18명, 식품영양과는 29명이었다. 이들은 삼육기술전문학교의 명칭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졸업생들은 삼육산업전문학교의 이름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2회 졸업생들은 46명(낙농과 19명, 식품영양과 27명), 3회 졸업생들은 54명(낙농과 20명, 식품영양과 34명)이었다.

4. 학과의 증설과 전문대학 체제의 구축(1977~1978)

처음 2개 과로 시작된 전문학교는 1976년 12월 30일에 이르러 원예과 신설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1977학년도부터는 원예과에 입학정원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총 3개과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원예과는 화훼, 채소, 과수원예 및 조원 조경 등 원예와 관련된 과목들을 깊이 연구하여 현대 농업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실제 경영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예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 기능사 자격시험을 거쳐 기능사 자격증(과수, 채소, 화훼, 시설, 조원 등 각 분야의 1, 2, 3급)을 취득하게 되며, 종묘 2급기사 합격자는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편입학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2]

원예과에 이어 식품가공(제조)과가 1977년 12월 30일에 또다시 증설되어 1978년부터는 식품가공(제조)과 40명의 학생을 추가로 모집함으로써 4개과에 16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식품가공(제조)과는 식품공업이 생활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기초과학 과목들을 통하여 식품의 특성과 인체의 영양 요구를 이해한 후에 건강원리에 따라 위생적이고 식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 제조방법들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개설되었다. 식품가공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식품 공업에 공헌할 유능한 기능인 교육을 받게 되며 식품제조 가공기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소지는 물론 동일계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3]

이처럼 설립 당시에 낙농업과와 식품영양과가 개설된 데 이어 1977년과 1978년에 원예과와 식품가공과가 연속해서 개설됨으로써 삼육산업전문학교는 삼육대학 못지않은 학생수를 가진 학교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도에 이르러 삼육산업전문학교

---

[1]최이권, "75학년도 삼육대학 졸업생을 내어보내면서," 교회지남, 1976년 3월호, 31; 교회지남, 1976년 4월호, 40.

[2]교회지남, 1977년 10월호, 22; 교회지남, 1978년 10월호, 21.

[3]교회지남, 1978년 10월호, 21.

의 학생수는 268명으로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의 학생 정원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을 받게 되었다.[1]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전문학교가 다시 한 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나왔다. 문교부는 1979학년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교와 초급대학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체제로 개편하였다.[2] 이런 변화된 정책에 따라서 삼육산업전문학교와 삼육간호전문학교[3]도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1978년 12월 28일에 삼육산업전문학교는 삼육농업전문대학으로, 삼육간호전문학교는 삼육간호전문대학으로 각각 승격 개편되었다.[4] 삼육농업전문대학은 1979년 3월 1일부로 낙농과(40), 식품영양과(40), 원예과(40명), 식품제조과(40) 등 총 160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이 되었다. 학교가 전문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간호전문대학은 서울지구 예비고사에, 삼육농업전문대학은 경기지구 예비고사에 각각 합격해야만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5]

그러나 이런 입학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삼육농업전문대학의 학생수와 교수수는 다음과 같다.[6]

[표 53] 삼육농업전문대학 학생수와 교수수(1979~1990)

학 과	79		80		81		82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낙농과	57		40		44		49	
식품영양과	77		71		78		72	
원예과	71		61		65		69	
식품제조과	54		49		57		66	
계	259	18	221	18	244	19	256	17

학 과	83		84		85		86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낙농과	67		71		58		63	
식품영양과	73		85		82		77	

[1]1978년도 학생현황을 보면 삼육대학이 4개 학과에 239명, 간호전문대학이 1개과에 115명, 산업전문대학은 4개과에 26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6.

[2]한국교육100년사 위원회, 375.

[3]1973년 12월에 위생간호전문학교로 승격 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1977년 3월 1일부로 다시 삼육간호전문학교로 개칭 인가를 받았다. 삼육대학 요람(1978): 32.

[4]삼육대학 요람(1980): 17.

[5]교회지남, 1978년 10월호, 21.

[6]"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5, 6;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4, 5;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보고서, 1991년도, 3, 4.

원예과	74		74		60		58	
식품제조과	58		71		74		61	
계	272	14	301	11	274	16	259	15

학 과	87		88		89		90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학생수	교수수
낙농과	79		86		90		78	
식품영양과	90		86		82		80	
원예과	74		80		76		68	
식품제조과	82		86		87		78	
유아교육과							39	
계	325	13	338	12	335	11	343	10

삼육농업전문대학은 1990년부터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5개 학과에 3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대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에 이르면 삼육대학의 학생수는 1,600명을 넘어서는 등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농업전문대학은 1979년 이후 뚜렷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1981년도에 농업기계과(40명)와 농업건축과(40명)가 신설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전문대학이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 시기는 삼육병설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학과들을 신설하기 시작했던 1991년도에 이르러서였다. 이 역사는 다음 편에서 다룰 것이다.

5. 삼육농업전문대학 학생들의 활동

농업전문대학의 학생들의 활동 중에 두드러진 것은 영농 후계자로의 꿈을 가지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특별히 낙농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실질적인 낙농인으로서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2~3개월 정도 목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착안해서 당시 낙농과에서는 1년 정도 해외 실습을 보내는 길을 모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본 대학의 교수들은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 국가와의 연수계획을 확립하여 학생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연수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김형기 교수는 2년 동안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국립대학인 E. T. H.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rich의 낙농 경제학을 연구하였고, 1982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김종은 교수가 일본에서 연수를 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국가들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활동에 따라서 지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낙농과 학생들이 경험한 해외연수의 사

례는 다음과 같다.[1]

[표 54] 해외실습 상황

실습횟수	이 름	졸업연도	실습국	실습기간
제1차	김종균	1979(4회)	스위스	1979. 5~1980. 7
제2차	최영호 장우종 한영철	1980(5회)	스위스	1980. 5~1981. 7
제3차	박순향 김재천	1982(7회)	일 본	1983. 1. 7 출국(1년)
제4차	이성수 서철재	1979(4회) 1980(5회)	일 본	1983. 2. 27출국(1년)
제5차	이덕재 임주혁 최석근 김용민 장 옥 황용하 노재원 김인철 안병돈	1977(2회) 1978(3회) 1979(4회) 〃 1981(6회) 〃 〃 1983(8회) 〃	일 본	1983. 3. 20출국
제6차	조광현 정창근 박영욱	1978(3회) 〃 1979(4회)	일 본	1983. 4. 30 출국
계	20명			

학생들은 해외실습장에서 단지 낙농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삼육동에서 배운 신앙의 정신으로 그 지역의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는 소식들을 보내주었다. 농업전문대학의 낙농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농촌 후계자로서 자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학생들의 해외 연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활동이었다.

삼육기술전문학교가 삼육산업전문학교로, 다시 삼육농업전문학교로 발전해 과는 과정에서 삼육대학은 학과의 증설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 새로운 건물 증축 및 교육 기반산업 구축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확장 및 발전의 시기를 열게 된다. 이렇게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를 열기 전에 그 준비 작업으로 대학은 자립기반 마련에 이은 삼육교육 재정립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1]정순영, “해외 연수생을 보내면서,” 삼육학보, 1983년 4월 4일자, 3.

제4장 삼육교육의 재정립

(1974~1978)

1974년은 삼육교육이 매우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는 해였다. 특별히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되는 해였다. 이 시대에 대학이 직면했던 도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송권 학장의 글이 교회지남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 지난 1974년도는 본 대학이 겪은 가장 어려운 해들 중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염려하고 또 위하여 기도한 바와 같이, 본교회의 높은 이념에 따라 비무장 군사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 때문에, 대학은 원하지 않는 휴강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부분적이나마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 심려를 끼친 것은 실로 큰 불행이었습니다.[1]

이때 삼육대학이 겪은 고난은 당시 대학 사회가 겪은 고난의 한 단면이었다. 1970년대 한국의 대학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969년의 삼선개헌(三選改憲)으로 삼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민심의 이반과 야당의 약진에 위기를 느끼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듬해인 1972년 10월 17일에 '10월 유신(維新)'을 단행하여 장기집권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집회 금지, 대학 휴교 등의 포고령이 내려지면서 정국은 대단히 불안정해졌다. 유신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1973년 10월부터 대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은 반유신데모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휴교 등의 조치가 반복되었다. 특별히 정부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국가 반란으로 규정하고 1974년에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을 왜곡 조작해 180여 명의 학생들을 검거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그해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피습되고, 이듬해에는 월남이 공산화되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 발령을 통해 대학의 휴교 및 대학 내 무장군인 주둔을 강화하고, 1975년에는 아예 대학 병영화를 위한 학도호국단 제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2]

이런 사회적인 상황은 삼육대학의 교육이념구현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삼육대학의 구성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사회적 상황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조치에 따른 전 대학 휴교령 등을 제외한 직접 시위로 인한 휴교의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의 병영화와 그에 따른 군사훈련 강화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위의 글에서 송권 학장이 설명한 것처럼 삼육대학은 비무장전투원

---

[1]송권, "이상이 실현되는 대학으로," 교회지남, 1975년 2월호, 26.

[2]정학주, "체제변화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한국교육연구소 편(서울: 도서출판 풀빛, 1997), 517.

신념에 따른 군사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휴교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여러 학생들이 강제 휴학에 따른 징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문제는 삼육대학이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직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삼육대학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별히 대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서서히 대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런 일련의 노력의 결실로 1974년 들어서는 학생수가 365명에 이르는 등 점차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교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대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국불안에 따른 이념구현의 도전이 있었다. 그리고 교내적으로는 학과의 증설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학생들의 입학에 따른 이념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야흐로 삼육대학은 이제 교육이념의 재정립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것은 삼육대학이 발전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대학의 지도자들은 그런 필요를 절감하고 대학의 자립기반의 마련에 이어 삼육교육 이념의 재정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비로소 대학의 확장과 발전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 세계 삼육교육 100주년 기념행사(1972)

삼육교육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재고(再考)되기 시작한 때는 세계 삼육교육 사업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1972년이었다. 1872년 1월 엘렌 화잇이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이상이 담긴 팸플릿인 '증언 22'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재림교회 교육은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능력의 원만한 발달"이라는 삼육교육을 모토로 그 역사적 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삼육교육은 유럽(덴마크, 1883), 캐나다(1884), 독일(1889), 호주(1892), 남아프리카(1893), 브라질(1894) 등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1] 한국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6년 순안에 첫 삼육교육이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삼육교육 사업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한국은 1972년경에 삼육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운영하는 10개의 국가 중의 하나였다.[2]

1972년에 세계 삼육교육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삼육교육 사업을 돌아보는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미국에서는 재림교회의 공식 기관지인 리뷰 앤드 헤럴드

---

[1]Walton J. Brown, "An Education That Differs," *Review and Herald*, Dec. 7, 1972, 4.

[2]1972년 당시 삼육교육 기관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캐나다, 가나, 일본, 한국, 레바논,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10개국이었으며, 덴마크와 니카라과, 태국 등은 간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Ibid, 4, 5.

(Review and Herald)가 교육사업 100년을 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해 인터뷰 및 교육사업 관련 기사들을 발표하였다.[1] 재림교회 교단 본부인 대총회는 교육 사업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 삼육교육사업의 통계를 소개함으로써 삼육교육 사업의 오늘을 진단하였다.[2]

[표 55] 전 세계 재림교회 학교 분포 상황(7970년대 말)

지회	대학교 (8+)	대학 (4+)	대학 (1-3)	불완전한 고등교육 기관	사역자 양성소	중등교 육기관	초등교 육기관	계
Afro-Mideast		1		1	3	5	65	75
Australasia			1	2	2	5	373	383
Euro-Africa			2	3	8	2	368	383
Far East		4	6	4	1	31	447	493
Inter-America		2	3	4	2	10	393	414
North America	2	8	1	2		83	907	1,003
N. Eur.-W. Africa			3	3	7	4	218	235
South America		1	4		6	8	758	777
Southern Asia			2	1	3	7	174	187
Trans-Africa		1		1	6	1	684	693
계	2	17	22	21	38	156	4,387	4,643

* ( ) 안은 전공과정의 숫자를 의미함

이 통계에 나타난 원동지회(Far East)의 숫자 중에는 한국의 교육사업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197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사업 통계는 다음과 같다.[3]

[표 56] 한국 삼육교육 사업 통계(1972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계
학교수	11	8	1	21
학생수	1,040	2,471	176	3,687

미국 등 세계 전역에서 삼육교육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었듯이

[1]1972년 1월 27일에는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오늘을 점검하는 특별 인터뷰가 게재되었다. 인터뷰에 나온 사람은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세계적 리더였던 찰스 허쉬(Charles B. Hirsch) 박사였다. "A Look at Adventist Education Today," *Review and Herald*, Jan. 27, 1972, 4, 5. 12월에는 교육사업의 상황들이 발표되었다. Brown, 4, 5.

[2]Brown, 5.

[3]전병덕, "세계 삼육교육 사업 100주년 기념," 교회지남, 1972년 9월호, 2.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재림교회의 교육인 삼육교육 사업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1972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삼육대학에서 전국의 삼육교육자들이 모여 “100년 삼육교육 다시 각성 재헌신”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육자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이 수양회는 2개의 대학(간호학교 포함), 6개의 고등학교, 8개의 중학교, 그리고 11개 초등학교와 재림교회 신자들이 삼육교육 이념에 의해서 경영하는 6개의 학교에서 180여명의 교육자들이 모여 “1세기의 삼육교육을 회고하고 교육자 스스로가 재헌신하고 삼육교육 창달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개최되었다.[1]

이 수양회에서 삼육교육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던 교육자들은 스스로 삼육교육의 의미와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능동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직면한 국가정책과의 갈등 및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 따른 삼육교육이념 구현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면서 삼육교육이 나아가야할 미래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삼육대학을 포함한 모든 삼육교육기관들은 다시 한 번 삼육교육의 의미와 교육이념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밀려오는 세속적인 모든 도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삼육대학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행사가 개최된 지 약 3개월이 채 못 미처 군사정부의 10월 유신이 단행되었고, 그로 인해 대학의 이념구현 교육에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삼육대학은 삼육교육의 10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념구현에 대한 새로운 재헌신을 통해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2. 학생 군사훈련 문제와 대학의 위기(1974)

전편(前篇)의 “신학생들의 신앙양심”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삼육대학은 신앙양심에 따른 비무장전투원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군복무관에 따라서 당시 삼육신학대학생들은 군에 가서 집총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런 신앙양심의 문제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대학에서의 군사교육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학생회의 발전사를 다루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군사정부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군사교육 프로그램인 교련을 실시하였다. 교련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68년도 2학기 때부터였다. 군사정부는 전국 11개 시도에 교련 시범학교를 설치하여 학교 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1969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7개 도시에 소재하고

[1]상게서.

있던 대학 및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1970년 1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교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1] 이로써 삼육대학도 1970년부터 대학 내에서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학 내에서의 군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곧바로 대학의 교육이념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71년 1학기부터 아예 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모든 학생들이 일반교육 315시간, 집체교육 396시간 등 모두 711시간의 교육을 매 학기마다 받도록 규정하였다.[2] 이로써 비무장전투원의 신념을 지켜야 하는 삼육대학의 학생들은 신앙양심상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당시 교련수업을 받으려면 무기고 설치, 무기수령 및 집총 훈련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대학 지도자들은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삼육대학이 지향하는 비무장전투원 신념을 설득시키고 집총훈련 대신 의무대훈련으로 대체하였다. 교섭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윤국섭 장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무대훈련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의 학생들은 교련 시간에 주로 제식훈련과 의무대훈련 등과 같은 비무장전투원 교육을 받게 되었다.[3]

교련이 실시된 초기에는 이처럼 의무대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육대학은 정부 당국의 교련 검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9년 12월 1일과 1970년 10월 12일에 대학 교정에서 열린 검열에서 삼육대학생들은 사열 및 분열식, 각개 훈련, 사무 검열 등에서 “아주 우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4] 한편 1972년 6월 6일 현충일에 시행된 순국선열 추모 대학 행군대회에서는 본 대학이 유일한 의무지원 부대로 주목을 받았고, 그 기념으로 행주대첩비를 수여받기도 했다.[5] 삼육대학의 군사훈련 책임은 경희대학교 108학군단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지도자들은 학군단의 교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비무장전투원 신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6] 이렇게 해서 제도시행 초기에는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교련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서의 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반대 운동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대학들에서 교련실시 반대 시위를 했고, 그로 인해 정부는 휴교령을 내리고, 위수군을 대학에 주둔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아울러 유신체제 이후에는 반유신,

---

[1]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414.

[2]상게서. 교련이 필수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삼육대학의 교과과정에도 교련이 교양필수에 포함되었다. 다만, “예비역 학생, 여학생, 심신장애 학생, 외국 영주권 소지자, 현역군인, 연령 초과로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교련이 면제되었다.” 삼육대학 안내(1972): 29.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45.

[4]교회지남, 1970년 2월호, 10; 교회지남, 1970년 12월호, 27.

[5]교회지남, 1972년 8월호, 10.

[6]교회지남, 1971년 8월호, 12.

반정부 투쟁이 강화되자 특별조치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4년 8월 15일 박대통령 저격 기도로 인해 영부인이 피격되고 휴전선 부근에서는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는 등 정치군사적 불안이 크게 고조되자 군부는 긴급조치 선포를 통해 학군단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삼육대학의 의무대훈련 등과 같은 비무장 훈련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제108학군 단장으로 부임한 백인기 대령은 삼육대학도 집총훈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삼육대학생들도 집총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1974년 10월 10일 백단장이 검열을 하게 된 교련시간에 학생들이 총을 들 수 없다고 거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날 삼육대학생들의 행동이 학군단을 통해 육군본부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로 보고되었고, 그로 인해 청와대에서는 군사훈련을 전면 거부하는 삼육대학의 폐교까지도 검토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1] 이 일을 두고 당시 송권 학장은 "본 교회의 높은 이념에 따라 비무장 군사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 때문에 대학은 원치 않는 휴강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었다.[2] 이것이 삼육대학이 1974년에 교육이념의 구현과 관련해 맞이한 위기의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사훈련을 거부했던 학생들은 학적이 변동될 위기에 처해지자 전원 휴학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3]

한편 "집총훈련 문제로 학군단과 문교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된 삼육대학"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4] 이에 이사회에서는 1974년 3월 29일에 군사교육 문제로 해당 기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결의하고, 8월 5일 결의에서는 전국의 교회에 1974년 9월 7일을 삼육대학의 교련교육 문제를 위한 금식기도일로 선포하는 등 신앙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관계자들은 물론 원동지회에서 클라임스 박사, 대총회에서 스미스 목사(대총회 군봉사 담당),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제이콥스 목사 등이 내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였다.[5] 이런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집총훈련 시간에 실총 대신 플라스틱 모조총을 사용하여 여기숙사 뒤쪽의 숲속이나 경희대학과 같은 다른 공간에서 집총훈련을 받게 하는 등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수습해 나갔다.[6]

1최이권, "삼육동의 20년," 삼육동 이야기, 256.

2송권, "이상이 실현되는 대학으로," 26.

3당시 군사훈련을 거부한 학생들은 오정채, 임정, 김시영, 오지영, 문치양, 정순기, 강성수, 김성범, 김대성, 김성국 등 신학과 3학년 학생 30명과 영어영문학과생 1명이었다. 오만규, 신앙양심, 130.

4상게서.

5"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보고서, 1974년도, 2.

6최이권 교수(당시 학생처장)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당시 문교부 군사교육관실의 안영선 장학관과 서우석 선생 등의 희생적 협력으로 그나마 이만큼의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최이권, 257.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군사훈련 의지로 인해 삼육대학은 더 이상 의무대훈련 등을 통한 비무장훈련을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5년 7월 11일에 학도호국단이 창설되고, 8월 27일에는 전투예비군이 편성되고, 9월 22일에는 민방위대가 창설되는 등 대학생으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비무장전투원의 신념을 지키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학생들은 1971년부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총 6학점에 걸쳐 교련을 교양필수로 선택해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여학생들은 1년간 교련과목으로 의무대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학도호국단 체제 아래 학생회 활동이 운영됨으로써 군사 문화 속에서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1976년부터는 대학 1학년 학생들은 10일간의 종합행정학교(문무대) 입소, 2학년 학생들은 10일간 전방입소 교육이 실시되어 대학 재학 중에 이미 군에서 집총문제 및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1] 이러한 문제는 1989년에 이르러 학생군사교육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행히 여러 위기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었고 민주화의 결실로 인해 삼육대학은 이 문제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다.

군사정부의 학도호국단 체제 아래서 군사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이 시기의 삼육대학은 교육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를 절감해야만 했다. 핵심 문제는 국가의 군사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밀려오게 될 세속화의 도전 역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었다. 삼육대학의 발전은 이러한 직면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이었다. 대학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이 과제, 즉 삼육교육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삼육대학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상이 실현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대학교회와 교목실 운영

삼육대학교는 기독교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의 기능이 매우 강조되어 왔다. 이런 교육이념의 특성으로 인해 삼육대학교는 교육사업의 시작부터 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미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삼육대학이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의명학교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삼육동의 시대에 이르

[1]오만규, 신앙양심, 135.

기까지 여러 변천의 역사를 지나왔다. 이런 역사적인 발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과정들을 생각할 때 대학교회의 역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학교회가 대학의 기구표에 편제된 것은 1974년에 이르러서였다.[1] 이와 아울러 대학의 기구 내에 교목실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1976년이었다.[2] 이 시기에 대학교회 및 교목실이 하나의 대학기구의 조직으로 편제된 것은 대학교회 및 교목실이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육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성장하기 전, 즉 신학원과 신학대학 시절의 삼육대학은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과를 중심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최고 지도자가 곧 대학교회의 담임목사의 역할까지 맡아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세분화되고 발전되면서 대학교회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1966년부터 학장이 아닌 다른 목회자가 대학교회의 목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직임을 맡은 분은 유정식 목사였다. 이후 1975년에는 학장의 직임을 이기돈 교수에게 물려준 송권 목사가 대학교회 및 교목실의 책임을 맡게 된다. 이 일련의 역사적 변화는 대학 내에서 교회와 교목실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대학교회가 삼육동에 터를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이었다. 그 당시 대학의 터를 닦을 때 직원들과 가족들 40~50여 명은 천막을 쳐 놓고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3]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중한대회장이었던 김명길 목사의 집례로 삼육대학교회 조직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조직된 교회가 되었다. 조직 당시 대학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명길 목사였고, 장로엔 제임스 리 원장, 이여식 목사 등이 있었으며, 서기 겸 회계에 조돈하 교수, 안식일학교장에 김영도 선생, 선교회장에 이여식 목사가 선택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처음 교회가 조직될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당시의 본관 건물 안 강당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 건물이 곧 교회요 교실이요 기숙사요 식당이었다.[4]

한국전쟁 이후 피난에서 돌아온 삼육동의 식구들은 대학교회를 다시 구성하여 목공실에 송판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도널드 리 원장 시절인 1955년 10월에 강당이 완공되면서 새로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대학교회의 담임목사는 학교 책임자의 교체 순으로 제임스 리 목사, 클린턴 리 목사, 정동심 목사, 도널드 리 목사, 짓코스키 목사, 클라임스 목사 등이 신학원장 혹은 학장의 직분과 교회 담임목사의 직분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 이르러서 클라임스 박사는 대학교회의 담임목사로 유정식 목사를 임명함으로써 학장과 교목의 겸임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

[1]삼육대학 안내(1974): 21.
[2]삼육대학 안내(1976): 23.
[3]박종기, "한국교회 지성의 본산, 교회순례-삼육대학 교회 편," 교회지남, 1971년 10월호, 20.
[4]상게서.

전담 목회자가 대학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시대를 열었다.[1]

삼육대학교회와 교목실이 정식으로 대학 기구로 편입되어 운영되기 전까지, 즉 전 직원과 학생들이 교인들이었던 시기의 대학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대학의 구성원들은 많은 데 비해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대학교회 교인들을 인근 지역교회들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특별히 도널드 리 원장 시절에 이 분산 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일로 많은 실업부 직원들과 가족들이 대학교회로 출석하는 대신에 주변교회로 분산하게 됨에 따라 분교 정책이 활성화되었고 지역교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교회의 분산정책은 삼안리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묵동과 공덕리 등의 교회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별히 이런 정책 덕분에 천성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로리, 퇴계원, 덕성리, 상계동, 중계동, 송산, 사릉 등 여러 지역에 분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2] 이런 연관성 때문에 삼육대학은 해마다 이 지역교회들과 합동으로 연합 침례식을 진행하였는데, 1972년 5월 27일에는 삼육대학 호수에서 130명이, 1974년 전반기에는 290명이 침례를 받기도 했다.[3]

대학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교회와는 달리 영적인 집회의 내용이 전도회나 사경회가 아닌 춘계, 추계 기도주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직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운영이 기관의 행정과 맞물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교회의 독자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 전담목사를 배치 받아서 교회사업에 주력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4] 사실 대부분의 외국의 재림교회 대학이 학교 종교생활을 담당하는 채플린(Chaplain)과 대학교회 목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과 달리 당시의 삼육대학은 이런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대학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우선 채플린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회와 교목실을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대학교회와 교목실이 분리되지 못한 것은 삼육대학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대학교회는 기관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있어서도 특별하였다. 특히 1970년대 상황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교회의 부서는 도르가회였다. 도르가회는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교회 부서였는데 대학교회 도르가회는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대학교회의 특성상 학장이 담임목사를 겸임하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가회장은 주로 학장(교목) 사모가 맡아서 수고하였다. 1970년대에 김난경(김종화 학장 사모) 도르가회장과 최순유(송권 목사 사모) 도르가회장 시

---

[1]상게서, 21.
[2]상게서.
[3]교회지남, 1972년 7월호, 15; 교회지남, 1974년 9월호, 34.
[4]박종기, 21.

절에는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1]

대학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대학교회도 자연히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교회를 위한 기반시설을 열악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예배는 1955년에 지어진 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3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학교회 건물의 건축은 대학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특별히 1974년에 대학교회가 대학기구에 편제되고, 그 후 교목실이 설치되는 등 삼육교육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던 이 시기에 대학교회의 건물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2]

한국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필요에 부응해 선교 70주년을 맞이하는 1974년에 선교70주년기념관을 대학교회로 짓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들어갔다.[3] 대학교회 및 대학 강당으로 사용될 선교70주년기념관은 1천 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매우 큰 현대식 건물로 계획되었다. 삼육대학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문들에게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4] 아울러 한국연합회에서는 이를 위해 제25회 총회에서 특별헌금을 작정하였고, 1975년 가을에 거두게 될 수확운동 자금을 대학교회 건축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다.[5]

이처럼 대학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 약 4억 원이나 소요되는 공사를 쉽게 시작할 수는 없었다. 재원 마련과 정부로부터 대학시설 용지 지정고시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자 1974년을 기점으로 열화와 같이 타오르던 대학교회 건축에 대한 의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교회 건축은 삼육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 과제는 결국 1979년 6월 7일 12시에 선교70주년기념관 건축을 위한 기공식과 더불어 해결되었다.[6]

대학교회(선교70주년기념관) 건축사업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대학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대학의 심장"으로 여겼다. 삼육대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교육목표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높이고 순종하는 최고의 영적 교육의 구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영적

---

[1]상게서.

[2]송권 학장의 1973년도 취임사와, 1974년도 신년사에는 "대학교회 건축"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거듭 호소되고 있다. 송권, "보다 튼튼한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19; 송권, "신년사," 23.

[3]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보고서, 1974년, 55.

[4]송권, "삼육대학의 날," 교회지남, 1974년 10월호, 3.

[5]이기돈, "필요에 따라 많은 편달을 …," 교회지남, 1975년 4월호, 35.

[6]김홍량, "대학교회 기공식," 교회지남, 1979년 8월호, 40.

교육을 통해 “삼육의 얼”을 살리는 것이 대학의 존재의 이유임을 천명하였다.[1] 이런 교육이념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정신이 대학교회 건축을 끝까지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동력이 대학의 확장 및 발전도 가능하게 해 주었음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제5대 이기돈 학장 취임 및 제도적 발전(1975~1976)

1975년으로 넘어오면서 대학은 행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체제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였다. 1975년에 이르면 대학 5개 학과, 산업전문학교 2개과, 간호전문학교 1개과, 연수원(신학 특과) 등에 약 4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51명에 이르게 되었다.[2] 이렇게 대학의 규모가 확대되자 삼육교육의 효율화 및 재정립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특별히 이 시점에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 새로운 학장이 취임하였는데 그가 바로 제5대 학장에 취임한 이기돈 박사였다.

1) 제5대 이기돈 학장 취임(1975)

이기돈 박사는 1975년 2월 19일에 송권 목사의 뒤를 이어서 삼육대학 제5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이기돈 학장은 동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삼육원을 다니다가 순안의 의명학교로 전학하여 공부를 했다. 교회해산의 위기의 때에 부친 이성의 목사가 수감되자 그는 서울양정중학교로 전학하여 해방 후인 1949년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곧 한국전쟁이 발발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피난을 갔다. 피난 시절인 1951년 6월 30일에 정동심 목사에게 침례를 받은 그는 11월 15일에 삼육신학원에 입학해 2년 후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 후 2년 동안 서울삼육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55년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네브라스카 주 유니언 대학교에 입학하여 1958년 1월 대학을 졸업한 후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공부하였다. 이렇게 해서 1959년 6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테네시 주 네슈빌에 있는 피바디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연구생활을 하다가 1961년에 삼육신학대학 강사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시기에 대학의 학감의 직분을 감당하던 그는 1965년 8월 24일에 다시 도미하여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8년에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

[1]이기돈, “교육은 최대의 관심사,” 교회지남, 1976년 10월호, 13.
[2]“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6회 총회보고서, 1978년도, 3.

그 후 이기돈 박사는 북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Northern Iowa) 교수로 있다가, 1974년 2학기 초에 귀국하여 삼육대학 교수로 일하던 중에 제5대 학장에 선임되어 1975년부터 삼육대학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1]

송권 학장의 뒤를 이어 학장에 취임한 이기돈 박사는 전임 학장시절에 추진했던 자립기반 마련 및 삼육교육 재정립을 위한 과제를 이어받아 학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학 체제 및 제도의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별히 대학 외에 전문학교의 운영 및 위생간호전문학교와의 간호교육 일원화 등 정비가 시급한 사안들이 있어 제도의 개혁은 절대적 과제였다. 이런 현안으로 인해 삼육대학은 이기돈 학장의 체제 아래서 제도상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2) 조직 및 보직의 변화

대학의 기구가 보다 전문적인 체제로 개편된 것은 사실 1965년부터였다. 이때부터 교무과, 서무과, 학생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 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고 학과도 5개 학과에 이르는 등 학교의 규모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세 개의 과(課)를 처(處)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1973년 가을학기부터 대학기구를 처장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에 교무과, 학생과, 사무과는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가 되고 각 부서장은 처장이 되었다. 그 해에 교무처는 김홍량 처장의 책임 아래 교무과, 학적과 및 각 학과와 교양교직학부로 나누었고, 학생처는 신현철 처장의 책임 아래 학생지도과, 상담실, 위생실, 남녀생활관 등의 부서로 운영되었으며, 총무처는 최이권 처장의 책임 아래 실업교육부, 재무과, 서무과 등의 부서가 운영되었다.[2]

1975년에 이르러서는 학장의 교체와 더불어 각부서장들의 보직의 변동도 발생하였다. 우선 김홍량 처장이 1975년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교무처장 임명이 필요로 되었다. 이에 대학 이사회에서는 재미 유학 중인 김종화 목사가 5월 중에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교무처장의 직임을 수행하도록 결의하였다. 공백기간 동안에는 학적과장이던 남대극 교수가 교무처장 서리에 임명되었다. 남대극 교수는 1973년 10월 1일에 학적과장이 되었다.[3] 학생처장 역시 변동이 불가피했다. 신현철 처장이 김종화 목사에 뒤이어 박사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떠나도록 결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후임 학생처장으로는 당시 총무처장으로 봉사하던 최이권 교수를 보직 변경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무처장의 자리 역시 공석이 됨으로써

---

[1]송권, "삼육대학의 날," 3.
[2]삼육대학 안내(1974): 21-23.
[3]교회지남, 1973년 12월호, 15.

새로운 보직자를 임명해야 했는데 원래는 여러 기관에서 재무 및 총무로 봉사한 경력을 가진 버제스(Robert G. Burgess, 배재수) 박사가 임명되었었지만 여러 사정상 최종적으로 총무처장에 부임한 분은 한국삼육중고등학교장으로 시무하던 김준팔 선생이었다.[1]

3) 위생간호전문학교의 통합(1975)

보직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위생간호전문학교가 대학의 편제 아래 편입되면서 대학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974년부터 간호학과를 신규 개설하게 됨에 따라 대학은 위생간호전문학교 및 위생병원과 상호위탁교육제도를 확립해 교육의 연계를 꾀했다. 그러나 삼육대학 편제 내에 전문학교도 있었고, 동일계열의 간호학과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간호교육 일원화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

교회 지도자들은 1975년 2월 17일에 교단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 우선 위생간호전문학교의 이사회와 삼육대학 이사회를 통합하여 단일화하였다. 아울러 1975년 새 학기부터는 두 학교의 간호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교무 및 재정을 대학본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이미 1974년부터 시행한 것처럼 1학년은 대학 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 3학년은 병원 캠퍼스에서 전공과 실습을 교육하기로 하였다.[3] 이렇게 해서 위생간호전문학교가 대학 편제 아래 있게 되었다.

한편 1975년 1월 13일에는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삼육기술전문학교가 서울산업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해부터는 식품영양과의 정원이 10명 증설되어 낙농과와 마찬가지로 40명의 정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산업전문학교도 개편되고 여기에 위생간호전문학교가 대학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삼육교육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삼육대학은 이제 성장의 기반을 거의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및 기구의 개편과 더불어 학사행정의 개편 역시 필요되었다.

4) 학사행정의 개편

1975년 학적과장으로서 대학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남대극 교수는 1975년에 개편된 학사행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

---

[1]이기돈, "필요에 따라 많은 편달을 …," 35; 교회지남, 1975년 7월호, 40.
[2]상게서, 35.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27.
[4]남대극, "새 술은 새 부대에," 교회지남, 1975년 5월호, 33.

첫째로 출석부 제도의 개선이었다. 도널드 리 원장 시절에 확립해 놓았던 출석 관리제도는 결석생 슬립 사용 및 지각계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1950년대에는 매우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학생수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무처에서는 담당교수가 학생들의 출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석부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계출의 번잡함을 없애고 출결의 파악을 일원화했으며 나아가 막대한 용지소모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출석부 제도가 정착되었다.

둘째로 학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생들의 규모가 적었던 시절에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수가 늘어나고 동일 이름을 가진 학생들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학번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전교생에게 학번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시험과 보고서 제출 시 학번과 이름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여된 번호에 따라서 개인의 정체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셋째로 부전공제도를 강화하였다. 삼육대학이 부전공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1974년도부터였다. 이 해부터 대학교육과정 축소를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어 교과과정을 조정한 대학 당국은 경영학, 교육학, 신학, 영문학의 4분야를 부전공 과정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부전공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전공제 운영에 따라 교육과정은 전공 60, 부전공 30, 교양교직 50, 선택 20 등 총 160학점의 골격을 유지하게 되었다.[1] 1974년 이전까지는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 요구된 학점이 160학점이었다. 그러나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학부 졸업학점을 140학점으로 줄이고, 대신에 부전공제도를 만들어 이전과 같이 16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부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학적부에 부전공 이수 여부가 게재되어 복수전공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전공제도는 문교부가 고등교육의 방향을 학점제와 학년제의 병행관리에서 학점제만의 방향으로 정책을 바꿈으로써 가능하진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라서 대학들은 학점제만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전공 이외에도 조기졸업 제도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2] 이처럼 부전공제도가 상당한 장점을 갖게 됨에 따라서 삼육대학은 이 제도를 더욱 더 강조하면서 1975년에는 수학 과정을 신설하여 총 5개의 부전공 과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수학 과정을 위해서 고찬연 교수가 대학으로 부임하기까지 했다. 부전공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교육기회 및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1]김홍량, “하기대학과 개정된 학사 안내,” 교회지남, 1974년 7월호, 35.
[2]상게서.

이 외에도 신입생들의 계열별 모집과 그를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 교양학부의 강화 등 여전히 남겨진 여러 제도적 과제들이 있었다.[1] 이런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바야흐로 삼육대학이 확장과 성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5) 교원 봉급제도의 확립(1976)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원 봉급제도의 연구 및 확립이었다. 재림교회의 모든 기관들의 봉급제도는 직위와 상관 없이 동일한 비율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교육 종사자들(교원, 일반직, 고용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에 따른 간섭으로 교육직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의 봉급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1975년 6월 16일에 봉급제도연구회를 구성하여 교직원들의 봉급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2]

봉급제도연구회의 위원들은 반년간의 연구를 통해 봉급규정을 제정하고 1976년 1월 14일에 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았다. 그때 결의된 봉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직의 경우는 ① 교비 예산에서 월급(교재연구비 포함) 및 자녀수당을 월급 기준액 84,000원으로 본교 봉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② 육성회 예산에서는 연구비 및 학생지도비와 직책수당을 지급하는데, 연구비 및 학생지도비로 초등학교 교사는 매월 17,000원, 중고교교사는 매월 30,000원을 지급하고, 직책수당으로 고등학교 교장은 매월 13,000원, 교감은 8,000원, 중학교 교장은 매월 8,000원, 교감은 3,000원, 초등학교 교장은 매월 8,000원, 교감은 3,000원, 고등학교 주임은 매월 3,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초등학교 교장이 없는 곳은 수석 교사에게 3,000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교목 및 서무주임은 교등학교 주임교사 기준액에 의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직의 경우는 교사 규정에 의거해 월급 및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으로는 가족 수당으로 매월 10,000원, 독신자는 매월 5,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 본교 제반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집세는 지방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3]

교원의 봉급규정은 1977년 2월 10일에 개최된 행정위원회에서 교원봉급연구위원회

---

[1]남대극, "새 술은 새 부대에," 33.

[2]봉급제도연구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제리 위글(Jerry L. Wiggle, 위걸, 연합회 재무부장), 서기: 전병덕(연합회 교육부장), 위원: 이기돈(삼육대학장), 고문경(중한대회장), 노승익(연합회 감사), 김재신(한국삼육중고등학교장), 권혁종(서울삼육중고등학교장), 김준팔(삼육대학 총무처장).

[3]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76년도, 21.

의 보고를 채택 결의함으로써 1년 만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① 육성회비에서 지급되는 수당(연구수당, 직책수당)은 학교 육성회와 이사회별로 결정 지급한다.

② 대학, 전문학교 교원 봉급은 별도로 연구한다.

③ 초중고교 교원의 봉급을 기준액 11만원에 대한 현 교회 %를 국가 호봉의 근사치상 호봉에 적용하여 호봉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급한다.([표] 참조).

④ 중고교 교사 초봉은 국가 호봉의 최저 호봉인 18호봉을 지급한다.

⑤ 초등학교 교사 초봉은 최저 호봉인 22호봉을 지급한다.

⑥ 교회봉급이 자기 호봉 액보다 많은 교사는 중간호봉 혹은 국가호봉을 따른다.

⑦ 교비에서 지급되는 교재연구비 월 7,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교재연구비와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본봉에 대한 연 4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⑨ 자녀수당 및 교회규정에 의한 제반 수당과 보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집세는 지방시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⑪ 부양료 문제, 퇴직금 문제는 동 봉급연구위원회에 의탁하여 연구케 한다.

[표 57] 교회 비율 대 적용호봉 비교표

교회(%)	적용 호봉	액수(원)
50-51	23	59,000
52-54	22	61,000
55-56	21	63,000
57-58	20	65,000
59-60	19	68,000
61-64	18	71,000
65-67	17	74,000
68-69	16	77,000
70-72	15	80,000
73-75	14	83,000
76-78	13	86,000
79-87	12	97,000
88-96	11	108,000
97-101	10	119,000
101	9	130,000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봉급제도로 최종 확정된 것은 1990년이었다. 그해 2월 21일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삼육대학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을 위한 봉급제

[1]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77년도, 15,

도를 확정함으로써 봉급제도와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때 결정된 봉급제도는 사학연급관리 공단에서 사정된 호봉에 준하는 봉급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다만 직급에 따라 상한선을 두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교수의 상한선은 29호봉, 학장은 31호봉이며, 대학의 경우 일반교수는 27호봉, 처장, 대학원장은 29호봉, 학장은 30호봉으로 제한되었다. 사무원의 경우는 연합회 봉급사정위원회에서 직책에 따라 급수를 사정하며, 연급관리공단에서 산정된 호봉에 준하되 급별 상한선 역시 정해주었다. 2~3급은 11호봉, 4급은 12호봉, 5급은 13호봉, 6~9급은 16호봉으로 제한되었다. 이 외에 각종 수당 및 연구비 등이 체계적으로 정해짐으로써 봉급규정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1]

봉급제도의 확립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특별히 삼육대학이 본격적인 대학의 체제를 갖추고 발전 도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립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5. 하기대학의 체계적 운영

삼육대학의 여름방학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생들의 하기봉사활동과 하기대학 운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학생들의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하기방학에 실시했던 전도봉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지난 1971년에는 하기봉사단 활동으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런 학생들의 하기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학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학생 활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보았다.

이에 못지않게 삼육대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하기방학 활동이 바로 하기대학을 개최한 것이었다. 하기대학 역시 하기봉사활동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특별히 하기대학은 재림교회 내 목회부와 교육부 산하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학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삼육대학에서는 교단의 교역자들이 삼육교육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여름방학에 하기대학을 실시하였다. 하기대학 수강자들은 방학기간 동안에 신학, 교육, 영어 과목 등 필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체계 있게 배움으로써 평생교육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아울러 하기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목회와 교육 등 재림교회 사업에 종사하는 교역자로서의 자격도 확립하였다. 1970년대 초에 개설된 하기대학의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0년도, 134-136.

[표 58] 하기대학 강좌 내용

년도	강 좌	학점	담당교수	비 고
1971	신학세미나 계시록 교육평가 성경교수법 청년심리 영어세미나 영어타자	2 3 3 2 2 2 2	오재윤 송 권 조영일 시몬즈 김종화 잉 즈 이영자	*매일 오후 6:30-7:30에 개혁된 가정 강좌(시몬즈 부인 담당) *기간: 7. 28~8. 18
1972	성서개론 다니엘서 현대신학사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목회상담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교육사회학 학습지도 새 외국어지도법	2 2 2 2 2 2 2 2 2	신현철 송 권 박해종 오재윤 신계훈 김종화 김홍량 조영일 이익모	*기간: 7. 31~8. 18.
1973	성서배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중심으로한 재림운동의 역사 교육사 영양식조리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2 2 2 2 2	신계훈 오재윤 조영일 임정혁 김홍량	* English Institute (이익모) *성경학습 지도법의 이론과 실제(전병덕 외) *기간: 8. 5~19.
1974	예수의 생애 종교와 과학 예언의 신 원서강독 로마서 아동발달	1 2 2 2	박해종 신계훈 이익모 신현철 이기돈	*삼육학교에 있어서 자연과(과학) 학습지도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전병덕 외) *기간: 8. 5~16.

하기대학의 강좌는 대개 "일선의 필요성과 학문의 체계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강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과거 사역자 양성학교 시절에 실시했던 "통신신학의 강좌" 설정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통신신학은 설강되지 않고 대신 하기대학이 발전하였다.[1] 참가자들은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학점요건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움으로써 하기대학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되었다.[2]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온 하기대학이 1975년 들어서서는 교외대학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훨씬 더 발전된 체계로 변모되었다. 교외대학은 하기 방학을 이용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전 세계대학의 교육과정을 유치해 강좌를 개설하는

[1]김홍량, "하기대학과 개정된 학사안내," 35.

[2]1974년 당시 학점 당 수강료는 3,000원(현직 사역자와 학생 및 대회장의 추천이 있는 평신도는 30% 할인) 씩이며, 학점 취득 가능한 출석일수는 90%이상(원래는 75%)이었다. 상게서.

것으로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특별히 이 강좌를 통해서 외국 대학의 대학원 학점을 한국에서 이수하게 된 것이다.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교외대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1]

[표 59] 교외대학 강좌 내용

년도	강 좌	학점	담당교수	비 고
1975	성령론 교회론	3 2	Wallenkampf 오재윤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 *기간: 7. 28일~8. 14
1976	성서와 고고학 건강전도법	3 2	S. Horn J. Staples S. Nagel	앤드루스 대학교 *기간: 8. 10~30.
1977	현대신학 신약신학	2 2	R. M. Johnston L. Anderson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 *기간: 8. 1~22.
1978	구약신학 다니엘서와 종말론	2 3	L. Anderson W. Shea	*기간: 8. 6~25.

대학의 규모가 아직 대학원을 신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육대학에서는 외국의 자매대학 대학원 과정을 교외대학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대학원 과정의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것이었다. 이렇게 교외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학점을 이수한 후에 나머지 학점들은 유학을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유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

6. 제6대 김종화 학장 취임(1977)

1975년에 대학 학장에 취임했던 이기돈 박사는 재임시절에 대학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고 체제를 확립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였다. 특별히 간호교육의 일원화를 위하여 위생간호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학교의 편제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삼육동의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대학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2년만인 1976년 말에 개인사정으로 학장직을 사임하게 됨에 따라 대학 이사회에서는 김종화 박사를 후임 학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1977년 1월 5일에 제6대 학장으로 김종화 박사가 취임하였다.

1969년에 클라임스 박사에 이어서 제3대 학장으로 임명되어 대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종화 학장은 1972년 12월에 교단의 교비장학생이 되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로 떠나고 그 자리에 송권 목사가 임

[1]교회지남, 1975년 7월호, 40; 교회지남, 1976년 6월호, 17; 교회지남, 1977년 6월호, 17; 교회지남, 1978년 6월호, 18.

명되었다.[1] 이렇게 해서 학위를 시작한 김종화 목사는 2년 6개월 후인 1975년 6월 9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삼육대학으로 돌아와 그해 초에 이미 보직 임명된 교무처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2]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 김종화 박사가 행정에 역점을 둔 것은 삼육교육의 재강조였다. 그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와 과도한 기능화를 그 목적으로 삼는" 교육의 현실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 생명을 간직하고 계승할" 바람작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삼육교육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3] 이렇게 삼육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무행정 업무에 충실하던 그는 이기돈 박사의 학장직 사퇴 이후에 자연스럽게 삼육교육의 지도자로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된 것이었다.

학장에 다시 취임한 김종화 박사는 삼육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피력하였다. 특별히 취임 후 삼육학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청각교육 시설 확보 등 학교의 면모를 쇄신하는 것과 교수 및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 및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4] 대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들을 인식하면서 학장에 취임한 김종화 박사는 성장의 계기를 맞이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6대 학장이 직임을 시작한 그는 1990년 정년퇴임으로 물러나기까지 15년간을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7. 대학 개발 노력과 사무엘관 건축(1978)

1975년에 이르러 위생간호전문학교가 대학의 편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재학생 수가 5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대학은 더 많은 교실과 실습기자재와 그 외의 많은 교육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개교 70주년을 1년 앞둔 그해 10월의 교회지남에 대학을 소개하는 특집란을 마련하여 시설 확충에 대한 전교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하였다. 재학생수가 이미 550명을 넘어섰지만 당시 대학의 교실과 생활관, 실험기구 등 모든 시설들은 300명도 교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었다.[5] 이처럼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많은 교육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실의 부족이었다.

---

[1]교회지남, 1973년 2월호, 19.
[2]교회지남, 1975년 8월호, 34.
[3]김종화, "재강조되어야 할 삼육교육," 교회지남, 1976년 1월호, 16.
[4]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48, 449.
[5]교회지남, 1975년 10월호, 7.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실 건축을 계획하였지만 문제해결이 그리 쉽지 않았다. 대학의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건축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72년이었다. 유신과 더불어 발표된 그린벨트 제도는 본격적인 개발시대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삼육대학의 모든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시설 용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대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원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모든 행정자들은 그린벨트에 묶인 대학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학용지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대학은 한국삼육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시무하고 있던 전 교무처장 김홍량 교수를 다시 총무처장으로 전입시켜 건축 문제 해결의 직임을 맡겼다. 김홍량 처장은 교무처장으로 재임하던 1975년 3월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1976년 4월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삼육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봄에 다시 삼육대학으로 돌아온 김홍량 총무처장은 교실 건축의 책임을 맡은 후 대학시설 용지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 관계 기관들을 설득한 결과 드디어 그해 5월에 "삼육대학에 대학시설 용지 지정고시" 승인 결과가 건설부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결정으로 삼육대학은 1978년 10월 5일에 지목변경 학교용지의 승인을 받아 공릉동 26-20번지 45,570m^2(1만3천여 평)와 공릉동 26-21번지 21,243m^2(약 6천5백 평) 등 총 2만여 평의 용지에 대학시설 결정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이 용지에 강의동 3층(1,825평), 기숙사(900평), 학생회관 1동(387평), 교수회관 1동(449평), 정문, 수위실(17평) 등의 건축시설도 승인을 받았다.[2]

이 시설 용지 위에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은 강의동이었다. 1978년 5월초에 건설부의 승인을 확인한 후 대학 당국은 곧바로 강의동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20여일 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5월 24일 12시에 신축교사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건축을 시작하였다.[3] 이 건물이 바로 엘리야관 이후 새로운 대학의 얼굴이 될 사무엘관이었다. 사무엘관은 옛 북교사와 남교사를 헐고 3층짜리 현대식으로 지어진 매우 매력적인 건물이었다. 중앙의 멋진 현관의 구조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대칭적인 구도로 지어진

---

[1]김홍량, "나의 삼육동 생활," 삼육동 이야기, 247.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49, 450.
[3]교회지남, 1978년 7월호, 19.

이 건물은 앞쪽의 넓은 잔디밭과 더불어 매우 시원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춰 엘리야관 이후 삼육대학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바꿔주는 상징이 되었다.

1978년 5월 24일에 착공하여 12월 14일에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완성된 이 건물은 총 1,643.55m^2(700평)여 평의 규모로 2억2천5백만 원의 건축비를 들여 지었다. "이국적이며 현대적 감각이 풍기는 시원스런" 이 건물은 엘리야관과 마찬가지로 앤드루스 대학교의 사진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건물로 알려졌다.[1] 특별히 대학에서 건축을 직영하기로 하고 정광석 장로가 감독하였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사무엘관의 건축은 삼육대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고양시켜 주었다. 건물이 완공될 즈음, 개교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학의 지도자들은 사무엘관 건축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었다. 당시 한국연합회장으로서 대학 이사장이었던 유형환 목사는 교회지남 권두언을 통해서 "이제껏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현대적이고 우람한 건물이 이번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준공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사무엘관의 건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2] 김종화 학장 역시 삼육대학 특집란을 통해서 "가장 크고 능률적인 시설을 갖춘 교사가 신축 중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3]

사무엘관의 건축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삼육대학이 본격적인 성장 및 발전의 상징이 되는 의미 있는 건물이 되었다. 사무엘관의 건축은 앞으로 대학 발전의 상징이 되는 또 다른 건물들, 즉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 현대식 기숙사, 실험실, 식품공장, 도서관 등의 건축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었다. 1978년 말에 사무엘관이 완공되고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보다 발전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은 이제 본격적인 확장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

[1]박채운, 78;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49.
[2]유형환, "이때를 위한 대학-삼육대학," 교회지남, 1978년 10월호, 2.
[3]김종화, "개교 72주년을 맞는 삼육대학," 교회지남, 1978년 10월호, 19.

제5장 대학 확장의 시기

(1979~1986)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였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절대빈곤의 시대"를 지나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었다. 특별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우리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들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적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부마항쟁(10월 16일)이 일어나면서 제4공화국의 몰락과 제5공화국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대격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격변은 부마항쟁에 이은 박대통령 저격 사건(10월 26일), 학원 민주화 운동, 5·17비상계엄 확대(1980),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현대사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던 1979년부터 시작된 중동의 오일쇼크로 인해 중화학 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한 경제 침체는 결국 정치적으로까지 번져 정치적 대격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1] 이런 위기들이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었지만 한국사회의 발전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발전의 동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동력은 바로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었다. 삼육대학의 교육 사업도 민족의 성장 동력에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재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 급격하게 감소되었던 교인들의 숫자는 1970년대 들어서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교인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1978년에는 중한대회를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나누어 지금과 같은 5개 대회 시대를 열어 본격적인 성장 조직을 갖추게 된다.[2] 이런 발전의 추세에 따라 1982년에는 한국연합회 본부 건물을 중축하고, 천안의 삼육식품공장을 준공하는 등 자양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1983년에 한국 재림교회는 더 이상 외국의 보조 없이 스스로 교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양연합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3]

---

[1]역사학연구소, 386, 387.

[2]1968년에 3개대회로 축소되었던 조직인 1971년에 이르러 서남대회를 중서대회와 호남대회로 나누면서 4개 대회가 되었다가 1978년 제26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중한대회를 다시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나누어 5개 대회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교회지남, 1978년 5월호, 6.

[3]유형환, "무엇으로 보답할꼬," 교회지남, 1983년 1월호, 1.

이렇듯 1983년은 한국 재림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대였다. 선교 80년 만에 완전 독립 선교체제를 구축하는 자양의 시대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그 해 3, 4월에 5개 대회(mission)가 자양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합회(conference)로 승격하였으며, 12월에는 제27회 연합회 총회에서 한국연합회가 자양연합회로 승격되었다. 이때의 교세는 교회수 384개, 교인수 59,538명, 안교수 681개소, 안교생수 56,668명, 십일조 2,469,919,438원, 교역자수 1,718명이었다.[1] 그 다음 해인 1984년 11월 3일에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만 2천여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선교 80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되었다. 한국 재림교회의 자립 시대의 개척은 원동지회 내에서 첫 번째로서 한국재림교회의 가시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2]

교회의 발전은 곧바로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불안정과 학원의 소요 사태로 인해 교육 환경은 비록 어수선했지만 삼육대학은 교단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확장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특별히 대학 확장의 기폭제가 된 것은 간호학과에 이어 경영학과와 약학과의 신설이었다. 이를 계기로 학생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학은 확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 학과(경영학, 약학)의 개설과 대학원의 신설(1978~1981)

삼육대학은 1978년부터 1981년까지 3년 동안에 모두 5개 학과를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학교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는 폐과되었다. 당시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는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았다. 각 학과별 입학정원이 2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의 통계에 따르면 학생수가 가정교육과는 5명, 농업교육과는 19명에 불과했다.[3]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좀 더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학과 못지않게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과로 경영학과와 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이후에 학과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1) 가정교육과 폐과와 경영학과 개설(1978)

1978년 1월 11일 대학은 가정교육과를 폐과하고 대신 경영학과를 신설하도록 인가를 받았다. 원래 입학정원을 50명으로 신청을 했지만 30명의 인가를 받았다.[4] 이

---

[1]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6.
[2]오만규, "재림교회 과거 10년과 10년 앞의 선교 100주년," 교회지남, 1994년 9월호, 11.
[3]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6.
[4]삼육대학 요람(1978~1979): 31, 51.

로써 1978년부터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입학을 받지 않고 대신 경영학과 학생들의 입학을 받았다. 개설 첫해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22명이었는데 모두 남학생들이었다.[1] 초대 학과장에는 왈라왈라 대학교(B.A.), 앤드루스 대학교(M.A.), 로렌스 대학교(Ph.D.)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내한한 버제스 박사가 임명되었다.[2] 그러나 그가 6개월 만에 귀국하게 되자 알프레드 버딕(Alfred W. Burdick, 배일덕) 교수가 9월 28일에 내한해 학과장을 대신 맡게 되었다.[3]

삼육대학에 경영학과가 신설된 것은 한국 경제의 일군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 재무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선교, 교육, 의료, 식품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전개되었고, 그 각각의 사업장에 전문적인 재무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교단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 삼육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했다. 이에 경영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경영인들을 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농업교육과 폐과와 약학과 개설(1979)

경영학과가 개설된 이듬해인 1979년에는 약학과가 개설되었다. 문교부는 삼육대학의 요청에 따라 1978년 10월 7일에 농업교육과 대신 입학정원 30명의 약학과를 개설하도록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1979년 3월 1일부로 약학과에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약학과는 모집 첫 해에 정원에 2명이 모자란 28명이 입학을 했으며, 이듬해부터는 30명 정원이 모두 채워지는 등 개설 첫해부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로 자리매김하였다. 약학과의 초대 학과장엔 이종화 교수가 임명되었다.

삼육대학에서의 약학과의 의미는 다른 학과들 못지않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그렇듯이 약학과 역시 삼육교육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설된 학과였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재림교회가 이 분야에 더욱 더 전문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약학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경영학과가 전문적인 재무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했던 것처럼 약학과는 재림교회의 건강원리를 한국 사회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다. 물론 약학이라는 전문 영역을 통해서도 사회 보건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자명했다.

삼육대학에 약학과가 개설됨으로써 대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교육 100년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1980년대를 지나서 1990년대

---

[1]"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6.

[2]버제스 박사는 1973년 9월 1일 내한하여 4년 10개월간 삼육대학 교수로 봉사하다가 1978년 7월 12일에 귀국하였다. 교회지남, 1978년 9월호, 18.

[3]교회지남, 1978년 12월호, 42.

에 이르면 대학 간의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각 대학이 정체성을 유지한 채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약학과는 삼육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삼육대학이 확장 및 발전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약학과의 개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영학과와 약학과의 증설로써 삼육대학의 학생수는 200명대에서 300명대에 이르게 된다. 1978년 239명이던 대학의 학생 수는 1979년에는 337명으로 늘었고, 1980년에는 다시 448명으로 증가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면 간호전문대학과 농업전문대학을 포함해 학생수가 758명에 이르게 된다.[1] 1970년대 중 후반의 400~500명대에 이르던 것에 비해서 학생수가 매년 100여 명씩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학생수 증가 현상은 1981년 새로운 학과들이 계속 개설되면서 가속화되어 삼육동의 전체 학생수가 드디어 1천 명을 넘어서게 된다.

3) 영양학과, 화학과, 음악교육과의 개설(1981)

1981년에는 세 개의 학과가 동시에 새로 개설되기에 이른다. 영양학과와 화학과와 음악교육과가 바로 그 학과들이다. 학과 증설을 신청하여 1980년 10월 2일에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 학과들의 입학정원은 영양학과 40명, 화학과 40명, 음악교육과 40명 등 모두 120명에 이르렀다. 초대 학과장엔 영양학과 송숙자 교수, 화학과 이규봉 교수, 음악교육과 조문양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학과의 개설과 함께 1981학년도에 입학생들을 뽑아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첫 해에 입학한 학생수는 영양학과 48명, 화학과 42명, 음악교육과 17명 등이었다. 영양학과와 화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생수가 정원보다 많았지만 음악교육과는 첫 해만큼은 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였다. 다른 두 과의 경우 입학정원보다 학생수가 많았던 이유는 정부가 시행한 졸업정원제 때문이었다. 정치적인 격동의 와중에서 제5공화국이 탄생하기 직전에 정책을 주도했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2]는 입시를 위한 과열된 과외현상을 막기 위해 1980년 7월 30일에 대학입시제도 개혁안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는 등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입학정원보다 신입생의 수를 일정 수만큼 더 많이 뽑는 졸업정원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졸업정원제는 대학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과열된 입시경쟁을 막고,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며, 대학의 면학분

---

[1]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83년도, 6.

[2] 1980년 5월 3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통령 최규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질적인 통치 조직이었다. 그러나 실세는 13개 분과위원회를 지휘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있었는데 이 직분은 전두환 보완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이 맡아 실질적인 권력인수를 가시화했다. 천금성, "국보위 설치와 5공 탄생 내막," 다리 25 (1989): 88-109를 참조하라.

위기를 조성하는 등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1] 이 제도는 1985년에 이르러 학생초과모집 비율을 대학별로 자율화함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30%의 초과 모집에 따른 졸업 사정의 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30%씩 초과 모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삼육대학도 이 제도로 인해 학생수가 급격하게 늘어 1981년에는 1천명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4)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1981)

1981년도에는 3개의 신설학과가 증설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과들의 입학정원도 증원되었다. 문교부는 1981년 11월 13일에 삼육대학의 3개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전문대학에 농업기계과(40명)와 농업건축과(40명)의 신설을 인가해 줌으로써 대학의 확장을 도왔다. 정원이 증가된 학과는 신학과(30명에서 50명), 경영학과(30명에서 40명), 영어영문학과(40명에서 50명)였다. 학과의 증설과 졸업정원제로 인해 1981학년도의 학생 모집은 신학과 65명(50명), 영어영문학과 65명(50명), 간호학과 41명(30명), 경영학과 52명(40명), 약학과 41명(30명), 영양학과 52명(40명), 화학과 52명(40명), 음악교육과 52명(40명) 등 입학정원만 총 420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2]

이렇게 입학정원수가 확대됨에 따라 1981년도의 학생수가 대학 715명, 간호전문대학 93명, 농업전문대학 244명, 대학원(신학과) 11명 등 총 1,063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삼육대학은 확장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학생 수의 급격한 변화는 다음의 통계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0] 학생수(1978~1987)

구 분	1978	1979	1980	1981	1982
대 학	239	337	448	715	1,000
대 학 원				11	20
간호전문대학	115	89	89	93	126
농업전문대학	268	259	221	244	256
계	622	685	758	1,063	1,402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대 학	1,221	1,389	1,405	1,418	1,433

[1]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476.

[2]( ) 안은 졸업정원 숫자임. 교회지남, 1981년 10월호,

대 학 원	19	19	20	21	22
간호전문대학	126	131	129	130	133
농업전문대학	272	301	274	259	325
계	1,638	1,840	1,828	1,828	1,913

대학 확장의 시기인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삼육대학을 비롯해 삼육동 안에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은 2천여 명이 이를 만큼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당시의 종합대학교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면서 시작된 삼육대학의 역사에서 볼 때는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1981년은 삼육대학이 개교 75주년을 맞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대학이 본격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학장이었던 김종화 박사는 "개교 75주년을 맞는 감회"를 피력하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육 분위기가 계속 개선되고 학교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뒤에서 지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도 했다.[1] 이 시기에 삼육대학은 확실히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들었다.

5) 대학원 신설(1981)

대학의 확장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원을 신설한 것이었다. 삼육대학은 1980년 11월 3일에 대학원 신학과를 인가받아 이듬해인 1981년 3월 1일부터 신학석사 과정에 20명(재적인원)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2] 대학 이사회에서는 1978년에 삼육대학에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신학과, 연구과, 계절대학원을 두고 운영하고자 계획(78-177)[3]하였으나, 이듬해 당초의 계획을 바꿔 대학에 대학원을 신설하고 신학과, 영문학과, 간호학과 등 3개 학과의 석사과정을 운영하기로 결의(79-176)하고 대학원 설립을 신청했다.[4]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신학과 석사과정 하나만을 인가해 줌으로써 당분간 신학과 과정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삼육대학은 재림교회 학교로서 신학대학원 설립시 대총회의 인가도 받아야 했는데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인 1982년에 대총회 평가를 통해 최종 인가를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재림교회 대학의 대학원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5]

대학원의 신설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삼육대

[1]김종화, "개교 75주년을 맞는 감회," 교회지남, 1981년 10월호, 별지.
[2]교회지남, 1981년 3월호, 25.
[3]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78년도, 52.
[4]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79년도, 45.
[5]교회지남, 1983년 1월호, 19.

학 대학원 신학과는 현직 복음사역자들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다 높고 깊고 넓은 지성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세상을 구원해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1] 국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상황에서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은 문교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삼육대학의 대학원 개설은 시의적절한 과정이었다. 특별히 재림교회 내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신설을 미룰 수 없었다. 이런 시대적 당위성에 따라서 신학석사과정이 신설됨으로써 삼육대학은 전 세계 재림교회 대학 가운데 대학원 교육과정을 가진 몇 안 되는 대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학원 신학과과정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그와 상당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여 4학기 동안 총 30학점을 이수한 후에 논문을 써서 통과해야만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모집 첫 학기인 1981년 1학기에 11명(남자 10명, 여자 1명)이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1983년 2월 10일에 총 8명이 석사학위를 받고 제1회 졸업생의 영예를 안았다.[2] 1985년에 이르러서는 이수학점을 30점에서 36학점으로 조정하고, 특별히 엘렌 화잇의 저서 연구 3학점과 논문을 6학점으로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원 교육과정은 공동과목 6학점, 성서 원전강독(3), 엘렌 화잇의 저서 연구(3), 연구방법론 2학점, 전공과목 22학점, 논문 6학점 등 총 36학점이 되었다. 이와 함께 논문계획서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논문의 질을 높였으며,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학자들에게는 대학원이 요구하는 선수학점 40학점(22학점에서 40학점 이상으로 조정)을 이수한 후에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필리핀 등 기존의 재림교회 대학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다.[3]

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서 삼육대학의 교육적 위상과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향후 삼육대학교의 교수 요원들로 활동할 인재들도 배출되어 여러 모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원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삼육대학의 교육은 비로소 고등교육의 전 영역을 아우르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학과 석사과정을 이끌만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수진들의 충원이 절실한 과제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

[1]신현철, "대학원교육," 교회지남, 1982년 10월호, 별지.

[2]삼육대학 대학원 신학과의 제1회 졸업생은 강상진, 김기곤, 김상래, 도현석, 박희종, 장정자, 최수동, 한성보 등 총 8명이었다.

[3]"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3.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1] 특별히 대학원이 신설되자마자 지원자가 많아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적 정원을 20명에서 더 증원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였다. 삼육대학 대학원은 초창기의 이런 과제를 안고 충실하게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석사학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새로운 학과를 대학원에 신설해 대학원 자체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원의 신설은 삼육대학의 교육영역의 확장은 물론이고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학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학원마저 신설됨으로써 삼육대학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당당하게 교육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시설들의 건축(1980~1986)

1980년대 들어서서 대학의 확장과 더불어 중요한 건물들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삼육대학교의 건축사를 정리하면서 박채운 장로는 이 시기를 "대망의 80년대 건축의 전성기"라 명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삼육대학교 개교 90년사에서 가장 넓은 연면적의 건축과 단일 건물로도 제일 큰 건물들이 탄생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삼육대학은 가장 규모가 큰 건물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건물들을 건축함으로써 대학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렇듯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학이 확장하게 된 것은 1978년에 이어 1983년에도 학교 시설 용지를 추가로 허가받았기 때문이었다. 삼육대학은 1983년 11월 15일 서울시 고시 제355호로 학교 시설 용지 추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시설용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① 공릉동 26-21, 대학 기존 용지를 합하여 150,213m^2(45,439평).

② 공릉동 26-38, 한국삼육중고교, 12,881m^2(3,896평).

③ 공릉동 26-39, 태강초등학교, 6,482m^2(1,961평).

학교 시설 용지는 이렇게 분할되어 각각 초·중고·대학교가 별도의 소유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허가받은 용지 위에 필요한 대학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대학 확장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확장의 역사는 1974년도에 선교70주년기념관으로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대학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1]신현철, "대학원교육," 교회지남, 1982년 10월호, 별지.
[2]박채운, 79.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50.

1) 선교70주년 기념관(대강당) 건축(1980)

이미 살펴본 것처럼 1974년에 대학의 지도자들은 삼육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대학의 교회가 될 강당 건축을 계획하고 선교70주기념관으로 대학교회를 짓도록 한국연합회의 결의를 받았다. 특별히 이 역사적인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호소하고 수확운동 자금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지나가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부지확보 및 자금 마련 등의 문제가 겹쳐서 건축 과정이 여의치 않게 되고 해가 바뀌게 되자 건축에 대한 의지는 점점 사라져 갔다.

선교70주년 기념관 건축에 대한 의지가 다시 재개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다. 1년 전에 삼육대학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부지들에 대한 "대학시설 용지 지정고시"를 받은 후 사무엘관을 건축하였다. 그 후에 강당 건축을 위한 설계를 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웠던 시대였다. 대학 내에서 건축을 하려면 적어도 건축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한 기관만도 3군데(군부대, 육군사관학교, 안전기획부)나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을 하는데 3~4개월이 소요되었다. 여기에 구청(3~4개과 경유), 시청(2~3개과 경유), 건설부(2개과 경유),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다.[1] 그러나 대학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과정들을 잘 경유하여 결국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선교70주년 기념관(대강당) 기공식은 1979년 6월 7일 12시에 거행되었다. 당시 경과보고에 따르면 대학은 1979년 6월 4일에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 날인 6월 5일에는 대총회로부터 건축허가의 전보를 받아 그 이틀 후인 6월 7일에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이었다.[2] 기공 당시 건물의 규모는 수용인원 2,500여 석이었으며, 지하층에는 한국선교 기념박물관, 회의실 및 부속실을 만들고, 1층에는 1,600여 좌석과 목사실, 관리실, 화장실 및 로비로 꾸며지며, 2층에는 900여 좌석과 귀빈석, 자모실 등을 갖추고, 3층에는 영사실 등을 만들어 교회 예배와 기타 강당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특별히 대학교회로 활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강단에는 침례조가 설치될 예정이었다.[3] 원래 초기의 설계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었지만

---

[1]당시 실무자들의 말로는 이 모든 기관들 중에서도 수도권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박채운, 79.

[2]김홍량, "대학교회 기공식," 교회지남, 1979년 8월호,

[3]상게서.

김종화 학장 등 당시 대학 운영자들의 비전에 따라 3천 석 규모의 대강당 설립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러한 규모가 되었다. 당시 건축을 총괄한 김홍량 총무처장의 기록에 따르면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갑자기 규모를 늘리게 되어 설계를 다시 하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대강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한다.[1] 당시 학생수가 6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 행정자들은 조만간 대학이 이만한 학생들의 규모를 가진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에 걸 맞는 건물을 짓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 비전은 주효했다. 이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대학은 2천 5백여 명의 학생을 거느린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전을 가지고 큰 규모의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건축 재정으로는 선교70주년 기념 안식일 헌금 및 그 외에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 모양을 만드는 일만도 벅찼다. 그런데 여기에 3천여 석의 좌석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난감한 일이었다. 의자 한 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10,000원씩 들었기 때문에 3천 석의 의자를 놓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학에서는 한국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의 성도들과 해외의 교인들에게 의자 헌납을 받기로 하고 교회지남과 서신 등으로 대강당 의자 헌납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각 기관과 합회별로 표준이 할당되었는데 대학은 500개, 동중한합회 800개, 서중한합회 700개, 영남합회 500개, 중서합회 300개, 호남합회 200개 등의 표준으로 제시되었고 본격적으로 의지 헌납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197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의자 헌납이 이루어져 1980년 12월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의자 헌납에 동참해 모두 1,917석을 헌납 받아 강당에 설치하기에 이르렀다.[2]

이런 감동적인 과정으로 선교70주년 기념관(대강당)이 건축되어 1980년 9월 25일에 드디어 준공 및 개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3] 대강당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슬레이트 건물로 총 3098.25m^2(약 940평, 지하 636m^2, 1층 1,581.95m^2, 준2층 234.50m^2, 2층 645.80m^2)에 총 공사비 553,383,000원이 소요되었다. 연합회 지원금과 교인들의 헌금 외에 나머지 자금들은 모두 학교 실업부의 수익금으로 충당했는데, 건축사업 일체를 정광석 장로의 감독 아래 학교 직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재정으

---

[1]김홍량, "나의 삼육동 시절," 삼육동 이야기, 247, 248.

[2]의자 헌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육대학 11,041,475원(555개), 동중한합회 11,441,600원(572개), 서중한합회 9,004,036원(450개), 영남합회 1,945,000원(97개), 중서합회 1,900,000원(95개), 호남합회 1,695,000원(84개), 해외동포 1,284,680원(64개), 합계 38,312,091원(1,917개). 대강당 의자에는 헌납자의 이름(R73번까지)을 기록했다. 박채운, 83, 84.

[3]교회지남, 1980년 12월호, 42.

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사람이 감전사고로 참변을 당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하였던 사건과 현관 등을 달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청년이 허리를 다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전기업자와 학교 측에 각각 1,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의 보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 역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등의 우여 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삼육대학의 예배 및 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다. 특별히 본 건물은 문화행사를 위한 강당으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이는 건축 실무자들이 강당을 지을 때 태릉선수촌, 세종문화회관, 세종대학, 국립극장, 이화여대 강당 등을 순회한 후 장점만을 따가지고 내부 및 천정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1] 강당의 건축으로 삼육대학은 규모가 가장 큰 교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2) 도서관 건축(1984)

도서관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삼육대학 역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삼육신학대학 시절인 1962년에 2층짜리 건물의 도서관을 건축하여 학생들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도서관은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육대학 학문의 중심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학과 및 학생수의 증가와 함께 대학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은 너무 작고 비좁아 새로운 도서관 건축이 필요로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학교회(대강당) 건축과 함께 도서관 건축을 대학 확장의 핵심과제로 여기고 도서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왔다.

1960년대에 도서관을 건축한 이후에는 주로 도서관 장서보유량 확충에 힘써왔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1971년도에 문교부가 요구하는 도서량은 20,000권이었지만 실제로 대학의 도서 보유량은 13,545권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꾸준히 도서 확충을 추진한 결과 1974년까지는 17,179권의 도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수량은 여전히 삼육대학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숫자였다. 1974년 이후 도서보유량은 다음과 같다.[2]

[표 61] 도서 보유량(1975~1978)

연 도	도서수량	증감량	비 고
1975	19,064	1,885	
1976	22,600	3,536	
1977	25,636	3,036	

[1]박채운, 83.

[2]"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7회 총회보고서, 1978년도, 3.

1978	27,446	1,810	

위의 표는 삼육대학이 본격적인 확장의 시기로 나아가는 1978년에도 여전히 3만 권 미만의 도서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어 자료 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소장된 자료들의 노후화로 인해 최신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였다.[1] 장서보유량의 문제 이외에도 효율적인 자료 활용을 돕기 위한 기계화된 도서정리 시설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족한 서고와 열람실의 확장 역시 매우 절실한 과제였다.[2]

이 세 가지 과제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삼육대학 도서관이 안고 있던 중요한 과제였다. 대학은 우선 도서 확충을 위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1976년도에 "개교70주년 기념도서" 기증 캠페인을 벌여 전국의 교인들로부터 서적, 자료 또는 자금 등을 기증받기도 했다.[3] 이렇게 해서 1976년과 1977년도에는 도서 증가량이 3천 권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서 대학 행정자들은 도서 자료를 확충하는 것을 포함해서 삼육대학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980년 대강당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는 대학의 중앙도서관 건축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1983년 6월 14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23일에 기공식을 가진 후 도서관 건축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4]

중앙도서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6,025.20m^2(연건평 1,825평)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건축 공사비는 총 1,315,391,000원이 소요되었다. 11개월여의 공사 기간 끝인 1984년 7월 25일에 우유처리실과 함께 준공된 본 도서관은 건축 당시에 지하는 열람실 및 자료보관실, 1층은 대출대 및 자유열람실, 2층은 서고 열람실, 3층은 참고 열람실로 개관되었다.[5]

도서관의 부지는 주로 딸기, 채소 등을 심는 넓은 밭이었기 때문에 건축 당시 물이 많은 곳이었다. 이곳에 튼튼한 기둥을 박고 기초를 다진 후 건축을 하게 되었다. 건축 당시 단과대학에서 가장 넓고 좋은 도서관을 짓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학의 심장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건축이 완료된 후 건물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할 서적 등 자료들도 확충하여 1984년 당시 5만여 권의 장서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 도서관 자료보유량은 다음과 같다.[6]

---

[1]이기돈, "도서 기증을 바랍니다" 교회지남, 1976년 8월호, 11.

[2]상게서.

[3]상게서.

[4]이 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도서관, 실습장, 수위실, 기숙사, 강의실, 학생휴게실, 교수연구실, 강당 등이었다. 교회지남, 1983년 9월호, 19. 기공식은 유가공실습장과 함께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회지남, 1983년 11월호, 40.

[5]교회지남, 1984년 10월호, 17.

[표 62] 도서관 자료 보유량(1984~1987)

구 분	1984	1985	1986	1987
단행본	39,764	44,853	55,428	61,957
참고도서	4,298	5,032	5,307	5,940
잡 지	385	355	374	417
논 문	6,560	6,305	11,403	12,187
합 계	51,007	56,545	72,512	80,501

그 후 장서의 수량은 계속 증가하여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는 1996년에는 1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300여 석의 열람실을 갖춘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1]

3) 유가공실습장(1984)

유가공실습장의 건축은 모든 과정이 중앙도서관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두 건물은 동일한 설계사(안문효 선생)에 의해 같은 시기에 설계되었고, 기공과 준공도 같이 이루어졌다. 유가공실습장은 철근 콘크리트 골 슬레이트 와즙 슬라브로 된 실험실습장으로서 총 1778.70m^2(지층 459m^2, 1층 886.50m^2, 2층 433.20m^2)에 이르는 규모로 공사비 388,098,270원을 투자하여 건축하였다.[2] 이 유가공실습장은 낙농과(후에 응용동물학과 등)의 실험실습장이면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삼육대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실업부의 중심 기관이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이 공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되었다.

유가공실습장의 건축은 대학 실업부에 속한 목장 및 유제품 생산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였다. 헤일리 교수의 기록을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1981년 들어서 대학 우유의 일일 생산량은 이미 50,000kg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처럼 발전하는 우유처리 공장을 위해서 유가공실습장의 건립은 매우 긴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은 대강당과 도서관 등 삼육교육을 위한 핵심 시설을 건립한 후 강의동과 기숙사보다도 먼저 유가공실습장을 건립하게 되었다. 우유공장의 시설을 확충한 후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대학 확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노력이 주효하여 대학은 1980년대 후반에도 계속해서 교육시설들을 확장시켜갈 수 있게 되었다.

4) 대학 2차 건축 공사 완공(1985)

대강당 및 도서관과 유가공실습장에 이어 정문과 학생회관, 강의동 및 과학관이 연

6"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6.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50.

2박채운, 86, 87.

이어 건축됨으로써 대학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 1984년에 도서관 및 유가공실습장이 준공되자마다 대학은 또 다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1984년 4월 4일에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학의 제2차 건축 공사를 일컬어 김종화 학장은 또 하나의 도약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1985년 2학기부터 사용하기 위해 시작한 건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첫째로 정문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아름다운 화강암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상 3층 450평 규모의 학생회관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간 많을 불평을 겪었던 학생식당, 교수식당, 매점, 회의실 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는 지상 3층 880평의 강의실을 짓게 되며, 지상 3층 1,082평의 과학관(각종 실험실)을 짓게 됩니다. 모두 1년 안에 완공될 것입니다.[1]

개교 80주년을 2년 앞두고 삼육대학은 외형적인 확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건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1년 뒤인 1985년 8월 19일에 대학의 2차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일제히 준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2] 2차 공사의 건물 설계는 안문효 선생, 시공은 주식회사 금강이 일괄적으로 맡아서 시행하였다. 이 때 완공된 건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① 에스라관(강의동):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지어진 강의동으로 총 2800.23m^2(지층 297.36m^2, 1층 855.29m^2, 2층 828.29m^2, 3층 819.29m^2)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건축비는 857,540,000원이 소요되었다. 이 건물은 1992년 7월 22일에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4층에 435.84m^{2}를 증축하여 오늘에 이른다. 에스라관으로 명명된 이 강의동은 산업미술과, 재활치료학과, 간호학과 등이 실험실과 강의실로 사용하였고, 지금은 3, 4층을 간호학과가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과학관(실험동):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강의실(가동) 실험실 건물로 지층 905.28m^2, 1층 910.35m^2, 2층 911.25m^2, 3층 911.25m^2 등 총계 3638.13m^{2}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건축비는 813,405,000원이 소요되었다. 과학관 역시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1985년 8월 19일에 준공하였지만, 최초의 설계와 달라져 1987년 9월 23일에 제2차 설계변경을 허가받았다. 원래는 에스라관과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지어지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가 답답하여 약간 떼어서 건축하므로 학교 용지 밖으로 1/4정도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과학관은 지하에 식품영영학과와 조리실, 1층은 식품가공과와 생물학과, 2층은 화학과와 원예학과 실습실, 3층은 약학과 등의 실험실과 실습실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제2과학관이 준공되면서 학과 실습실이 나뉘게 되었다.

---

[1]김종화, "도약의 80주년을 향하여," 교회지남, 1984년 10월호,
[2]교회지남, 1985년 9월호, 27.
[3]박채운, 91~98.

③학생회관: 가옥대장에 학생휴게실로 등재되어 있는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오랜 바램의 결실이었다. 학생들은 1970년 학생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손수 100만 원 모금 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1]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74년 7월에 대학 소강당(chapel) 옆에 학생회관이 건립되었다.[2] 그러나 이 건물은 너무 작아서 학도호국단 임원들이 모여서 활동할 정도의 공간 밖에는 되지 않았다. 대학이 확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휴게실 및 식당 등을 갖춘 학생회관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학은 에스라관 및 과학관과 함께 학생회관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학생회관은 철근 콘크리트 조 학생휴게실로 등재되었으며 지층 67.50m^2, 1층 619.65m^2, 2층 386.10m^2, 3층 355.50m^2 등 총계 1428.75m^2(430여 평)의 규모로 총공사비 336,853,000원이 소요되었다. 1층은 학생식당과 매점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총학생회와 여학생회, 대의원 사무실, 서점 등으로 사용되었고, 3층은 학생처와 교직원식당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위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축소된 상태로 건축되었는데 건설부 심의 때 10년 후 가상 학생수와 대학 설치기준을 맞추어 건축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조절한 것이었다.[3] 나중에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건물의 증축이 필요하게 되어 중간의 열린 천정을 막고 시설을 늘려 좀 더 효율적인 학생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정문: 정문과 수위실은 54m^2의 규모에 약 1천5백만 원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로 건축하였다. 대학의 얼굴답게 전체를 대리석으로 지어서 밖에서 볼 때 세련되고 아름다운 대학의 이미지를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제2차 건축공사가 완성되자 삼육대학의 외형적인 확장은 두드러졌다. 기본적인 건물과 각종 서비스시설 면에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이 외형적으로 확장된 것은 결국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대학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학생수의 증가와 외형적인 시설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삼육대학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교 80주년은 삼육대학의 발전기를 맞이하는 기념식이 되었다.

3. 학생들의 활동영역의 확장

대학이 확장 발전하던 1980년대 들어서 학생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학생 자치기구(총학생회)의 부활, 동아리 활동의 강화, 학생들의 개인 활동 등이 이 시기를 특징짓는 학생활동들이었다.

---

[1]교회지남, 1970년 7월호, 40.
[2]교회지남, 1974년 9월호, 34.
[3]박채운, 97, 98.

1) 학생자치기구의 부활(1985)

학생 자치기구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1961년이었고, 1975년부터는 정부의 학원 병영화 정책에 입각한 학도호국단제도가 만들어져 학생회 조직을 대신하였다. 학도호국단 제도는 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학년 단위로 묶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학과 중심의 단위 활동은 불가능했다. 일체의 학과 단위 활동은 학교의 사전 승인 및 간섭 아래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들어서 정부는 학과 단위의 자치 활동은 허용하도록 제도를 규정해 대학에서 각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활동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1975년 학도호국단 제도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던 학회 활동이 5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삼육대학도 1980년 3월 중순부터 4월 7일까지 학회장 선거에 돌입해 당시 6개 학과의 학회장들을 선출하였는데 신학회장 이경우(4), 영문학회장 김용권(4), 농업교육과 학회장 정영성(4), 간호학회장 김순미(4), 경영학회장 옥태훈(3), 약학회장 전병관(2) 등이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1]

학회의 구성에 이어 총학생장 선거도 이어졌다. 원래 학도호국단 제도 아래서는 학도호국단장을 학교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학들이 점점 자율화 되고 각 학과의 학회들이 구성됨에 따라서 학도호국단장은 각 학과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총학생장이라는 이름으로 선출되었다.[2]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학도호국단 제도의 폐지와 학생 자치기구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대의를 실현하게 해 주었다. 학도호국단 제도의 폐지는 5공화국 출범 이후 잇따른 학원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3월 1일 학원의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학도호국단 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조직 및 활동이 부활되었다.

삼육대학 학생 자치기구인 자치 총학생회는 1985년 6월 3일 총학생장 투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회 회칙 등 관계 규정을 만들어 놓고 5월 9일에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르고자 했지만 회칙의 제정 과정과 몇몇 조항의 문제를 조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한 달여가 늦춰진 6월에 학생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3] 이렇게 다소 험난한 과정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김대영(경영 3), 왕재희(화학 3) 두 학생이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당선되고, 송재숙(영양 3) 학생이 여학생회장이 당선됨으로써 자치 총학으로 부활된 첫 해의 총학생회(제27대)를

---

[1]삼육학보, 1980년 4월 15일자, 1.
[2]삼육학보, 1982년 7월 15일자, 1.
[3]삼육학보, 1985년 5월 10일자, 1.

구성하게 되었다.[1]

총학생회의 부활과 더불어 그해 11월 4일에는 본 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본의 국경일 중의 하나인 메이지절(明治節)을 맞이하여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에 대한 왜곡 보도에 항의하면서 궐기한 광주고보 학생들의 항일투쟁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3년 10월에 국회가 정식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의 날은 20년 후인 1973년 유신정부에 의해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가 1984년 5공화국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시 기념일로 부활하였다.[2] 이에 총학생회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4일 월요일 채플시간을 통해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3]

2) 동아리 활동의 강화[4]

1980년대 학생 활동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동아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었다. 삼육대학의 역사 속에서 동아리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동아리는 1960년도에 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밀알회라고 볼 수 있다. 밀알회는 197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실로암회로 개명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동아리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태능직업소년학교를 운영하고 야간학교 및 일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동아리였다.

밀알회에 이어 오래된 동아리들로는 등불회, 사랑의 손길, 일곱빛 등이 있었다. 등불회는 대학 내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71년에 만들어진 동아리로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랑의 손길은 장애인 봉사동아리로 1970년대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삼육재활원, 천혜원, 문혜원 등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히 사랑의 손길은 방학 때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축제 및 여행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일곱빛 역시 1970년대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활동하는 동아리로서 주로 맹인과 농아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곱빛은 그룹홈, 맹인·농아인 교회 등을 세우는 등 시각 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대학 초창기에는 이런 신앙 및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한편 대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가 형성되면서 동아리

---

[1]삼육학보, 1985년 6월 3일자, 1.
[2]국회, 국회사:122회(임시회) (서울: 국회사무처, 1984), 79, 80.
[3]삼육학보, 1985년 11월 14일자, 1.
[4]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삼육학보, 1982년 7월 15일자, 3.

활동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솔성학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동아리는 문학 및 신앙 동아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솔성학과와 같이 학술 및 문학 활동을 추구하는 동아리들로는 타임, 일어클럽, 생약반 등이 있었다. 그리고 테니스클럽과 같은 취미 동아리들도 속속 조직되었는데 등산부, 사진반, 무선 아마추어 햄, 유스호스텔 등이 여기에 속하는 동아리들이었다. 그 외 전문 및 소양반으로 합창단, 서도학회, 구일회 등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적 배움의 길을 열었다.

3) 학생 도보 국토순례(1985)

1985년 여름에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병기 학생은 혼자서 도보로 국토순례를 다녀와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 졸업반으로서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 등과 같은 많은 주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전국 도보순례에 나선 정병기 학생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43일동안 국토 일주 순례를 단행하였다.

삼육동의 오얏봉을 기점으로 서울-공주-전주-하동-부산-포항-설악산-서울을 거쳐 다시 오얏봉으로 이어지는 1332km의 구간을 332시간에 걸쳐서 도보로 여행한 그의 순례는 삼육대학 학보사와 NIKE(주) 화승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이 감동적인 순례 여행 소식은 당시의 신문들(스포츠 서울, 기독신문)과 KBS, MBC 라디오 및 각종 월간 잡지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삼육대학과 삼육학도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1]

여행을 마치면서 남긴 그의 기록은 삼육대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삼육학보에 게재된 "국토순례여행기"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이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볼 때 이번 여행의 경험은 나의 내적 성장에 보이지 않는 지속적 영향을 주리라 느껴진다."[2] 삼육교육은 그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40여일 간의 순례의 길은 삼육교육이 걸어온 역사의 길과도 같다.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과 사회의 내적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정병기 학생의 도보순례 여정은 그렇게 삼육교육의 길을 대변해 주고 있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 그와 같이 1980년대 삼육대학의 학생들은 교육의 정신을 구현하는 개인적

---

[1]삼육학보, 1985년 9월 3일자, 1.

[2]정병기, "국토순례여행기," 삼육학보, 1985년 10월 17일자, 6.

인 활동을 위해 열정을 바쳤다.

4) 버스 노선 확대를 위한 운동(1985)

1980년대 학생들의 활동 중에는 등하교시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한 운동도 전개되었다. 1985년에 이르러 대학생들이 1,500여명이 이르게 되자 등하교시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여기에 한국삼육중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과 태강초등학교 학생 180여 명이 가세하였고, 인근 주변에 서울여자대학과 한국체육대학 등도 함께 있어 등하교시에는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였다. 특별히 이렇게 학생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오는 노선버스는 45번과 745번(좌석) 밖에 없었다.[1]

당시는 45번 버스 약 50대와 745번 좌석버스 10대가 삼육대학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전부였다. 따라서 등하교시에는 이미 청량리부터 만원이 되어 중간노선에 있는 학생들은 택시를 타고 등교를 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특별히 육군사관학교입구에서 조차도 좌석버스를 타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대학에서는 석계역과 본 대학을 연계하는 38번 시내버스를 유치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버스 노선 연장 및 등하교시의 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게 되었다.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5년 여름방학부터 15-1번 노선이 신설되었다. 이 버스는 하계동에서 종암동, 시립대를 거쳐 삼육대학 정문까지 운행되었다. 배차간격은 7분이었고 저녁 10시 30분에 막차가 운행됨으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2]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 서무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11월 1일부터 803번 노선을 또 다시 유치하게 되었다. 이 버스는 삼육대학을 기점으로 외대앞-경희대-과학기술원-고대앞-길음동-동덕여대로 이어지는 대학 노선 버스였다. 803번 노선의 신설과 더불어 745번 좌석버스도 육사입구에서부터 대학까지는 학생 회수권으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고, 38번 버스도 계속 연장 운영하는 등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불편은 좀 더 개선되었다.[3]

그러나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주변 지역도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발전함에 따라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대학에서는 통학버스를 구입해 운영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대학의 확장에 따른 결과였다.

---

[1]삼육학보, 1985년 4월 2일자, 1.
[2]삼육학보, 1985년 9월 3일자, 1.
[3]삼육학보, 1985년 11월 14일자, 1.

4. 삼육동소식 창간(1982~1985)

대학의 확장과 더불어 학교 내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간 뉴스레터인 삼육동소식(Korean Union College Campus News)이 1982년 1월 1일에 창간되었다. 삼육동소식은 학교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소식들과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학 행정협의회에서는 위의 취지에 따라서 삼육동소식을 만들기로 결의한 후 남대극(교무처장), 이재춘(총무처장), 정순영(낙농과장) 등을 편집인들로 선정하고, 김상래(편집기자), 김기옥(타자), 박홍운(등사) 등을 실무 책임자들로 선정하여 이 캠퍼스 뉴스를 발행하기 시작했다.[1]

뉴스레터는 당시 삼육동에 있던 모든 가족들, 즉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 수위실로부터 학장실까지, 실업부와 교수부, 교회와 가정, 개인과 부서를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한 주간 동안의 소식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작은 소식지는 삼육동의 모든 기록으로 중요한 역사의 보고가 되었다. 편집실은 매주의 소식들을 수요일 오후까지 받아서 목요일에 편집 및 인쇄를 완료한 후 금요일 오전에 전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처음에는 250부를 발행하였지만 나중에는 500부를 발행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삼육동에서 일어난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

삼육동소식은 1장(2면)짜리 뉴스레터로, 1983년 3월 11일에 발행된 제2권 제65호까지는 타자로 출판을 하였으나 제66호부터는 인쇄체제로 바뀌어 외양과 가독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1장(2면)으로 편집되었지만 삼육동을 넘어서 교회의 소식까지 담고 "삼육동 복덕방" 코너까지 마련하여 각종 아르바이트 소식, 음악회 티켓 판매, 다양한 강연회 소식, 부동산 정보까지 삼육동에서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소식지로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가 되었다.

1983년 11월 11일에 이르러 삼육동소식은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였다. 100호를 맞기까지 이 소식지는 "온종일 주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일에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 대화에 소홀키 쉬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아주고, "흩어지기 쉬웠던 삼육동 가족들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묶어" 주었고, "피차 간에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2] 삼육동소식지가 단지 대학 내의 주요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의 소식들까지 알뜰하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호가 발행되

---

[1]삼육동소식, 제1권 제1호, 1982년 1월 1일자. 편집기자는 김상래에 이어 박춘식, 이주환 등 대학원 신학과 학생들이 1년씩 바통을 이어받아 활동하였다.

[2]삼육동소식, 제2권 제100호, 1983년 11월 11일.

는 동안 삼육동소식에는 교사들의 동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활동상황, 전도 결과보고, 건축 공사 진척 현황, 개교기념 행사, 기도주일, 가관식, 음악회, 백일장, 주주총회, 서클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소식들은 물론 복덕방 광고와 기숙사의 ‘벌집 소탕 작전’ 같은 해프닝에 이르기까지 삼육동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친근하게 전달해 주었다.[1] 제100호는 특별판으로 2장(4면)을 발행하였고, 제100호 발간 소식을 교회지남에도 게재함으로써 삼육동소식이 삼육동의 주요 뉴스레터임을 알려주기도 했다.[2] 한편 지령100호를 맞이하여 편집기획을 새롭게 바꾸어 매주별 고정칼럼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매달 첫 주는 삼육동 캠페인, 둘째 주는 삼육동 교수문단, 셋째 주는 삼육동 시상, 넷째 주는 삼육동 학생문단, 그리고 다섯째 주는 삼육동 인물탐방 칼럼이 신설되어 편집되었다.[3]

이 소식지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 발행되어 오다가 1984년 12월 21일에 발행된 제3권 제148호를 마지막으로 학교의 재정 및 기타 여러 이유로 대학 행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휴간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 2월 1일 한 차례 복간되어 제4권 제149호를 발행했지만 이를 끝으로 정간되었다. 이로써 삼육동소식은 좀 더 세련된 형태의 주간 뉴스레터로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사라졌다.

이후 삼육동소식(Sahmyook Weekly News Letter)이란 명칭의 주간뉴스레터가 2002년 2월 21일에 새롭게 발행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 매체의 한글 제호는 80년대 발행된 주간 뉴스레터와 같지만 영문제호가 달라 동일 매체의 복간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2002년 2월 21일 발행된 뉴스레터를 제1호로 다시 정해놓았기 때문에 동일 매체의 복간이라기보다는 같은 성격의 새로운 뉴스레터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삼육동소식은 80년대 삼육동소식이 발행될 당시 편집 책임을 맡았던 당시 남대극 교무처장이 총장이 된 이후에 과거의 경험을 살려 다시 새롭게 발행한 것이었다. 발행의 책임은 기획실에서 맡았고 A4 용지 1장(2면) 분량으로 매주(혹은 무크형태) 발행하여 다양한 삼육동의 소식을 나누는 정감 있는 매체가 되었다. 이 뉴스레터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다.

5. 교수들의 질적 향상

---

[1]상게서. “벌집 소탕 작전”은 1983년 8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에 남대생활관 동명사 뒤쪽에서 김영주(신2), 고순석(낙농1) 등 2명이 땅벌에 쏘여 의식을 잃고 서울위생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김광호 등 여러 학생들이 벌집을 소탕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전 생활관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 주변의 벌집들을 모두 소탕한 사건을 말한다. 삼육동소식, 제2권 제90호, 1983년 9월 2일자.

[2]교회지남, 1984년 1월호, 17.

[3]삼육동소식, 제2권 101호, 1983년 11월 18일자.

1980년대 이전에 삼육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에 불과했다. 클라임스 박사(1964)와 이기돈 박사(1968), 조병서 박사(1977)는 이 시기에 대학을 떠났고 유일하게 남아 있던 김종화 학장(1975)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그러나 1979년에 신현철 교수가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취득하고 6월 21일 삼육대학으로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수들의 박사학위 취득이 이어지기 시작했다.[1]

1980년 2월 25일에는 최이권 교수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2] 1982년에는 박해종 교수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고 8월 3일 귀국했으며, 조영일 교수도 미국 내브라스카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월 31일에 귀국하였다.[3] 한편 정근희 교수와 한상경 교수도 같은 해 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함께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3년에는 김홍량 교수가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4월 11일 귀국하였는데 그는 공석 중이던 교무처장으로 임명되어 학사의 업무를 주관하였다.[4] 같은 해인 1983년 8월 26일에 이강오 교수도 연세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권오달 교수는 경희대학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3월에 하남주 교수가 고려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8월에는 서광수 교수가 경북대학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5] 이렇게 해서 1984년에 삼육대학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총 15명에 이르게 되었다. 계속해서 1985년에 송숙자 교수(중앙대학교, 이학박사), 이상업 교수(Philippine Women's University, Ed.D.) 등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개교 80주년이 되는 해인 1986년도에는 김용환 교수(중앙대학교, 농학박사), 신계훈 교수(앤드루스 대학교, 목회학 박사), 이규봉 교수(숭실대학교, 이학박사), 이숙연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박사), 정순희 교수(경희대학교, 문학박사) 등이 박사학위를 받았다.[6]

이처럼 교수들의 향학 활동으로 인해 박사학위 소지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교수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2~3명에 불과했던 박사학위 소지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삼육대학은 전문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확장 및 발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에 총회 보고서에 나타난 김종화 학장의 보고에 따르면 1987년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21명

---

[1]교회지남, 1979년 8월호,
[2]교회지남, 1980년 5월호, 18.
[3]교회지남, 1982년 9월호, 19; 교회지남, 1982년 10월호, 16; 교회지남, 1982년 11월호, 16.
[4]교회지남, 1983년 6월호, 16.
[5]교회지남, 1984년 9월호, 17.
[6]교회지남, 1986년 5월호, 23.

이며 계속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교수는 국외 6명, 국내 14명, 전부 20명에 이르고 있"다.[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표 63] 학위별 교수수(1984~1987)

학 위	84	85	86	87	내 용
박 사	14	16	18	21	목회학 2, 교육학 4, 법학 1, 이학 5, 약학 1, 농학 6, 영문학 1, 의학 1
박사과정	18	16	16	20	신학 2, 영문학 4, 이학 5, 역사학 1, 간호학 4, 문학 1, 농학 1, 경영학 2
석 사	39	39	36	26	
합 계	71	71	70	67	

교수들의 학위 취득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요소로는 몇몇의 교수들이 헌신적인 교육 활동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이다. 1978년 12월 5일에는 본 대학 실업교육부장으로 20여 년 동안 헌신하고 낙농업 사업 발전에 큰 공헌을 남긴 헤일리 교수가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교육헌장 선포 10주년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았다.[3] 헤일리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으로 한국에 온 후 삼육대학 실업부와 농업교육과의 교수로 수고하여 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교육헌장 반포 제14주년 기념식이 거행된 1982년 12월 5일에는 최이권 교수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최이권 교수는 학생처장으로 여러 해 봉사하여 국민 훈장을 받게 되었다.[4] 4년 후인 1986년 12월 5일에는 김종화 박사가 삼육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종화 박사는 삼육대학장으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 대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남겨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에 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 김종화 학장은 같은 해 6월에는 싱가폴에서 개최된 범 태평양지구 교육행정자 협회에서 삼육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총회 교육부장으로부터 우수교육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5] 1988년에는 김홍량 교무처장이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에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6] 이처럼 교수들이 대내외적으로 교육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삼육대학의 교육 환경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학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

6. 대학 내 영적 프로그램 강화

---

[1]"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1.
[2]상게서, 6.
[3]교회지남, 1979년 3월호, 18.
[4]교회지남, 1983년 2월호, 19.
[5]교회지남, 1987년 2월호, 27
[6]교회지남, 1989년 2월호, 26.

대학의 규모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삼육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재림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육했지만 학교의 발전으로 기독교 신앙적 배경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숫자가 점차로 늘어나면서 영적 발달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였다. 대학이 그 시작부터 강조해 온 공식적인 기독교교육 과정으로는 주 2회 채플, 교양성경 수업, 토요채플(안식일 예배) 등이었고, 매년 정규적으로 2회의 기도주일 운영, 절제회 등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적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1천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영적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삼육교육이 더 강화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대학과 학생회에서는 기존의 영적 프로그램 이외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82년부터 시작된 "삼육동 성경주간"이었다.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1회 삼육동 성경주간은 학도호국단 종교부 주최로 성경 필기시험, 암송대회, 퀴즈대회 등 다양한 성경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채플 시간에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삼육동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84년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3회 삼육동 성경주간에는 두 가 지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그 첫째는 "성경총동원 운동"으로 명명된 것으로 성경주간 동안에 진행되는 두 번의 채플 시간(19일, 22일)에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지참하고 채플에 참석하도록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지참하게 함으로써 "채플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쇄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운동이었다.[1] 둘째는 "성경마라톤대회"였다. 1984년의 성경주간에 처음 실시된 성경마라톤대회는 5일간의 성경주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행사였다. 제1회 성경마라톤대회는 19일 오전 10시 40분에 김종화 학장을 시작으로 하여 부처장들, 교수들, 학생들 등 총 230명이 참여하여 1인당 30분씩 성경을 낭독하여 23일 오후 7시 15분까지 총 104시간 35분에 걸쳐 성경 전체를 낭독하였다. 이 첫 번째 행사에서 낭독된 기념 성경은 대학 교목인 송권 목사에게 헌납되었으며, 헌신 예배에서 학생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함께 낭독함으로써 성경마라톤 행사를 마쳤다.[2]

성경 주간과 성경마라톤은 이듬해인 1985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성경주간은 학생회가 자율총학으로 바뀜에 따라서 학도호국단 종교부가 아닌 신학과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 해에는 신학과 2학년 주최의 삼육동 연합기도회가 새롭게 진행되었고, 총학생회 종교부가 주최한 성경총동원 운동

---

[1]삼육학보, 1984년 12월 14일자, 1.
[2]상게서; 교회지남, 1985년 2월호, 23.

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제2회 성경마라톤 역시 김종화 학장을 시작으로 216명이 참가하여 총 104시간 25분에 걸쳐 성경을 완독하였고 통독이 마쳐진 후 기념 성경은 김종화 학장에게 전달되었다.[1]

성경주간 및 성경통독마라톤 행사는 전통적인 기도주일 외에 영적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끄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삼육동 성경주간은 점차로 사라지고 그 대신 기도주일을 중심으로 한 더 세련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를 넘어서서 1990년대에 이르면 대학 내 신앙 그룹들은 경배와 찬양, 해외선교 등 보다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영적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영적 교육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을 이어갔다.

특별히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영적 교육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예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립을 위한 신앙적 대의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1980년대에 삼육대학과 삼육농업전문대학 내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평균 250여 명이 침례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전체 침례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영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였다.[2]

[표 64] 수침자수 및 침례자 비율(1983~1987)

연도	연내 수침자수			전체수침자수			수침자비율(%)		
	대학	전문	계	대학	전문	계	대학	전문	계
1983			229	934	277	1,211	76	70	73
1984			238	1,127	342	1,469	81	79	80
1985	162	105	267	1,213	375	1,588	86	93	87
1986	160	85	245	1,129	302	1,431	80	77	80
1987	181	110	291	1,119	228	1,347	78	70.1	76.6

침례자 비율은 이 시기를 고비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 후반에는 침례자 비율이 70%대였다가 이 시기에 8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1987년 이후 대학의 확대 및 발전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 비율이 점차로 낮아져 1999년에 이르면 67%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영적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삼육대학은 확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발전기에 이르러 영적인 교육에 대한 강화를 위해 교목실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

[1]삼육학보, 1985년 12월 2일자, 1.
[2]"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7.

7. 개교 80주년 기념행사(1986)

1986년은 삼육대학이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였다. 2년 전인 1984년에 선교 80주년을 맞이해 잠실체조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던 재림교회는 이제 다시 삼육대학의 교육 8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시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개교 80주년 기념호로 발행된 삼육학보의 사설에서 언급되었듯이, 삼육대학은 지난 80년 동안 "주지주의적인 지식 편중의 교육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산 인간 교육, 즉 지, 덕, 체를 원만히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교적 삼육교육을 이 땅에 실현해 왔다."[1] 이 역사적인 시기에 지난날의 과정과 오늘의 영광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 다가올 난관과 도전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웃과 국가가 원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개교80주년 기념식이 10월 7일 화요일에 천보축전 개회식과 함께 대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개회식의 기념사를 통해 김종화 학장은 삼육대학을 한국 근대교육의 여명기에 등장한 교육 근대화의 선구자로 정의하면서 빛나는 교육전통을 세운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빛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2] 한편 삼육학원 이사장인 전병덕 연합회장은 "지난 80년 동안 삼육교육사업을 이끌어 온 교육자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하고 그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삼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3]

기념식을 통해 삼육대학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 후 대학 운동장 및 캠퍼스 곳곳에서는 문화제전의 일환으로 천보축전이 진행되었다. 제27대 총학생회(회장 이국헌)와 각 학회들에서 준비한 천보축전은 체육대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사진전(대학원, 임운경 장로), 모의 주주총회(경영학과), 개교기념 음악회(음악교육과), 자생식물 전시회(원예학과), 영어연극(영어영문학과), 건강식품 전시회(영양학과), 약차전시회(약학과), 낙농기계 전시회(낙농학과) 등의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되었다.[4] 이 외에도 총학생회 각 부서와 동아리별로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는데 행사들을 일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

[1]삼육학보, 1986년 10월 20일자, 2.
[2]상게서.
[3]상게서.
[4]교회지남, 1986년 12월호, 23.
[5]삼육학보, 1986년 10월 20일자, 7.

[표 65] 개교80주년 기념 천보축전 행사 일정

일 정	행사명	행사 내용	주관부서
09.30	모의 주주총회	제6회 모의주주총회(천보자동차주식회사)가 소강당에서 개최됨.	경영학회
10.05	학장배 테니스대회	제5회 학장배 테니스 대회(삼육인 대상)	총학 체육부 보조
10.06	교내 합창 경연대회 종교영화 상영	대강당에서 5개 학과 참가 십계 I	총학 문예부 총학 종교부
10.07	개교80주년 기념식 종교영화 상영 춘계종합체육대회	개교80주년 기념행사, 근속자 표창 십계 II “더불어 하나”	대학 총학 종교부 총학 체육부
10.08	춘계종합체육대회	종합우승: (남)신학과, (여)간호학과 준우승: (남)경영학과, (여)음교과	총학 체육부
10.09	어휘력 경시대회 전통혼례 천보80페스티벌	타임지의 단어 시험 전통혼례식 재현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타임반 여학생회 총학 총무부
10.10	영어 말하기 대회 문예백일장	506강의실에서 10명의 참가자들이 벌인 영어 말하기대회 엘리야관 앞 잔디에서 산문, 운문부 장원 및 입상자 선정	영문학회 솔성학회
10.11	개교기념 예배 초청음악회	김홍량 박사의 삼육교육의 역사와 발자취에 대한 설교로 대강당에서 진행 호산나, 앙겔로스, 뫼울림 등 찬양팀과 4중창, 2중창, 독창 등의 음악회	대학교회 총학 문예부
10.12	학장배 테니스대회	제7회 학장배 동문 및 사역자 초청 테니스 대회	총학 체육부 보조
10.20	영어 연극(12회)	테니스 작 마타치오 연출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공연	영문학회

이 외에도 약학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학회 단독의 약학제를 개최하였다. 6일에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연구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학회들이 본격적으로 학술제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6일부터 10일까지 개교80주년 기념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구 과학관 옆에서 약차 및 생약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10월 9일에는 약학인의 밤을 개최하여 교수와 졸업생, 타대학생들을 포함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식당에서 다양한 친교행사로 진행되었다. 약학제가 마쳐지는 10일에는 한병훈 서울대 약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인삼 연구 제반에 관한 강연을 경청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 이외에도 개교80주년 기념 천보축전 문화 예술제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전시회도 개최되었다.[1]

[1]상게서.

[표 66] 개교80주년 기념 천보축전 문화전시회

전 시 회	장 소	주 관
꽃꽂이 전시회 건강상식 전시회		여학생회
바자회	학생회관 앞	총학 봉사부
식이요법 조리 전시회	영양학과 시식실	영양학회
유제품 및 낙농기계 전시회	낙농과 실험실	낙농학과
식품가공 전시회 식품전시회	과학관 1층 실험실	식품제조과 식품영양학과
자생식물 전시회 압화전 실내원예 디자인전 조경사진전	706 강의실	원예학과
사진전시회	중앙로 옆	사진반
장비전시회	도서실 앞 숲	산악부
약차전시회	구 과학관 앞	생약반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삼육대학 구성원들은 학교가 지난 80년간 자랑스러운 연륜에 따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의 거목으로 성장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80년대 들어서 선교70주년 기념관(대강당), 도서관, 우유처리장, 학생회관, 과학관, 강의동, 정문 등이 건축되고 학생들의 숫자도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확장의 일로에 있는 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이면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도 직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삼육대학은 이제 개교 80주년을 넘어서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도전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이 전 구성원들과 후원자들의 협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해결되면서 삼육대학은 바야흐로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제6장 삼육대학 발전기

(1987~1991)

1987년은 대한민국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진정한 정치 민주주의의 정착과 매년 10%가 넘는 고도의 경제적 성장으로 본격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던 시기였다. 이런 정치 경제적 발전으로 국가 역량이 강화되던 이때, 한국 재림교회와 삼육대학 역시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한다. 국가의 발전과 교회 및 대학의 발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재림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성도 10만을 넘어서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한다. 1990년도에 99,137명이던 교인 수는 1991년에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1966년 이후 침체되었다가 서서히 회복되어 다시 10만 성도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1987년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난 자양연합회의 발전의 결과였다. 한국 재림교회의 발전은 1985년의 평신도실업인협회의 조직, 1987년의 이상구 의사의 건강강의로 인한 뉴스타트 신드롬, 1988년 해외선교회의 조직, 1990년 가정과 건강 잡지 발간 및 기본교리 27의 번역 발간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이룩되었다.[1]

특별히 재림교회의 발전은 삼육대학의 발전에 의해서도 이룩되었다. 이 시기의 삼육대학의 발전은 뚜렷하게 성취되었다. 1991년 12월 3일~7일까지 서울위생병원에서 진행된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에서 보고된 삼육대학의 보고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지난 회기들의 총회 내용과는 달리 대학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교 85주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한 대학의 역사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삼육대학에는 "병설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과 더불어 편제된 16개 학과의 전공교육을 위해 76명의 교수와 59명의 사무직원이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있으며, 실업교육부의 대학식품에는 92명의 직원이 …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학생 수에 있어서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초·중고와 대학을 합쳐 1,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1991년에 이르러서는 4,000명을 넘어서면서 삼육동의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2]

이 시기에 이르러 삼육대학은 학과 및 시설을 좀 더 증설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매우 구체적인 꿈을 꾸기에 이르렀다.[3] 그만큼 대학이 학

---

[1]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미래분과위원회, 미래전략 보고서: Hope21, 하나님 나라의 완성, 2004년도, 14, 15.

[2]"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보고서, 1991년도, 1.

사 행정면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 대학의 확장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인해 이제 삼육대학은 삼육대학교로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 역사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대학의 전 구성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삼육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삼육대학의 발전기에 나타났던 역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980년대 대학 확장 공사의 마무리(1987)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1980년대에 이르러 삼육대학은 대학 확장을 위해 두 단계의 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1단계는 1984년에 준공된 도서관과 유가공실습장을 건축한 것이었고, 2단계는 1985년에 준공된 에스라관(강의동), 과학관(실험동), 학생회관 및 정문을 건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학 확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완료한 것이 아니었다. 2단계 건축사업 계획에 포함되었던 행정관 및 기숙사 건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은 1983년 6월 14일에 도서관과 유가공실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이 두 건축물들이 완성되어갈 즈음인 1984년 4월 4일에 2단계 건축사업을 위해 강의동, 실험동, 학생회관, 정문 및 행정관과 기숙사의 건축을 위해 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된 건축물들 가운데 2단계 건축 과정에서 완공된 것은 이미 언급했던 에스라관, 과학관, 학생회관, 정문 등이었다. 그러나 함께 허가를 받았던 행정관과 기숙사는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학 확장을 이룩할 건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986년 11월 5일에 이르러 행정관과 기숙사의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3단계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두 건축물은 1년 후인 1987년 11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이로써 대학 확장을 위한 신축사업들을 완료하게 되었다.

1) 행정관 준공

행정관은 2단계 건축 공사를 진행했던 안문효 설계사와 주식회사 금강의 시공으로 1986년 11월 5일에 기공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선교70주년 기념관 동쪽, 도서관 북쪽에 위치한 행정관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행정관 및 교수연구실로 등재되었는데, 건물의 규모는 지층 45m^2, 1층 350.35m^2, 2층 426.95m^2, 3층 426.85m^2 등 총 1249.05m^2(378평)이며 총공사비는 455,794,000원이 소요되었다.[1] 건축 당시

---

[3]상게서, 2.
[1]박채운, 99.

의 행정관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1]

[표 67] 행정관의 용도 및 면적(1987)

층수	호 실	면적(m^2)	평 수	공유면적	각층면적
지층	창고	45.00	13.6		45.00
1층	재무실	13.5X10.5=141.75	42	178.21	350.35
	교무처	13.5X10.5=141.75	42		
2층	총장실	6.0X5.5=33	10	131.7	426.85
	비서실	7.5X5.5=41.25	12.5		
	학장실	5.6X5.5=30.8	9		
	회의실	9.0X5.5=49.5	15		
	서무과	7.4X5.5=40.7	12		
	숙직실	2.2X5.5=12.1	3.3		
	교환실	3X8=24	7		
	교수연구실	11.6X5.5=63.8	19		
3층	기획실,3실	3.5X5.5X3=57.75	17.5	80.35	426.85
	교수연구실	3.5X5.5X15=288.75	87.5		

1987년 9월 13일에 준공예배를 들임으로써 삼육대학 행정의 중심이 된 행정실은 1960년 5월에 본관이 건축된 이후 약 27년 만에 새롭게 지어진 본관 건물이었다.[2] 이 건물이 완공되어 행정부서가 완전히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삼육대학은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행정관 건물은 대학 발전의 상징적인 곳이 되었다. 행정관 건물이 완성되고 대학의 본부가 완전히 이전한 이후 이 행정관은 개교 100주년 기념관이 지어지면서 대학본부가 다시 이전하기까지 향후 20년 동안 삼육대학 발전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 되었다.

2) 남녀 신기숙사 준공

학교의 행정적 중심이 될 행정관과 더불어 학생들의 삶의 중심이 될 기숙사가 함께 건축되었다. 대학 내에서 산 쪽으로 가장 위쪽에 건축된 기숙사 건물은 북쪽 편에 남자 기숙사(살렘관), 남쪽 편에 여자 기숙사(브니엘관) 등 2동이 건축되었다. 남기숙사는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지층 87.60m^2, 1층 537.96m^2, 2층 526.26m^2, 3층 527.26m^2 등 전체 1678.08m^2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여기숙사는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1층 537.96m^2, 2층 526.26m^2, 3층 526.26m^2 등 전체 1590.48m^2의 규모로 지어졌다. 건축비는 총 1,287,181,289원이 소요되었다.[3]

1987년 11월 30일이 준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신기숙사의 시대를 연 새로운 생활관

[1]상게서, 100.
[2]삼육학보, 1987년 10월 19일자, 7.
[3]박채운, 101.

은 1실 2인 침대와 2실 1개의 화장실 및 샤워실, 중앙식 냉난방 시스템, 각방별 인터폰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남녀 2개 동으로 지어진 이 생활관에는 남녀 140개의 방과 다용도실 등 총 14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예배실과 휴게실(탁구장) 등도 꾸며져 있다.[1]

기숙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따랐기 때문에 학교 행정자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1983년 8월의 도서관 및 유가공실습장 건축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건축사업으로 1987년도 행정관 및 기숙사에 이르는 1980년대의 건축에는 총 50억 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학교 행정자들은 기숙사 1실에 500만 원으로 정하여 기숙사 한 방 기증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인이나 교회별로 기숙사 1방을 기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방 앞에 이름을 부착하고 모교 방문 시 무료 숙박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증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2]

이런 과정 속에서 건축된 새로운 기숙사에 학생들이 첫 입주를 시작한 것은 1988년 1학기부터였다. 한편 새로운 기숙사가 건축되자 많은 학생들이 새 기숙사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구기숙사는 남녀 신학생들이 거주하는 신학숙으로 한 동안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기숙사 건물들은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어 새로운 21세기의 학생들에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숙사가 건축된 지 15년 후에 철거된 후 그 자리에 2003년 새로운 기숙사가 들어서면서 기숙사도 모두 현대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삼육대학교 100년 역사에서 세 차례 지어진 기숙사들은 삼육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한 지방 학생들에게 제2의 가정과도 같은 행복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서로의 삶을 아껴주고 돌봐주는 정을 나누었다. 기숙사생들은 이런 기숙사만의 문화를 기리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기숙사 축제인 “본향제”를 거행하였다. 1980년부터 시작된 본향제는 “본향을 향하여!”란 제목 아래서 생활관 음악회, 저녁 만찬회, 침례식, 패밀리 축제, 오픈 룸 행사,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사교, 축제 행사들로 진행되었다.[3]

2. 정원 재조정 및 대학과 대학원 학과 증설(1988~1989)

1980년에 실시된 졸업정원제는 제도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폐지되었다. 당초 과열

---

[1]삼육학보, 1987년 12월 4일자, 1.
[2]이재춘, “기숙사 완공을 앞두고,” 교회지남, 1987년 10월호,
[3]삼육학보, 1987년 12월 4일자, 1.

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중등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대학가의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교수 부족과 대학 및 중등학교 정상화의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던 끝에 졸업정원제는 결국 1987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1988년부터 새롭게 조정된 정원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1) 정원 조정

198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삼육대학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표 68] 삼육대 모집정원 조정(1988학년도)

계 열	학 과	모집인원	비 교
인문계	신학과	60	(+10)
	영어영문학과	60	(+10)
	경영학과	50	동일
자연계	간호학과	30	동일
	약학과	30	동일
	영양학과	50	(+10)
	화학과	50	동일
	생물학과	40	신설
	원예학과	40	신설
예능계	음악교육과	40	동일
합 계		450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입학정원은 기존의 학과의 경우 정원은 30명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에 따라 30%를 초과해서 모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학생수는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정원축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학과 신설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생물학과와 원예학과를 증설함으로써 입학정원은 420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 생물학과, 원예학과 신설

생물학과의 신설을 인가받은 때는 1987년 10월 23일이었다. 생물학과는 “현대 생명과학의 조류에 편승하여 생명체 내의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그 원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며, 생명과학의 기초를 이해시키고, 나아가 의학과의 예과로서 혹은 유전공학 및 세포공학 등과 같은 첨단과학의 기초분야를 연구,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신설되었다.[1] 1988년 3월부터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시작된 생물학과의 초대 학과장에 이강오 교수가 임명되었다.

[1]삼육대학 안내(1988): 176.

생물학과 함께 원예학과도 1987년 10월 23일에 인가를 받아 1988년 3월 1일부로 40명의 신입생을 받아 신설 운영되었다. 원예학은 “식물 생리학, 조경학, 생화학, 토양학, 기상학, 식물병학 등의 기초 학문을 이수하여야 꽃피울 수 있는 종합과학”으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예농업 기술의 전문화, 원예 소농가의 소득 증대 및 현대인의 질적인 생활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신설되었다.[1] 초대 학과장에는 권오달 교수가 임명되었다.

3) 대학원의 학과 증설(1987)

학부의 생물학과와 원예학과의 신설과 더불어 대학원도 1987년 11월 9일에 문교부로부터 2개의 학과에 대한 증설을 인가 받음으로써 기독교교육학과에 12명, 약학과에 1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2] 이로써 삼육대학 대학원은 신학과 석사과정에 이어 기독교교육학과와 약학과의 석사과정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육대학 대학원의 세 학과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국내의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확정된 자(단, 1966년도 이후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학사학위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국한되며, 연구과정은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각급 소속기관장이나 본 대학교수의 추천으로 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했다.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전공과목과 영어를 필기고사로 치루고 구술고사도 함께 실행되는데 신학과는 헬라어와 신학 전반으로, 기독교교육학과는 기독교 교육원리와 신학 전반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다.[3]

4) 신학대학원 신설(1988)

대학원의 학과 증설에 이어 1988년 11월 30일에는 신학대학원(20명 정원)의 인가를 받았다. 교단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신학대학원의 설치는 대총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은 1988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원의 승인을 지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동지회는 삼육대학 내 신학대학원, 즉 재림교회 대학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으로 정식으로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삼육대학 신학대학원이 정식으로 신설되어 1989년 2학기부터 신학사(B.Th. 및 B.A.) 학위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석사(M.Div.)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1]상게서, 186.
[2]교회지남, 1988년 1월호, 23.
[3]삼육학보, 1987년 12월 4일자, 1.

신학대학원의 신설로 현직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교단의 지원으로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세계 재림교회의 공식 신학대학원으로서 외국 학생들이 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재림교회 신학대학원과 학점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도 확립되었다. 삼육대학 내 신학대학원의 설립은 대학원이 점차로 특수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화되는 추세와도 부합하여 대학의 학문적 성취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신학대학원의 정원은 최초 20명에서 1991년 11월에는 20명이 더 증원되어 1992년부터는 4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신학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박해종 박사가 수고하였다.

5) 박사과정(신학과) 개설(1991)

신학대학원에 이어 1991년 11월 15일에는 대학원 신학과에 박사과정을 인가받아, 1992년 3월 1일부터 정원 9명의 신학박사(Ph.D.) 과정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었다.[1]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신학석사(M.A., M.Div., M.Th.) 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교역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주어졌다.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공(신학전반, 전공분야), 영어, 제2외국어(불어, 독일어) 등의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만 했다.

삼육대학 내에 박사과정의 신설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신학박사 과정이 신설됨으로써 삼육대학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까지 갖춘 완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박사학위 인가를 추진했던 남대극 당시 교무처장은 박사학위 과정의 신설로 삼육대학이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차원 높은 연구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2]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과정으로서 박사과정의 운영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박사과정의 신설과 더불어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하였지만 한동안 박사학위 이수자들이 배출되지 못했다. 2000년부터 신학대학원에 목회학박사(D.Min.) 과정이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목회학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배출되었지만, 대학원 신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한 학위 소지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개설 후 10여 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3] 그만큼 박사학위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학박사 과정이 개설된 이후 2001년부터는 약학과와 물리치료과에 박사과정이 신설되는 등 전문교육을 위한 박사학위 과정 신설도 점차로 확대되었다.[4]

---

[1]교회지남, 1992년 1월호, 26.
[2]삼육학보, 1991년 11월 28일자, 1.
[3]신학박사(Ph.D.) 학위자는 2004년 2월에 첫 1명이 배출되었다.
[4]교회지남, 2000년 11월호, 79.

3. “대학식품” 사업의 발전(1987~1989)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삼육대학 실업부의 사업은 80년대 후반 들어서 더욱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특별히 1970년대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유가공처리실습장이 1984년 완공되면서 유제품 생산 및 판매실적은 1987년에 이르러 75억 원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1] 이처럼 삼육대학 실업부의 사업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대학우유 사업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발전의 역사는 “대학식품”이라는 독립된 사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표 69] 대학식품 총매출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우유판매	7,533,077,685	7,716,705,101	7,639,044,072	7,977,359,643	5,059,191,626
젖소판매	21,062,886	151,185,546	39,227,915	40,227,230	43,534,010
농산물판매	18,462,511	28,480,000	30,841,300	23,567,000	22,587,000
매출합계	7,572,603,082	7,896,370,647	7,709,113,287	8,041,153,873	5,125,312,636

대학식품 사업체의 독립 운영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으로 성취되었다. 1984년에 유가공처리실습장을 완성한 후 삼육대학 실업부에서는 유제품 생산의 확대를 위해 주요 시설들을 보강하였다. 우선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6대(20,000ℓ X 3대, 30,000ℓ X 1대, 12,000ℓ X 1대, 8,000ℓ X 1대)를 설치하여 집유 및 원유 저장 능력을 높였다. 위의 탱크들의 저장 능력은 총 110,000ℓ에 이르렀다. 여기에 살균기, 균질기를 각 3조(2,000kg, 3,000kg, 7,000kg), 포장기 3대(엑셀로-시간당 생산량 2,600kg, 체리브렐-시간당 생산량 3,300kg, 시코쿠-시간당 생산량 2,800kg), 원유 수송차(탱크로리) 5대(3대는 용역), 시유 배달차량 10대 등을 갖추었고, 아이스크림 기계도 갖추어 삼육아이스크림도 생산하였다. 아울러 하루에 5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도 설치하였다.[2]

이상의 시설들을 갖추어 하루에 38,000kg 이상의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유제품 생산 공장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실업부의 직원들도 90여명에 이르게 되자 삼육대학우유 사업부는 대학 실업부로부터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3] 이에 1987년에 개최된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에서는 삼육대학 우유를 대학 실업부

[1]“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보고서, 1991년도, 21.

[2]교회지남, 1987년 6월호, 25;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18.

[3]1987년에 대학 실업부의 직원들은 총 86명(정식 33명, 일반직 53명)에 이르렀다. “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보고서, 1987년도, 10.

에서 독립하여 “대학식품”이라는 별도의 사업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학교 교육의 실습장으로, 대학 교육 운영의 수익 사업체로 자리매김한 삼육대학우유는 대학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업명을 가지고 대학의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1]

대학식품은 새로운 기관으로 독립하자마자 새로운 농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1973년 11월에 구입한 제2농장이 시설의 낙후와 주변의 공해, 서울의 수질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장 확보가 절실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학식품은 1989년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 165번지의 임야 216,350평과 전답 6,420평(합 222,770평)을 7억 원에 매입하고 제3농장으로 개발하여 그해 4월 30일에 입주예배를 들임으로써 제3농장의 시대를 열었다. 제3농장으로 구입한 땅은 기존의 초지 81,000평 외에 추가로 조성할 초지 70,000평 등 모두 150,000평 이상의 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대학식품 사업 발전에 적정한 곳이었다. 이곳에 주택 1동, 축사 2동, 창고 1동을 지어 제3농장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식품의 사업은 발전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2]

그러나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를 열게 된 대학식품은 1990년에 80억 매출을 정점으로 서서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IMF를 맞이하는 1997년에 이르러서는 경영위기에 직면에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4. 전국삼육교육자대회(1989)

198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삼육대학 캠퍼스에서는 전국의 삼육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자들 320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삼육교육자대회가 개최되었다. 1984년 이후 5년 만에 대총회가 지정한 세계 삼육교육자의 해를 맞이해 개최된 전국 삼육교육자대회는 삼육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전 세계적으로 삼육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80년을 넘어선 삼육교육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사 … 목회의 동반자”(Teachers … Partners in Ministry)라는 표어 아래 모인 초·중등 및 대학의 교사들은 대총회 교육부부장인 세고비아 박사, 원동지회 교육부장 다부치 박사, 삼육대학장 김종화 박사, 교무처장 감홍량 박사 및 남대극 박사의 강의를 통해 삼육교육이념을 되새기고 삼육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

[1]교회지남, 1989년 7월호, 17.
[2]상게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1]

전국삼육교육자대회가 개최된 1989년도는 한국의 삼육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해였다. 이 해에 전국의 삼육학교 학생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교직원은 373명에 이르렀다. 초등학교는 10개의 학교에서 71명의 교직원이 2,381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중학교는 8개의 학교에서 81명의 교직원들이 2,143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7개 학교에서 146명의 교직원들이 3,43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은 삼육대학 및 대학원, 병설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에서 75명의 교직원들이 2,16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2] 이 시기의 각급 학교의 교직원 수 및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3]

[표 70]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 교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초등학교	교직원	68(7)	71(8)	70(8)	76(8)
	학 생	2,163	2,381	2,515	2,679
중 학 교	교직원	78(14)	81(20)	89(19)	94(17)
	학 생	2,074	2,143	2,263	2,358
고등학교	교직원	128(21)	146(23)	152(19)	155(24)
	학 생	3,234	3,432	3,514	3,437
대 학	교직원	72(54)	75(48)	74(48)	74(58)
	학 생	2,060	2,160	2,221	2,532
계	교직원	346(96)	373(99)	385(94)	399(107)
	학 생	9,531	10,116	10,513	11,006

( ) 속은 사무 및 관리 직원 숫자임

위의 자료는 그동안 삼육교육사업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삼육교육 \이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준다. 이 대회를 통해서 삼육교육자들은 삼육교육의 역사적 결실로 주어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삼육교육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 아울러 3백여 명의 삼육교사들은 3일 동안의 모임에서 삼육교육의 중요성 및 삼육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교육 일선으로 돌아갔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삼육교육에 근속한 교사들에 대한 근속핀 수여식도 있었다. 근속핀을 받은 5년 이상의 근속교사는 모두 218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도 12명이나 되었다. 근속핀 수여의 마지막 순서는 35년 이상 근속한

[1]서광수, "전국삼육교육자대회," 교회지남, 1989년 10월호, 9.
[2]"교육부 보고,"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보고서, 1991년도, 4.
[3]상게서, 5.

동해삼육중고교 차배현 교장과 삼육대학 감종화 학장에 대한 시상식이었는데, 참석자 전원은 이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면서 위대한 삼육교육자상을 드러낸 이들의 공로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1]

한 편, 전국삼육교육자대회에는 삼육대학 교수들도 전원 참석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높은 삼육교육이념과 학문의 수월성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향학하여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86년까지 여러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대학의 확장 및 발전의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삼육대학의 발전의 시기인 1987년 이후에도 많은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삼육교육자로서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의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71]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1987~1991)

교 수	날 짜	논 문	수여기관
이규봉	87.02.23	"유리 반도체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학박사)	숭실대학교
정순영	87.04.29	"Various Feed Flavors as Feed Additives to Commercial Broiler Rations,"(Ph.D.)	Gregorio Araneta University
김형기	87.08.23	"한국 잔디의 생리생태학적 연구"(농학박사)	건국대학교
이경순	88.02.	"만속 요법으로 활용되는 숯 사용에 관한 연구"(이학박사)	연세대학교
김재완	88.05.18	"An Examination of a Perceived System Quality Measure and Its Association with System Usage"(Ph.D.)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오만규	89.02.20	"초기 크리스트교의 군사관 연구"(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이동섭	89.02.24	"Methodologies for the Extraction of Alkintin Compounds from Sediments and the Methylation of Sn(II) by Me I in Pore Water"(이학박사)	한양대학교
남대극	89.03.02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주제에 관한 연구"(신학박사, Th.D.)	앤드루스 대학교
안금영	89.03.30	"세대주의 신학에 있어서 시내 계약과 법"(신학박사, Ph.D.)	앤드루스 대학교
최경순	89.08.17	"채식 수유부 모유 분비량과 그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이학박사)	단국대학교
최준환	89.08.19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Ph.D.)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유한주	89.08.19	"혈액 재고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Ph.D.)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이기갑	89.12.08	"A Study of Politeness with Special Emphasis on English and Korean"(문학박	한국외국어대학교

1서광수, "전국삼육교육자 대회," 9.

		사)	
부문종	90.08.	“흰쥐 간에서의 비소의 세포 생물학적 영향과 세포내 비소 결합 물질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학박사)	연세대학교
김남정	91.02.21	“The Relaxation Spectra for Nonlinear Viscolelastic Solid Polymers”(이학박사)	한양대학교
김현희	91.02.	“쪽파 조직배양에서 식물체 재분화 및 유전적 변이”(이학박사)	경북대학교
이상진	91.02.28	“생쥐 난자의 핵성숙과 투명대 경화가 체외 수정과 배발생에 미치는 영향”(농학박사)	건국대학교
김광규	91.08.20	“소비자 유형과 점포 유형 선택의 관계에 관한 연구”(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전국삼육교육자대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삼육교육의 이상을 다시 한 번 확립하고 학위 취득을 통해서 학문의 수월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학의 교수들은 삼육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더욱 더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의 대학의 발전과 도약은 이런 교육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5. 김종화 박사의 퇴임과 김홍량 학장의 취임(1990)

1960년대 교육사업의 정립의 시기와 1970년대 대학 확장의 시기를 거쳐 1980년대 발전기를 지나 도약기로 접어드는 1990년도의 첫 해에 삼육대학은 중요한 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77년에 제6대 학장에 취임했던 김종화 박사가 1990년 8월 31일에 정년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김홍량 박사가 새로운 학장에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김종화 박사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학 이사회에서는 그 해 5월 17일에 대학을 방문하여 부교수 이상의 전 교수와 행정부처의 각급 행정처장과 과장들을 만나 면담을 통해 후임 학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21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 교무처장인 김홍량 박사를 학장 후임으로 선임하였다.[1] 이로써 발전 도상에 있는 삼육대학을 이끌 새로운 학장이 선출되었다.

학장 이취임식은 8월 23일 오전 10시 대학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제6대 학장에 선임되어 13년 6개월 동안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을 이끌어 온 김종화 학장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45년 동안 교육자로서 재림교회 교육 사업에 헌신해 왔다. 함경북도 갑산이 고향인 그는 함흥사범학교를 수료한 후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10월 서울삼육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삼육교육사업에 투신하였다. 이후 삼육대학으로 부임하여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삼육대학 제3대 학장을 역

[1]삼육학보, 1990년 5월 31일자, 1.

임하다가 1975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귀국하여 1977년 이기돈 박사의 후임으로 제6대 학장에 다시 취임하여 지금까지 삼육대학을 이끌어 왔다.

제6대 학장의 임기 동안 그가 이룩해 놓은 삼육동의 발전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의 역사 그대로였다. 엘리야관을 시작으로 사무엘관,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 도서관, 유가공실습장, 에스라관, 과학관, 학생회관, 정문, 행정관, 남녀 신기숙사 등이 모두 그의 재임시절에 건축되었으며, 경영학과를 비롯해 약학과, 영양학과, 화학과, 음악교육과, 생물학과, 원예학과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의 학과들 및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학사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1]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그는 1985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퇴임 시에는 대총회 교육부문 최고의 영예인 Award of Excellence와 메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퇴임하는 김종화 박사에 대한 삼육대학의 기억은 이런 외형적인 내용보다도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남다른 교육에의 열정과 특별한 교훈들 때문이었다. 8월 31일 정년퇴임식이 마친 후 기록된 삼육학보의 사설에는 그로부터 배울 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준 청렴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말보다 행동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훌륭하게 학장직을 수행한 입지전적인 인물, 약속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성으로 학교의 발전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 등이었다.[2] 김종화 전임 학장에 대한 이러한 찬사는 삼육대학의 역사 속에서 대학을 위해서 헌신했던 삼육동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는 만 25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그 중 17년간을 학장으로 있으면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학교 행정을 이끌어 온 도덕적이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다.

퇴임하는 김종화 박사의 뒤를 이어 제7대 학장에 취임한 김홍량 박사는 대학의 총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 김종화 학장 재임 시절 대학의 각 부처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확장 및 발전을 함께 이루었던 행정자요 교수였다.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1959년에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영남삼육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으로 삼육교육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영남삼육중고의 교감 및 교장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다가 1967년에 삼육대학의 교수 및 부총무로서의 직임을 시작하였다. 1972년까지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총무처장을, 1973년부터 1974까지는 부교수, 교무처장으로

---

[1]편집실, "삼육대학 학장 이취임식," 교회지남, 1990년 10월호, 14.
[2]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2.

수고하던 그는 1975년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다시 교수 및 총무처장으로 수고하다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 산토토마스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84년부터 1990년까지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 직을 수행하였다. 이런 이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김홍량 박사는 김종화 박사와 더불어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다. 아울러 전임 학장의 은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1]

신임 학장으로서 직임을 맡게 된 김홍량 박사는 1990년대에 삼육대학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삼육대학의 창학이념과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 풍토의 진작, 종합대학 체제의 학사 발전, 쾌적한 교육 환경과 교육 시설의 내실화, 상담과 지도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구속을 경험하도록 지도, 이러한 일을 위한 교수와 교직원의 사역자로서의 헌신" 등이었다.[2] 그의 취임사에 나타난 대학 과제의 핵심은 삼육교육이념의 강화 및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 일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과제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었다. 우선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여타의 다른 종합대학에 비해서 규모는 아직 작지만 중소규모의 알찬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발전이 이룩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제 해결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삼육대학은 이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의 과정을 만들어가야만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이념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들 및 교직원들이 삼육동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에 따라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학생들의 활동 영역에서 이러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삼육대학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의 이념을 강화해야만 하는 과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아직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삼육대학의 발전 및 도약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7대 학장으로 취임한 김홍량 박사와 삼육대학의 앞날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었다.

한편 교무처장으로 수고하던 김홍량 박사가 학장에 취임함에 따라 교직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지자 대학 이사회에서는 남대극 교수를 교무처장에 임명하고 박종현 교수를 학생처장에 임명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였다.[3]

---

[1]편집실, "삼육대학 학장 이취임식," 교회지남, 1990년 10월호, 14.
[2]김홍량, "취임사, 개교 84주년을 맞으며," 교회지남, 1990년 10월호,
[3]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7.

6. 학생활동의 발전과 이념적 갈등 도래(1988~1991)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삼육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념적 갈등이 도래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대학의 발전과 그로 인한 다양한 학생문화의 발전은 일관된 교육철학을 가지고 발전해온 삼육대학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 특별히 학생들의 문화 의식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발전은 이념적 갈등 및 대립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삼육대학의 발전기에 나타난 대학 문화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이념적 갈등의 역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선교봉사활동의 추진

그동안 학생들의 지역봉사 활동은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안식일 오후의 지역봉사 및 하기봉사활동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활동들과 함께 해외선교봉사활동이 새롭게 시작되어 학생들의 활동 영역이 도움이 필요한 국외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삼육대학의 해외선교봉사활동의 첫 대상지는 태국의 방켄(Banken) 지역으로 총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일본삼육대학이 1988년 12월에 해외선교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최이권 학생처장의 설명을 듣고 삼육대학에서도 해외봉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원래는 태평양의 괌도를 봉사 지역으로 정하여 1989년 3월 13일에 해외선교 봉사대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60명의 지원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총학생회와 학생처에서는 어학실력, 신앙상태, 경제적 문제,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30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해외 선교봉사활동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30명의 선발자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탈락하는 인원이 생겨 최종적으로는 20명이 대원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봉사대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교회건축이었기 때문에 삼육기술원으로부터 이광재 선생과 신문범 학생 등 건축전문가 2명을 영입하여 최종적으로 대원을 구성함으로써 해외봉사대를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의 첫 해외선교봉사활동 지역이 태국의 방켄 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4월 24일이었다. 이날 원동지회 교육부장 다부치 박사는 삼육대학의 선교봉사 가능지역으로 태국을 지정해 줌으로써 봉사활동 지역은 괌에서 태국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박종현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7월 4일부터 27일까지 태국의 방켄에서 첫 해외선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해외봉사활동은 교회 건축, 어린이 성경학교, 대전도회, 무료진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회 건축은 방켄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6일 기초 작업과 평탄 및 조적 작업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17일 만인 7월 21일에 완공되었다. 이에 태국연합회장 바샴(Basham) 목사 등 지역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7월 22일 안식일에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삼육대학 해외봉사팀이 세운 방켄 교회는 대지 250여 평 위에 50평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방켄 지역은 방콕에서 고속버스로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변방 마을이자 라오스와 크메르의 인접지역으로 인구는 약 1,500명 정도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곳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교도들이었으며 기독교는 신생종교였다.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방켄 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대전도회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무료진료가 진행되었는데 7월 19일에 합류한 임운경 치과의사의 치과 무료진료가 진행되었다.[1]

제2회 해외선교봉사활동은 1990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심볼론(Simbolon)에서 진행되었다. 원동지회 교육부장 다부치 목사는 1년 전 태국에서의 제1차 해외봉사활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삼육대학 해외봉사팀의 성과에 고무되어 자신의 조국인 인도네시아에 삼육학교 개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2차 해외봉사활동이 인도네시아로 결정되었다. 이에 20명의 해외봉사팀은 장병호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해외봉사 활동에 나섰다. 7월 25일에 싱가포르에 도착해 2박 3일간을 그곳에 머문 봉사팀은 27일에 인도네시아 메단 공항에 도착하여 버스와 배로 6시간의 여행 끝에 심볼론에 도착하였다.[2]

봉사활동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요청대로 삼육학교 개축작업에 들어갔는데, 150평의 학교 교실을 7개로 나누는 칸막이 공사와 바닥 시멘트 공사, 지붕 교체 작업, 중천정 설치 작업 등을 통해 개축하였다. 특별히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여 시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었다. 학교 개축공사는 8월 10일 완료되어 그날 교육청, 동사무소, 인도네시아 연합회, 합회 임원들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헌당식을 거행하였다.[3]

한편 학교를 개축하는 과정에서도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회를 개최하였고, 120여 명의 어린이들과 성경학교도 가졌다.

---

[1]삼육학보, 1989년 9월 4일자, 1.
[2]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7.
[3]상게서.

제3회 해외선교봉사활동은 199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일 동안 필리핀의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Philippine Union College)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플룽 산타크루스(Plung Santacruz)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1989년도의 태국, 1990년도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필리핀 해외선교 봉사대는 현지로부터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필리핀의 한 지역교회로 떠나게 되었다. 김봉진 교수의 지도 아래 총 18명으로 구성된 봉사대원들은 봉사대 활동을 지원한 동서중한합회와 연합회, 삼육식품, 대학 등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봉사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7월 13일에 위생병원교회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활동을 거쳐 19일 필리핀으로 입국하였다.[1]

19일에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 봉사대원들은 21일부터 플룽 산타그루스 교회 건축에 착수하여 8월 1일 총 32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교회는 6개월 전부터 이미 공사 중에 있었는데 봉사대가 도착하기 전 15평 정도밖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봉사대원들은 내장공사, 본당, 기도실, 강단 지붕 등을 단 2주일 만에 완성하여 현지 교인들과 주민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8월 3일 안식일에는 완성된 교회에서 합회의 총무부장, 재무부장,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인 등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린이 지도 및 헌옷 25상자를 현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선교봉사와 이웃사랑 실천 행사도 함께 거행하였다.[2]

삼육대학 해외선교봉사활동은 1991년 제3회를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1997년에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문화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01년에는 삼육대학교의 학생들이 지역교회인 중곡동교회(담임목사: 오규섭)와 더불어 몽골 봉사대를 다녀왔지만 대학에서 공식적인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다. 삼육대학이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기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들어서였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각 학과별 및 동아리별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처의 지원 아래 국내 하기봉사대와 마찬가지로 해외봉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과 및 동아리 단위별로 자치 활동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 이상 대학이나 총학생회에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된 것은 그만큼 학생 활동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발전은 1989년 제1회 해외선교봉사활동 이후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에

---

[1]삼육학보, 1991년 9월 2일자, 1.
[2]교회지남, 1991년 10월호, 23.

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쌓여진 문화적 역량의 결과였다.

2) 대학 합창경연대회 수상

삼육대학 남성합창단이 1990년 10월 26일 전남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학합창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 3년 연속 대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삼육대학 합창팀이 전국대학합창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였다. 그해 11월 9일에 한양대학교 백남기념음악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대학생합창경연대회에서 68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본대학 연합합창단(지도교수 임봉순, 지휘 조대명, 반주 오혜전)은 2개월간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17개 대학 합창단들 가운데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1] 해마다 열띤 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대회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받은 은상 소식은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었고 이에 본격적으로 합창대회를 준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88년 대회부터 본대학 합창단은 영예의 대상을 3연패하는 위업을 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첫 대상은 1988년 11월 3일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회였다. 지난 해에 은상을 차지했던 삼육대학 합창단(지휘 조대명, 반주 김희정)은 각 학과에서 선발된 80명의 합창단원을 구성해 9월부터 매일 오후마다 1시간씩 연습한 결과 드디어 참가 2년 만에 전국 14개 대학 참가팀 가운데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2] 이후 1989년 11월 10일 경북대학교 주최로 열린 제13회 대회에서도 총학생회 문화부에서 구성한 50명의 남성합창단(지휘 강순기, 반주 김혜영)이 또 다시 영예의 대상인 문교부장관상을 받아 2연패를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삼육대학 남성합창단은 “청산에 살으리랏다”외 1곡을 불러 대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는 150만 원과 지휘자의 동남아 여행 특전도 주어졌다.[3]

대상의 행보는 1990년 10월 26일 전남대학교의 주최 하에 개최된 제14회 대회에서도 계속되었다. 83명으로 구성된 삼육대학 남성합창단(지휘 정남보, 반주 이수진)은 이 대회에서도 조문양 교수가 편곡한 “뱃노래”와 흑인영가인 “스틸 어웨이”(Steal Away)를 불러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당시 대회 관계자 중 한 분은 “기존 SDA인들이 음악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음악성이 탁월하고, 타대학에서 볼 수 없는 음절의 변화, 한 악구의 변화가 심판 전원일치의 A+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 삼육대학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4] 이 대회에서도 역시 부상으로 1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고, 지휘자에게는 7개국에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

---

[1]삼육학보, 1987년 12월 4일자, 1.
[2]삼육학보, 1988년 12월 1일자, 1.
[3]삼육학보, 1989년 12월 4일자, 7.
[4]삼육학보, 1990년 11월 8일자, 1.

이처럼 전국대학합창경연대회를 3연패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합창은 전국 대학에서 최고의 실력임이 입증되었다.

이후 한 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않던 삼육대학교 합창단은 1997년 11월 14일에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대학생음악경연대회 합창부문에 다시 출전하였다. 이 대회에는 삼육대학교 남성합창단과 삼육대학교 여성합창단(아름다운이들)이 각각 분리해서 출전했는데, 남성합창단은 대상, 여성합창단은 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97전국대학생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합창대회는 총 17개 대학에서 20개 팀이 참가하였는데 삼육대학교 남성합창단(지휘 이광주, 반주 최수아)은 "렛 마이 피플 고"(Let my people go)와 "옛날을 가고 없어도"를 불러 대상을 받았고, 여성합창단(지휘 이숙진, 반주 윤보영)은 "가시리"와 "정선아리랑"을 불러 은상을 받았다.[1]

대회가 마친 후 타 대학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신분조회를 요청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규정상 합창단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음악전공 학생은 25%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삼육대학교 합창단의 실력이 뛰어나 전공생의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다.[2] 이처럼 삼육대학 합창단은 합창실력이 전국 대학들 가운데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대학에서는 이 역사적인 수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강당과 행정관 앞의 잔디밭에 제21회 전국대학음악콩쿨 대상 및 은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 수상의 역사는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도 함께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3) 학생 자치활동의 다양화

1980년대 말에 나타난 학생활동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다양한 학생들의 자치기구들이 조직된 것이었다. 1985년 학도호국단제도가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부활되자 총학생회와 여학생회가 조직되고 총대의원회도 조직됨으로써 다시 학생 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중 총여학생회의 경우 1990년도에는 단독 입후보한 후보들이 낙선 및 재선거 정족수 미달에 따라 자치기구를 조직하지 못하고 총학생회의 여학생부로 잠정 설치되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3]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학내의 여러 문제들과 함께 학생자치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

[1]삼육학보, 1997년 11월 27일자, 1.

[2]상게서.

[3]삼육학보, 1990년 5월 3일자, 1.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장 11조에는 단독 후보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선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선거율이 저조할 경우 당선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에 이어 1986년에는 동아리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초대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은 경영학과 3학년의 이원규 학생으로 당시 등록된 동아리 11개 팀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로 동아리연합회관 마련, 동아리 자금 확보, 교내 캠퍼스의 복음화 등을 활동 내용으로 조직되었다. 동아리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집행부를 구성해 활동하였는데 결성 첫 해에는 우선 각 동아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6월 1일에 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등산대회에는 11개 동아리들 가운데 6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하산 후에는 "서클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KUSA), "서클 연합회의 의의와 역할"(TIME), "서클 연합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솔성학회) 등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도 진행되었다.[1]

동아리연합회에 이어 1989년 3월 9일에는 학회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학회연합회는 "각 학회의 회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대변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본교 창학 이념과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를 위해" 결성되었다. 학회연합회는 학회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각 학회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회 활동화를 도모하고 학회원들의 의사를 각 자치단체와 학교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학생 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2]

각 학생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의 예산 중에서 총학의 예산 배분에 따라서 재정을 분배받아 활동하였는데 1990년 7월 9일에 실시한 대의원회 감사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학생회비 10,790,000원 중 총학생회가 64.8%, 동아리연합회가 12%, 총대의원회가 6.5%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9%는 수첩제작, 각과 및 행사 지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예산의 규모를 통해 각 학생 자치기구들의 활동 범위 및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4) 학생 자치활동과 이념적 갈등 및 대립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부활과 더불어 안정된 활동기반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생활동의 자치와 관련된 이념적 갈등과 대립도 나타나게 되었다. 학생회가 부활되던 해인 1985년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회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교측 간에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생 자치기구 설립을 돕기 위해 학생처에서는 회칙(안)을 마련하여 4월 3일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칙(안) 해설 및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지도교수위원제의 폐지, 학생회

[1]삼육학보, 1986년 6월 11일자, 3.
[2]삼육학보, 1989년 4월 3일자, 1.
[3]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1.

비 예산 집행권 문제, 피선거자 자격의 범위 확대, 선거관리위원 문제, 교무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 문제, 총여학생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회칙 재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문교부가 고수하고자 하는 5대 사항이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개정하기로 하고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초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발의된 회칙(안)을 학생들의 손으로 전면 제정하기로 결의하여 회칙(안) 처리는 난항에 봉착하고 말았다.[1]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도 총학생회 회칙 및 총선 일정이 타협됨으로써 5월 17일에 회칙이 공고되고 5월29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5월 31일 후보자 선거 유세를 거처 6월 3일 총선에 돌입해 결국 제26대(자치 총학 제1대) 총학생회를 구성하게 되었다.[2]

이처럼 총학생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쟁점은 사실상 학생자치 활동의 민주화, 자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과 대학의 이념간의 갈등의 표출이었다. 학생들은 자치기구의 운영만큼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행정 및 학사 운영이 학생들의 요구만으로 이끌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과의 협상과 설득을 통해 학교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갈등과 대립의 요소는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역사가 쌓여지고 학생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서 그 갈등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30대 총학생회가 출범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학내에서 나타났다. 1988년 8월 24일 일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삼육대학 민주화 추진위원회”(일명 “삼민추” 회장: 조정휘, 제28대 총학생회장) 주최로 “학내 민주화 토론회”가 도서관 앞에서 7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제28대 총학생회장, 대의원회 간부들, 7개 학과 학회장들로 구성된 삼민추는 학교 측의 일부 학생에 대한 등록유보, 학생자치회 활동 및 언론 검열 등을 문제 삼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교 측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3]

문제의 발단은 대의원총회의 결의기사가 삼육학보에 실리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학보사 편집부(편집장 채승석)는 인쇄마감일 오후에 접수된 대의원회 결의기사 내용이 학생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승인 후 게재라는 방침으로 기사를 실지 않았는데, 대의원회(의장 권동하)는 이를 학교의 검열 때문으로 판단하고 결의내용 및 기사 누락 경위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

[1]삼육학보, 1985년 5월 10일자, 1.
[2]삼육학보, 1985년 6월 3일자, 1.
[3]삼육학보, 1988년 9월 9일자, 7.

공고하였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의원장이 등록유보의 판결을 받자 일부 학생들은 삼민추를 구성해 학생 등록유보 철폐와 언론자유 등을 주장하면서 민주화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1]

이 사건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장시간의 토의 끝에 언론 검열은 없었으며 학생의 "등록유보 문제는 교수회의에 붙이겠다"는 입장에서 정리가 되었다.[2] 삼민추 사건은 삼육대학 내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 토론회였다. 삼민추와 민주화 토론회는 삼육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의식과 학교의 이념이 충돌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표면화된 이념적인 갈등은 제30회 총학생회의 활동에서 표면화되었다.

1988년 11월 17일 총선으로 구성된 제30대 총학생회(회장 김석영)는 신학기에 사용할 '89학생수첩'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수첩에 들어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대학이념 및 정신과 충돌된다고 판단한 음악교육과와 신학과의 회수, 교정 및 재배포 요구가 제기되어 논란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다이어리의 주일배열이 월요일을 첫째 날로 함으로써 제칠일을 토요일로 성수하는 대학의 종교적 이념과 배치된다는 것. 둘째는 필독서에 인문교양서적들만 들어 있고 종교교양서적이 빠져 있다는 것. 셋째는 수첩에 포함된 통일에 관한 장준하 씨의 일부 주장은 이데올로기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넷째는 달력에 기입된 기념일에 일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되었다는 것 등이었다.[3]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일부 문제가 되는 점들을 시인하고 4월 6일에 사과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통일논의 등 몇몇 사안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학내이념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신학회로부터 문제 해결의 위임을 받은 가칭 신학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통일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국기도회 등 삼육이념에 적합한 통일논의로 바꾸어가자는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이념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측은 학생수첩 제작비로 이미 140만 원(1750부)의 예산이 지출된 상태에서 재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문제를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4]

학생수첩 사건 이후 4·19기념행사와 관련된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총학생회의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총학 임원들은 4·19기념행사 준비 과정에서 분향소 설치 문제 및 검은 리본 착용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총학 지도부는

---

[1]사건의 경위는 1988년 9월 9일자 삼육학보의 "삼민추, 그 진상을 규명한다"라는 칼럼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 상게서, 3.

[2]상게서, 7.

[3]삼육학보, 1989년 5월 1일자, 1.

[4]상게서.

검은 리본 착용은 가능하지만 대학의 이념과 전통에 따라 분향소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4월 19일에 리본만 나눠주고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총학 임원들은 사표를 제출했고, 그 사표가 5월 10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총학생회장 탄핵의 빌미가 되었다.[1]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 등 10명의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는 8월 21일자로 보선을 하게 되었다. 보선의 기준으로는 "삼육교육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자"로 정했던 것은 임원들 간의 이 사태가 이념적 갈등에 의해 빚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2]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학과 학생들 약 100여 명은 춘계 체육대회 기간인 5월 4일에 체육대회에 불참하고 "어용총학 퇴진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그날 오전 9시 대운동장에서 있었던 채플이 끝난 후 경영학과 학생들은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동장에 앉아 침묵시위를 벌이며 총학 임원들의 집단 사퇴에 대한 총학생장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향소 설치를 반대한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요구가 들어 있었다.[3] 이 사건은 삼육교육이념과 상충되는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교육이념에 따른 학생 자치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의 한 표현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학내에서는 "총학 탄핵"이라는 극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학생회가 내세운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 의식화"가 대학의 고유이념을 넘어서는 자유화로만 의식되고 판단되면서 학생회 활동의 왜곡된 현상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삼육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갈등과 대립의 논점으로만 끌고 나간 학생들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암튼 이 문제로 1989년 8월에는 총학생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치기구들(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학회연합회)과 총학생회 사이의 대자보 공방이 진행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4]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총학생장이 사퇴하고 다음 총선 때까지 총학생회장 대행체제로 학생회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89년에 발생한 총학생장 탄핵사건은 학생들의 다양화된 의견 속에서 학교이념과 학생들의 문화적 의식이 부딪히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첫째는 대한민국 사회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쟁취한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학내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고조되었음을 이번 사건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

[1]삼육학보, 1989년 6월 2일자, 1.
[2]삼육학보, 1989년 9월 4일자, 1.
[3]삼육학보, 1989년 6월 2일자, 1.
[4]삼육학보, 1989년 9월 4일자, 3, 7.

이 신앙 대 비신앙이라는 종교적 논쟁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학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대학의 이념구현과 갈등 및 대립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 신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총학 탄핵 사건은 자연히 신앙 대 비신앙의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는 학생 자치기구들의 정치적인 집회가 등장해 다시 한번 대학 측과의 이념적 갈등이 전개되었다. 1990년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삼육대학 내에서는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맞이해 여러 학생 자치단체들이 주도한 5·18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17일에는 총대의원회가 도서관 옆 잔디밭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승 및 대회"가 있었으며, 18일에는 소강당에서 대학 총학생회와 농전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동아리연합회가 후원한 "5·18주년 기념추모 구국기도회"가 있었다. 이 일련의 집회들은 단순한 추모집회 및 기도회를 넘어서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5월 24일에는 도서관 옆 잔디에서 학원민주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최이권 학생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문교 5원칙의 철폐 및 민주학칙 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와 더불어 대의원회는 학민추(학원민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학내 투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1]

학생들의 이러한 학내 민주화 요구는 대학의 이념 및 특성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학교 내에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이 학민추 사건은 삼육대학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민주화 요구를 위해 집회를 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학내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5·18 행사와 관련된 집회는 이듬해인 1991년에도 새물결회, 솔성학회, 한울림 등 3개 동아리 연합으로 기획되었는데 이때는 학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동아리 회장 등 관련 학생 5명이 징계를 받고 동아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는 등 학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었다.[2]

삼민투의 민주화 토론회로부터 총학 탄핵을 거쳐 학민추의 학원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발생된 학내 이념 대립문제는 삼육대학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및 시위의 전조를 보게 해 준 사건이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감지한 학생들은 1991년에 이르러 정치적인 학내 데모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1991년 5월 9일 발생한 학내 데모 사건이었다. 이 날 채플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강당에서 몰려나올 때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강당 앞 분수대에서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

[1]삼육학보, 1990년 5월 31일자, 7.
[2]삼육학보, 1991년 6월 3일자, 1.

현수막을 휘날리며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 시위 사건은 다행히 일부 교수들의 적극적인 저지로 무산되어 본격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1]

이 시위 소요사건은 당시 강경대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안정국 타도를 외치던 한국 대학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었다. 강경대군 사망 사건은 6공화국 시절인 1991년 4월 26일에 명지대 강경대군이 총학생회장 구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도중 전경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6공화국의 공안통치 종식과 노재봉 내각 총사퇴 등을 외치는 규탄대회들이 벌어졌고, 특별히 5월 9일은 '5·9국민대회'가 계획되었던 시기였다. 삼육대학 대강당 앞에서 발생한 시위 소유 사건은 바로 이 '5·9국민대회'를 준비한 몇몇 학우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육대학은 정교분리의 신앙원칙에 입각해서 시국과 관련해 시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습 시위사건은 학내 이념 갈등 및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시위 사건이 진정된 이후 대학 내 '5·9추진위원회'[2]는 오전 11시부터 도서관 옆 잔디에서 "고강경대군 추모 및 시국토론회"를 개최하여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상황일지 및 당위성 보고와 더불어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다짐하는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시국토론회를 주도한 추진위원회는 삼육인으로서 마땅히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함으로써 집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집회 자체는 수업정상화 및 자발적인 학생 참여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동맹휴업도 추진하였지만 학과간의 이견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한편 시국토론회와는 별도로 또 다른 학생들은 기도위원회(위원장 박태환)를 구성하여 구국기도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하였다. 기도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규탄 시위 대신에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구국기도회 등 삼육대학의 방식으로 시국에 대처해 삼육이념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구국기도회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점심시간에 대강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구국기도회를 주최한 학우들은 대자보를 통해 "시국상황에 대해 삼육학우가 취해야 할 입장을 밝혔으며 … 기도로써 신앙인의 의지를 표명하자고 호소"하면서 시국 기도회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5·9국민대회'가 예정된 날에는 금식기도를 통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삼육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3]

---

[1]김재신 목사는 당시 대학신문 주간으로 있던 표성수 교수가 학생들을 저지해 데모가 무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78.

[2]추진위원회는 총대, 총여,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책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위원회장은 이기호 군이 맡았다. 삼육학보, 1991년 6월 3일자, 1.

[3]상게서.

1991년 '5·9국민대회'와 관련해 삼육대학의 학생들이 보여 준 두 모습, 즉 시국토론회와 구국기도회는 삼육대학에 상존하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의 시국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 문제는 삼육인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결국 삼육이념과의 갈등 및 대립의 정신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이 문제는 삼육대학이 발전과 도약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교육 100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7. 이념교육 과정의 재정립과 교내 복음화 활동

대학 내에서 이념적 갈등 및 대립이 표면화되는 시기를 맞이해 대학 행정자들과 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학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육이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다. 그 노력들 중 몇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채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1990년대 들어서 그동안 삼육대학에서 이념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채플이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주 2회(월, 목)에 걸쳐 진행되는 채플이 본래의 의도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 역시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채플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었다. 원래 채플은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월요일에는 성경의 교훈과 기별을 전하는 예배로, 목요일에는 영적인 성격을 띤 문화적인 행사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학부생들과 농업전문대학 및 간호전문대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합동 예배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상적인 예배로서의 순서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채플이 다소 형식적인 순서로 변질되었다. 더욱이 학생들은 채플시간에 과제물을 작성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종교 행사로서의 참여 태도를 결여하고 있어 채플의 운영이 유명무실해졌다.[1]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교목실을 중심으로 한 대학 행정자들은 채플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채플의 기본 규정은 역사적 과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과거 삼육신학대학 시절에는 매주 4회 채플과 지도반 및 기도반 등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한 학기에 5회 이상 결석자는 제적될 수 있었다. 1967년부터 삼육대

[1]삼육학보, 1990년 11월 29일자, 1.

학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채플 규정은 주 3회로 조정되었다. 아울러 한 학기에 "5회 이상 결석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반교양 및 신학 과목 중 2학점을 동기학교나 하기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이수한 학점은 졸업요건 학점에 가산하지 않았"다.[1] 1978년에 이르러 채플은 주 2회로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4회 이상 무고 결석한 학생은 2학점을 동기대학이나 하기대학에서 이수해야 했으며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7회 이상 무고 결석시에는 제적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2] 이때부터 채플은 주 2회로 고정되었다.

1987년에 이르러서 채플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학점화되었다. 대학 교무처는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참석을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고자 타대학의 사례들을 참고해 채플을 학점화하여 채플 이수자에게 P학점을 주기로 했다. P학점이란 평가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플 학점이 좋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며, 채플을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학점이었다. 채플의 점수는 결석 횟수에 따라서 1회 이하의 경우 A+, 2회는 B+, 3회는 C+, 4회는 D+이며, 5~7회는 F로 계절학기 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8~10회는 역시 F로 계절학기 4학점을 이수해야 했다.[3] 채플의 학점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채플에 긍정적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채플의 정상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강당에 함께 모여 채플을 드리게 됨으로써 채플의 원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외에 또 다른 해법들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 시기에 채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중심의 채플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당초 월요일엔 예배중심의 채플로, 목요일엔 문화행사 중심의 채플로 진행하고자 했던 운영 방식이 무너지고 채플의 예배기능이 점점 상실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2학기 채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요일의 문화채플은 종전대로 운영하되 월요일 예배중심의 채플만큼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참석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즉 학생들을 A, B반으로 나누고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에 각각 A반과 B반 채플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다.[4]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채플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은 매 시대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채플을 진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채플은 삼육교육이

---

[1]삼육대학 안내(1968): 38.
[2]삼육대학 요람(1978): 89, 90.
[3]삼육학보, 1987년 3월 11일자, 7.
[4]삼육학보, 1992년 9월 18일자, 1.

념 구현을 위한 교육 과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채플의 정상화는 곧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는 시점에서 채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2) 오얏봉의 정비

삼육대학의 중심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중앙도서관이다. 도서관이야말로 학문과 지성을 길러내는 산실이다. 이곳에서 삼육교육의 한 영역인 지성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한 곳은 기도의 동산인 오얏봉이다. 이곳에서 삼육인의 영성이 시작되고 계발된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오얏봉은 삼육교육의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영성의 장이었다. 오얏봉은 삼육대학의 확장 및 발전기에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도 굳건히 대학의 이념과 철학을 지켜오게 한 정신적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이런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해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대학의 구성원들은 오얏봉을 새롭게 정비하고 삼육의 정신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았다.

오얏봉의 기원은 삼육동의 터전이 마련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에 대학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제임스 리 원장과 이여식 목사는 이곳에 올라 주변의 땅을 대학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작은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 울창한 나무들만이 둘러싸여진 이 동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만 드리던 삼육동의 학우들은 점차 이곳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 갔다.

오얏봉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77년대였다. 신학과 제37회 졸업생들은 졸업하기 전 해인 1977년에 기숙사생들과 함께 이곳에 돌단을 쌓아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성구가 기록된 돌비를 올려놓음으로써 현기도의 제단이 만들어졌다. 한편 같은 해에 한국삼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늦은비 모임" 회원 5명이 이 돌단 뒤쪽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십자가도 놓여졌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1986년에 쓰러져, 등불회 회원들에 의해 새로운 나무십자가로 세워졌는데 그것은 1997년 오얏봉의 성역화 작업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곳을 지켰다. 이렇게 세워진 돌단과 십자가 앞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다.[1]

1970년대 후반에 돌단과 십자가가 세워지자 기도자들의 발길이 더욱 더 잦아졌고, 오얏봉은 학생들의 영적, 정신적 쉼터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돌단 주변에 둘러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게 되자 1980년대 들어서 주변에 돌 의자를 설치하게

[1]"기획시리즈, 제1편 오얏봉의 역사," 삼육학보, 1988년 3월 10일자, 2.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오얏봉 기도처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되었다. 오얏봉에는 이 기본적인 기도처 시설들 외에도 십계명 돌비와 계단들도 설치되었는데, 십계명 돌비는 1986년 본 대학에서 전국 안식일학교가 개최되었을 때 연합회에서 이곳에 전시했던 것으로 연합회는 이 돌비를 대회가 마치면서 대학에 기증하여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 1년 후인 1987년 드디어 총학생회에서는 오얏봉 정비계획을 세우고 기숙사와 유치원에서 오얏봉으로 오르는 길에 계단을 설치하여 눈이 내린 한 겨울에도 마음 놓고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1]

대학신문인 삼육학보는 1988년 3월 10일에 위와 같은 일련의 오얏봉의 역사를 특별 기획시리즈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 시리즈에서 기자는 "삼육인들은 삼육동산에 숨 쉬고 있는 동안, 또 그 후에도 오얏봉의 신비스러운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2] 이처럼 오얏봉은 삼육동의 영적인 삶의 과거요, 현재이며, 미래가 되었다. 삼육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확장과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과제가 주어져도 낙담하지 않고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얏봉의 신비로운 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던 1980년대 말에 오얏봉을 정비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3) 연합선교찬양단 활동

1990년대 들어서 학생들의 영적 활동 중 새롭게 시작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주일 연합선교 찬양이었다. 1990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긴 기도주일 동안 대학 내 학생들은 기도주간의 신앙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선교찬양단(단장 최영윤)을 결성하여 봉사하였다. 연합선교찬양단은 대학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동아리와 봉사동아리들인 가브리엘, 등불회, 밀알회, Heat, 사랑의 손길, 일곱빛, 새벽이슬, ACT, 평화의 동산 등이 본교 안교와 A.Y 등 자치단체 구성원들과 연합해서 만든 찬양단이었다. 이들은 기도주일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점심시간에 도서관 앞에서 찬양을 통해 학생들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별히 이 기간 중 19일에는 청량리 맘모스 백화점 앞에서 열린 수제의연금 모금에 참가하기도 했다.[3]

연합찬양을 통해 학생들은 기도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기도주간의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었다. 연합찬양단의 활동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삼육동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주는 데 일조하였다. 아울러 이것이 전

---

[1]상게서.
[2]상게서.
[3]삼육학보, 1990년 10월 11일자, 7.

통이 되어 이후 매 기도주일마다 연합선교찬양팀이 활동하게 되어 대학 기도주일 문화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한편 1992년 11월에 예수찬양팀이 구성되어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 소강당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진행하면서 대학 내에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다.[1] 이러한 학생들의 신앙 활동들은 대학 내에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여 더욱 더 고상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앙적 노력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8. 전문대학들의 발전(1990~1991)

1) 삼육농업전문대학

삼육농업전문대학은 승격 개편 당시인 1979년 4개학과 160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되었다. 2년 과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300명 안팎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은 10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전문대학의 발전도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첫 문호를 연 것은 1990년 3월 1일부로 교육을 시작한 유아교육과였다.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원예과와 식품제조과의 인가를 받아 4개 학과로 운영되던 농업전문대학은 1989년 10월 27일에 문교부로부터 유아교육과(입학정원 40명, 야간)의 신설을 인가받아 10년 만에 새로운 학과를 증과할 수 있게 되었다.[2]

유아교육과의 신설은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이후로도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 과정의 신설을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 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향유전문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90년 3월 1일부터 1학년 과정을 시작한 유아교육과는 야간에다가 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망한 과정답게 순조로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한 유치원만큼은 절실하게 필요로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1991년 3월 11일에 구도서관 강의실 건물을 유아교육장으로 꾸미고 대학 유치원을 개관하였다.[3] 이 때 설립된 삼육유치원은 “유교과 실습 목적으로 수학, 과학, 교육과 언어, 인지, 예능, 사회성, 신체와의 고른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4] 30명 정원으로 설립된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지역 내 유아교육의 산실이 될 만큼 발전하였다.

---

[1]삼육학보, 1992년 11월 13일자, 7.
[2]삼육학보, 1989년 11월 6일자, 7.
[3]교회지남, 1991년 4월호, 26.
[4]삼육학보, 1991년 4월 4일자, 7.

유아교육과의 신설에 이어 1990년 10월 28일에는 삼육농업전문대학이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삼육대병설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병설전문대학은 기존의 농업전문대학이 가지는 특수 전문대학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대학 병설로 운영되는 일반전문대학의 이미지로의 변신을 통해 전문 영역에 속한 다양한 학과들을 신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적합한 명칭이었다. 당시 농업전문대학을 일반전문대학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발전을 위해 학칙변경 및 삼육대병설전문대학으로의 개편을 문교부에 끊임없이 요청한 결과 드디어 승격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삼육대병설전문대학의 승격과 더불어 1991학년도부터는 사무자동화과(80명)와 생활음악과(6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두 학과가 개설되는 대신에 식품영양과와 원예과는 폐지되었다. 사무자동학과는 전산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2년 전부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학과였다. 사무자동화과의 신설로 이해 삼육대학 및 병설전문대학은 IT계열의 학과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생활음악과의 경우는 음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 외에 실질적인 영역에서 음악 연주자와 실습 교육자로서의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학과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학과들의 신설은 부족한 전산실과 음악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 새로운 건물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2]

이 두 학과의 신설 인가를 받은 이듬해인 1991년 말에도 자동차정비과(40명)와 관광영어통역과(40명)를 또 다시 인가를 받았다.[3] 1992학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된 이 두 학과는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로 되는 전문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인가 시책을 펼친 결과 승인된 학과들이었다. 자동차정비과의 경우 교통문화의 발전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전문분야로 전문 자동차정비인을 양성함으로써 자영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였다. 관광 영어통역과 역시 관광 실무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였다. 이 두 분야의 전문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삼육대병설전문대학은 9개과에 입학정원이 420명인 전문대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병설전문대학은 삼육대학이 1992년 3월 1일부로 교명을 삼육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1993년 3월 1일부로 삼육대학교병설전문대학으로 역시 교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발전과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4]

---

[1]교회지남, 1991년 2월호, 27.
[2]삼육학보, 1990년 11월 29일자, 7.
[3]교회지남, 1992년 1월호, 26.
[4]교회지남, 1992년 4월호, 27.

2) 삼육간호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은 1975년 교육단일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편제 아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1978년에 삼육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84년부터는 휘경동 위생병원이 아닌 삼육대학 구내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삼육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이 학교의 지위 향상과 독자적인 시설 마련 등을 요구하게 되자 위생병원 내에 본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1989년 9월 12일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관 건축이 시작되었다.[1] 이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강의실 및 기숙사 시설을 갖춘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강의실 3개와 실습실 2개만이 건축되었다.

위생병원 내 본관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직후인 1990년 5월 28일에 삼육간호전문대학 총학생회는 간호전문대학의 실질적인 독립을 요구하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교육 단일화 방침에 의해 삼육대학 내에 편제된 간호보건대학을 다시 독립해 줄 것과 그에 따른 학교시설 설립을 요구하면서 교육담당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재단 측에서는 연구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간호전문대학의 독립 운영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2]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분리 운영은 불가능했다. 간호전문대학은 채플과 안식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 및 도서관 등 학생들의 복지생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에 신축교사가 완성되자 삼육간호전문대학은 이듬해인 1991년 3월부터 삼육동으로부터 분리해 위생병원 내 간호전문대학 본관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독립 및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삼육간호전문대학은 1994년 12월 28일에 이르러 분리 독립되었다. 이로써 전문대학은 병설로, 간호전문대학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삼육대학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편 간호전문대학은 1992년 3월 2일에 김재신 목사를 새로운 학장으로 모심으로 김미배 학장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독립 및 발전의 시대를 예비하게 되었다. 제13대 학장에 취임한 김재신 목사는 1938년 평남 강서구 성태면 가장리에서 출생하여 1962년 삼육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전국의 삼육중고등학교 교장을 두루 역임하다가 삼육간호전문대학의 학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65년에 경희대 문리대 사학과도 졸업하고 1969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국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3년에는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

---

[1]삼육학보, 1989년 10월 5일자, 1.

[2]당시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권만복(연합회 총무부장), 서기: 김미배(삼육간호전문대학장), 연구위원: 김홍량 학장, 남대극교무처장, 박종현학생처장, 이재춘총무처장, 박선희 간전교무처장, 정애순 간전학생처장, 최영선 간전서무과장 등이었다. 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1.

본 교단의 교육자 및 역사가로 오랫동안 봉사하였다.[1]

병설전문대학과 간호전문대학 등 삼육대학 자매기관들도 199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울러 삼육대학은 이제 발전기를 넘어서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규모를 갖추게 된 삼육대학은 개교 9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향한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9. 도약을 위한 기반 확립(1991)

1990년 8월에 전임 김종화 박사로부터 학장의 자리를 위임받은 김홍량 학장은 임기 초에 삼육대학이 확장 및 발전의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할 기반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별히 "종합대학 체제의 학사 발전" 및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행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종합대학, 즉 삼육대학교로서의 도약을 준비하였다.

1) 조경 및 환경 미화 사업

삼육대학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990년 2학기에 학내 조경사업과 환경미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자연과 하나님의 계시를 조화시켜 선지자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교육시설 및 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조경 사업은 "학생처 주위의 도로정비와 학생 주차장 건설, 도서관 앞 동아리 사무실 뒤편의 공터에 야외 무대설치, 구 우유처리장 장소에 수목을 제거하고 꽃밭 조성, 송림 못 옆 도로에 개나리 나무심기와 등받이 의자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2]

이러한 대학 구내 전반에 걸친 조경사업 및 환경미화사업은 환경보호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대학에서는 환경미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문과 도서관 앞에 환경보호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잡초제거 및 휴지줍기 등 환경미화에 솔선수범하였으며, 학생들 역시 동아리 단위로 환경미화 캠페인 및 교육환경 조성에 동참하였다.[3]

환경은 삼육대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장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담하게 조성된 삼육대학은 항상 아름다운 캠퍼스로 소개되곤 했다. 1990년도에도

---

[1]삼육학보, 1992년 3월 17일자, 1.

[2]삼육학보, 1990년 10월 11일자, 7.

[3]동아리 ACT(회장: 지상훈)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표어를 걸고 환경미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상게서.

마찬가지였다. 그 해 5월 28일자 일간스포츠(2면)는 대학 탐방란에 본 대학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캠퍼스와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삼육대학-금연의 선두주자"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기사에서 신문은 정문에 설치된 금연 게시판의 사진과 함께 창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연을 학칙으로 제정하여 실시해 온 본 대학의 금연 실태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런 대학이념이 추구하는 정책과 맞물려 매우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1]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는 삼육대학의 환경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육대학은 이런 아름다운 캠퍼스를 잘 조성하여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해 말에 환경조성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대학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1991년에 이르러서는 대학 앞 도로의 협소함이 문제가 되어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별히 대학 정문에 이르기 전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앞에서 도로가 갑자기 협소해지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자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현상 중의 하나로 1991년 4월 23일 13시 40분경에는 불암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시내방향으로 향하던 45번 버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봉고베스타의 유턴 장면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에 정면충돌하여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2]

이에 대학과 총학생회는 교통사고 재발 방지 및 상습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도로확장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상반기에 2차선 도로의 확장이 결의되어 1993년에 삼육대학 앞의 2차선 도로가 8차선 도로로 확장되었다. 도로 확장 이외에도 대학 총학생회에는 학교 홍보의 일환으로 1991년 5월말경에 태릉사거리와 학교 정문 앞에 대학 이정표 및 캠퍼스 배치도를 설치해 대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3]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서 삼육대학이 삼육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2) 토플시험센터와 예언의신연구소의 설립(1991)

1991년에는 대학 내에 토플시험을 볼 수 있는 대행소인 토플시험센터(TOEFL Testing Center)가 개설되고, 도서관 내에는 예언의신연구소(E. G. White-SDA Research Center)가 개설되는 등 교육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도 전개되었다.

본 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1991년 1월 28일에 대학 내에 토플시험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힌미교육위원회단에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그해 4월 10일자로 허

---

[1]"삼육대학-금연의 선두주자," 일간스포츠, 1990년 5월 28일자, 2.
[2]삼육학보, 1991년 5월 6일자, 1.
[3]상게서.

가(토플대행 지정번호: K426)를 받고 6월 7일에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토플시험센터 지정을 받은 후 대학은 사무엘관 2층 어학실습실을 토플시험장으로 지정하고 정규 일정에 맞춰 교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삼육대학 학생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토플시험에 응할 후 있게 되었다.[1]

토플시험센터를 교내에 유치하게 됨으로써 삼육대학의 학생들은 특별한 혜택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이 아닌 금요일에 토플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토플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인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토플시험을 치룰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토플센터는 본 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던 클라임스 박사의 부인인 애나 클라임스(Anna Klimes) 박사와 해롤드 셜(Harold Shull) 박사가 각각 지도 주임(supervisor)과 부주임(associate suppervisor)을 맡고 서세균 학정과장이 감독을 맡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2]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의 어학실습실에서 토플 및 토익 모의시험(자기진단 시험)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3]

토플시험센터에 이어 예언의신연구소도 개관되었다. 예언의신연구소는 재림교회 신앙의 중심사상을 창출한 엘렌 화잇 관련 자료들 및 재림교회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소로 1991년에 설치되었다. 예언의신연구소는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16개 재림교회 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삼육대학교의 연구소는 북아시아태평양지회(Northern-Asia-Pacific Division - Korea, Japan, China, Taiwan)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한국의 삼육대학에 본 연구소가 설치된 최초의 시기는 1981년 4월 26일로 미국 대총회 산하기관인 화잇유산관리위원회(Ellen G. White Estate, Inc)의 도움으로 Mini-Center 형태로 설치되었다. 당시 대총회에서 파견한 헤드윅 제미슨 여사(화잇유산관리위원회의 앤드류스 대학교 분실장)가 삼육대학에 방문해서 구도서관에 적은 규모의 센터를 설치한 것이었다.[4]

예언의신연구소의 본격적인 설치작업은 1991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 그해 5월 28일 대학원생들이 예언의신연구소 설립 건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학 운영위원회가 6월 13일에 도서관에 예언의신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학은 원동지회 및 대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영자 선생을 책임자로 선정하여 연구소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과 동시에 자료 수집을 하기 시작

---

[1]삼육학보, 1991년 5월 6일자, 1.
[2]상게서.
[3]삼육학보, 1990년 5월 3일자, 7.
[4]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72.

하였다.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해 예언의신연구소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자 대학 운영위원회는 1991년 9월 5일에 다시 확장된 예언의신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언의신연구원이 1차로 개관된 때는 1992년 3월 2일이었다. 대학은 이 날에 도서관 부설 예언의신연구실(소장: 이영자)을 설치하고 매일 오전 9시~ 오후 5:30(월~목,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까지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였다.[1] 아울러 그해 3월 16일부터는 예언의신연구실 뉴스(Ellen G. White-SDA Research Center News)를 발행하여 연구실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을 전달하였다.

본대학 연구소가 연구소의 핵심 자료들인 엘렌 화잇 관련자료들(원고, 서한 및 DF 자료)을 대총회 화잇유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때는 1992년 8월 26일이었다. 이 자료들이 도착함으로써 진정한 연구센터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자 대학은 비로소 봉헌 예배를 드림으로써 본 연구실이 공식적으로 개관되었다. 연구실의 봉헌 예배에는 교내외의 교단 지도자들과 대총회 화잇유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인 팀 포이리어(Tim Poirier), 폴 고든(Paul A. Gordon), 노마 콜린스(Norma Collins) 등이 참석하였다.[2]

예언의신연구실은 "본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엘렌 화잇의 기별을 올바로 전달하고 본교회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영적인 부흥과 지적인 향상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3]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엘렌 화잇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CD-Rom, Laser Disc, Computer, Books, Articles, etc.), 재림교회 역사적 자료들(리뷰 앤드 헤럴드,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 미니스트리 및 각종 논문집 및 간행물들), 한국 재림교회의 역사적 자료들(교회지남, 시조 및 기타 역사적 자료들), 재림교회 간행물들(국, 영문 도서들),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하였다. 이로써 재림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되었다.

1992년 12월 대학운영협의회에서는 예언의신연구실을 예언의신연구소로 승격하고 연구소를 도서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연구소 설립에 큰 공헌을 남긴 이영자 소장에 이어 안금영 박사를 차기 소장에 임명하여 연구소 발전을 도모하였다.[4] 이로써 예언의신연구소가 보다 학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편 대학 도서관은 2층에 개인 열람실인 캐럴(carrel)을 개설하여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전문 연구실로 제공하였다. 1990년에 최초 설치된 캐럴은 총 10개였는데 그

---

[1]삼육학보, 1992년 3월 17일자, 7.

[2]대총회 화잇유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본 연구소의 자료정리 및 설치를 조력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73.

[3]삼육학보, 1992년 10월 15일자, 1.

[4]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73.

중 8개는 교수 전용이었고 나무지 2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실로 배정되었다.[1] 교수와 학생들은 교재 준비 및 논문 연구를 위해 캐럴을 사용함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선교90주년기념관(교회 및 다목적관) 기공(1991)

1991년에 이르러 학과의 증설과 그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로 강의실 및 각종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대학은 여러 해 동안 계획하던 다목적관을 선교90주년 기념관으로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다목적관은 구별된 예배당 및 음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 공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건축하게 되었다. 특별히 재단이 선교9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본 건축을 지원함으로써 선교90주년기념관이라는 명칭으로 건축되었다.

대학교회를 포함하여 총 690평 규모의 다목적 건물로 지어진 본 건축물은 대학원 강의실, 국제 세미나실, 음악관, 피아노 개인 연습실 등의 용도 아래 계획되어 1991년 5월 1일 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역사적인 건축이 시작되었다.[2] 기숙사 식당 옆에 세워지게 될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 대학은 3월부터 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2달 후에 기공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90주년기념관은 중대한 시대적 변화를 간직한 역사적인 건물이 되었다. 건축이 시작되어 완료되는 동안 삼육대학은 삼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종합대학으로서 승격 출범됨으로써 확장 및 발전의 시대를 넘어 도약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본 건물이 건축되고 완성되었다. 선교90주년기념관의 기공식은 삼육대학 시대가 끝나는 해에 거행 되었고, 준공식은 삼육대학교 시대가 시작되는 해인 1992년 11월 16일에 거행되었다.[3] 특별히 최초의 구별된 대학교회의 완공과 더불어 종합대학으로서 삼육대학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이 건물과 더불어 삼육대학교는 영광스러운 도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학교회 예배당 및 다목적관으로 구성된 선교90주년기념관은 교회 658m^2(1층 533m^2, 2층 125m^2), 다목적관 798m^2(지층 148m^2, 1층 약 650m^2) 등 총 1,456m^2(440여 평)의 규모로 19억1천5백만 원을 들여 건축되었다. 특별히 대학교회를 위해서 삼육식품이 5천만 원 상당의 전자 오르간 1대를 기증했으며, 서중한합회가 2천만 원, 부산 광안리교회의 이종기 회장이 1,342만 원 상당의 피아노 1대, 박대웅

[1]삼육학보, 1990년 4월 9일자, 1.
[2]교회지남, 1991년 7월호, 19.
[3]교회지남, 1993년 1월호, 17.

장로가 300만 원을 기증하였고, 대학 교직원들이 1억 30만 원의 헌금을 드려 이 역사적인 건축에 동참하였다.[1] 이렇게 건축된 대학교회는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물이 되어 개교 100주년을 향한 대학의 발전과 도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4) 학과(재활치료학과, 낙농자원학과)의 증설(1991)

1990년대 초에 병설전문대학에 4개의 과가 새로 신설된 데 이어 삼육대학도 1991년에 재활치료학과(학과장 김평안)와 낙농자원학과(학과장 정순영) 등 2개 학과의 신설을 인가받아 삼육대학교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정에 일조하였다. 이 두 학과는 1991년 10월 22일에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1992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2] 야간학과로 개설된 이 두 학과의 정원은 40명씩으로 생물학과와 원예학과에 이어 4년 만에 또 다시 신설학과를 개설하게 된 것이었다.

이 두 학과는 삼육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설된 학과로 소개되었다. 재활치료학과의 경우 2000년대 복지사회의 건설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주목받고 있는 학과로 적은 수의 대학들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과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아울러 낙농자원학과의 경우는 낙농인구의 감소와 정책적인 농지소유 상한제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낙농의 선진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신설된 학과였다.[3] 재활치료학과는 보사부의 물리치료사 양성교육기관으로도 승인을 받아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일한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가 되었다. 그리고 낙농자원학과는 낙농자원의 특수 의료와 선진국형 낙농형태의 도약 등을 기대케 하는 학과로 주목을 받았다.[4]

이 두 학과가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1992년부터 삼육대학은 삼육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 환경, 제도 및 시설들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학과의 증설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두 학과의 개설로 삼육대학은 이제 인문계열 3학과, 의학계열 3학과, 자연계열 5학과, 예능계열 1학과 등 4개의 계열에 12개 학과 총 530명의 입학정원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다음 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1992년 이후에 러시아삼육대학(1992)이 개교되고, 평생교육원(1993)이 개원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1993)가 개설되는 등 도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은 삼육대학교 100년

---

[1]상게서.

[2]교회지남, 1992년 1월호, 26.

[3]삼육학보, 1991년 11월 7일자, 1.

[4]상게서.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76. 낙농자원학과는 1997년 3월 1일부로 응용동물학과로 개명되었고, 재활치료학과는 2000년 3월 1일부로 물리치료학과로 개명되었다.

의 역사에 있어서 제5시대를 여는 삼육대학교의 시대와 더불어서 시작된다.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85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15년의 역사를 장식하게 될 종합대학교로서의 삼육대학교의 역사는 그렇게 준비되고 시작되었다.